

2022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

2022. 12. 22.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12. 22.

-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책임연구원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원 :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보조연구원 : 박유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인턴)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 김나영 · 조형숙 · 박유경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년 이후의 인구절벽의 시대 소수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5년 안에 이에 대비해야 함.
-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나. 연구내용

- 학령인구 감소 및 유치원 지속가능성 현황 분석
-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운영 맥락 분석
-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발전방안과 과제 제시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목적: 서울특별시 공사립 유치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파악
 - 대상: 서울특별시 공사립 유치원 관리자 및 교직원
 - 방법: 웹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 목적: 서울 유아교육의 현황과 미래 방향 파악
 - 대상: 서울 소재 대학에 근무하는 유아교육과 교수, 관련 연구자, 유치원연합회 및 교사 노조의 경우, 서울지회장 또는 대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장학사, 장학관
 - 방법: 개방형 및 타당도 정도를 구하는 양적 질문

□ FGI 및 심층면담

- 목적: 각 그룹별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 진행
- 대상: 유치원 관리자(공사립유치원 원장 및 원감), 교사(공사립 유치원 교사), 학부모(공사립 유치원) 그룹
- 방법: FGI 심층면담 대상자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천을 받아 유치원 유형별 할당 과정을 통해 선정하여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목적: 서울시 유아교육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파악
- 대상: 서울특별시 유아교육과 장학관과 정책관계자
-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진행

□ 정책 토론회 실시

- 목적: 해당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의제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대상: 쌍방향(대면 및 비대면) 토론회 실시
- 방법: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라. 용어의 정의

□ 기관 지속가능성

-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학령인구

-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를 의미

마.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 FGI와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공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이 유치원에 소속된 교사들로 한정함.
- 서울 공사립유치원 비율을 토대로 비례표집을 하여 공립 112개, 사립 188개 총 300개의 표본을 할당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종 321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만이 아닌 유보통합,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같은 국정과제 수준의 유아교육정책들도 제언으로 다룸.

2. 연구의 배경 및 정책 현황

가. 서울 육아 및 유치원, 어린이집 통계 현황

□ 출산율 및 지자체 인구 통계

- 서울특별시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63으로, 2015년의 합계출산율인 1.0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21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89이며, 2015년의 합계출산율은 1.24이었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소멸위험분류의 주의 수준임.

□ 서울시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현황

- 2022년 기준 서울시 유치원의 수는 788개원으로, 공립 유치원 293개원과 사립 유치원 495개원이 있음.
- 서울시 어린이집 수는 5,049개원, 아동 수는 182,922명, 교직원 수는 52,263명임.
- 2021년 기준의 전국 및 서울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살펴보면 각각 76.1%와 77.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 보육 정책의 특성

-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그리고 관리동 어린이집의 전환 및 설치 지원을 논의해옴.

□ 서울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통계 현황

-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수학급의 경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2013년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학급이 1,394개에서 5,291개로 크게 증가함.

나. 서울시 유아교육정책 및 공사립유치원 운영 현황 분석

□ 서울 유아교육 정책: 2022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계획 분석

다. 선행연구 분석

- 서울시 유치원 교육 발전 방안으로 원아모집 개선 방안과 적정 학급규모에 대해 논의되어 왔음.
-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속 유치원의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3. 학령인구감소대응 서울 공사립 유치원 현장 의견 분석

가. FGI 분석 결과

- 공립유치원의 요구 및 의견
- 사립유치원의 요구 및 의견
- 유아특수교육의 요구와 의견
- 학부모의 요구 및 의견

나.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임.
- 담임교사 외의 전문성을 갖춘 지원교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교사, 비담임 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사립유치원의 경우, 무상교육 시 우선적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부터 실시하여 교사고용과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임.

다. 교직원 의견 조사 결과

- 총 321명의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함.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원아모집의 어려움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동의하고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약 33.3%가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출생아 수 감소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학급편성 시 최소인원 미달로 교사 정원 감축 우려임.
- 폐원 유치원 재구조화 방안 추진, 원아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제고 필요성, 사립유치원 퇴로마련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라. 정책 토론회 의견 수렴 결과

-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학급 정원을 감소하는 방안과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비담임교사 배치가 논의됨.
- 교육 외 서비스에 대해 지원인력 확장의 필요성이 논의됨.

4. 학령인구감소 대응 서울 공사립유치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정책 방향

-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 인력 및 배치
- 거버넌스 및 관리
-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 교육복지 및 재정 영역
- 시설 및 환경
- 교육청 조직, 유보통합 및 의무교육

나. 정책 과제 및 로드맵

목 차

I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4
4. 용어의 정의	6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7
II . 연구의 배경 및 정책 현황	8
1. 서울 육아 및 유치원, 어린이집 통계 현황	8
2. 서울시 유아교육정책 및 공사립유치원 운영 현황 분석	28
3. 선행연구 분석	49
III . 학령인구감소 대응 서울 공사립 유치원 현장 의견 분석	54
1. FGI 분석 결과	54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88
3. 교직원 의견 조사 결과	105
4. 정책 토론회 의견 수렴 결과	113
IV . 학령인구감소 대응 서울 공사립유치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19
1. 정책 방향	119
2. 정책 과제 및 로드맵	126
〈참고문헌〉	127
〈부록〉	131

표 목 차

〈표 1-1〉 FGI 질문 내용	3
〈표 1-2〉 FGI 대상자 특성 및 면담 일정	5
〈표 2-1〉 서울특별시 합계출산율(2012-2021)	8
〈표 2-2〉 전국 및 서울특별시 출산율 변화	8
〈표 2-3〉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출산율 변화(2018~2021)	9
〈표 2-4〉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2021)	11
〈표 2-5〉 전국·서울 경제활동참가율	12
〈표 2-6〉 전국 및 서울특별시 맞벌이가구 비율 변화	12
〈표 2-7〉 서울시 거주 연령별 유아 수 (2022. 4. 1. 기준)	13
〈표 2-8〉 서울시 유치원 재학 연령별 원아수 (2022. 4. 1. 기준)	13
〈표 2-9〉 서울특별시 유치원 (2021)	13
〈표 2-10〉 서울시 유치원 현황 (2022. 4. 1. 기준)	14
〈표 2-11〉 서울특별시 국공립 유치원(단설, 병설) 비율(2022)	14
〈표 2-12〉 서울특별시 설립유형별 유치원 현황(2022. 4)	15
〈표 2-13〉 서울 유치원 단병설 비율	15
〈표 2-14〉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유치원 현황(2021)	15
〈표 2-15〉 서울특별시 유치원 이용 유아 수 현황	16
〈표 2-16〉 전국 대비 서울특별시 유치원 학급당 정원 수	17
〈표 2-17〉 시도별 유치원 취원율	18
〈표 2-18〉 설립주체별 전국·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현황(2021)	19
〈표 2-19〉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 현황(2021)	20
〈표 2-20〉 전국 및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
〈표 2-2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보육시설 이용률 (2021)	20
〈표 2-2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비율 (2021)	21
〈표 2-23〉 전국 어린이집 수 및 재원 영·유아 수 전년대비 증감률	23
〈표 2-24〉 전국 유치원 수 및 재원 유아 수 전년대비 증감률	23
〈표 2-25〉 전국·서울 최근 5년간 유치원 폐원율	24
〈표 2-26〉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지원 정책	24
〈표 2-27〉 서울시 중구 학부모 부담금 지원 관련 정책	25
〈표 2-28〉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자 유아 수의 변화 추이 (2013~2022년)	25
〈표 2-29〉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연령별 변화 추이 (2013~2022년)	25
〈표 2-30〉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유아수의 변화 추이(2013~2022년)	26

〈표 2-31〉 서울시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유아 실태 추이 (2013~2022년)	26
〈표 2-32〉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 특수학급 배치의 변화 (2013-2022)	27
〈표 2-33〉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 일반학급 배치의 변화 (2013-2022)	27
〈표 2-34〉 특수교육대상유아 및 장애유아가 배치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 비교	28
〈표 2-35〉 유아·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29
〈표 2-36〉 실천적 인성교육 운영	29
〈표 2-37〉 생태전환교육 실시	30
〈표 2-38〉 2019 개정 누리과정 방향에 부합하는 유치원 원격수업 사전 계획 및 운영	30
〈표 2-39〉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31
〈표 2-40〉 방과 후 과정	32
〈표 2-41〉 방과 후 놀이쉼터	32
〈표 2-42〉 누리지원단-누리새내기 맞춤형 수업 나눔	33
〈표 2-43〉 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33
〈표 2-44〉 유치원수업방법개선연구대회	34
〈표 2-45〉 학교(유치원) 교육력 제고	34
〈표 2-46〉 유·보 이음교육 운영	34
〈표 2-47〉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35
〈표 2-48〉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사업	35
〈표 2-49〉 장학자료 개발·보급	36
〈표 2-50〉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적 관리,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교육	37
〈표 2-51〉 특수교육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7
〈표 2-52〉 유치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 및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39
〈표 2-53〉 유아교육 연수·연구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원 연수 안내	40
〈표 2-54〉 유치원 안전계획	41
〈표 2-55〉 유아 안전교육	42
〈표 2-56〉 교직원 안전교육	43
〈표 2-57〉 아동학대·성범죄 예방	43
〈표 2-58〉 건강관리	44
〈표 2-59〉 안전점검	44
〈표 2-60〉 시설 및 환경 관리	45
〈표 2-61〉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 지원	46
〈표 2-62〉 통학버스 관리	46
〈표 2-63〉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47

〈표 2-64〉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47
〈표 2-65〉 친환경 유치원급식 실시	48
〈표 2-66〉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48
〈표 2-67〉 선행연구 고찰	50
〈표 3-1〉 면담 내용 정리표	86
〈표 3-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88
〈표 3-3〉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89
〈표 3-4〉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의 타당성	91
〈표 3-5〉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91
〈표 3-6〉 1번의 추가 의견	91
〈표 3-7〉 인력 및 배치의 타당성	93
〈표 3-8〉 인력 및 배치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93
〈표 3-9〉 2번의 추가 의견	94
〈표 3-10〉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의 타당성	95
〈표 3-11〉 3번의 추가 의견	95
〈표 3-12〉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96
〈표 3-13〉 교육과정 운영의 타당성	97
〈표 3-14〉 교육과정 운영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97
〈표 3-15〉 4번의 추가 의견	98
〈표 3-16〉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의 타당성	99
〈표 3-17〉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99
〈표 3-18〉 5번의 추가의견	100
〈표 3-19〉 교육복지 및 재정의 타당성	100
〈표 3-20〉 교육복지 및 재정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101
〈표 3-21〉 6번의 추가의견	101
〈표 3-22〉 시설 및 환경의 타당성	102
〈표 3-23〉 시설 및 환경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102
〈표 3-24〉 7번의 추가의견	103
〈표 3-25〉 행정 및 전달체계, 관련 정책의 타당성	103
〈표 3-26〉 행정 및 전달체계, 관련 정책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104
〈표 3-27〉 8번의 추가의견	105
〈표 3-28〉 교직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5
〈표 3-29〉 교직원 설문 조사지 내용 구성	106
〈표 3-30〉 근무하는 유치원의 원아모집 어려움	107
〈표 3-31〉 근무하는 유치원의 지속가능성 수준	107
〈표 3-32〉 출생아 수 감소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107
〈표 3-33〉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영역 정책 적합도	108
〈표 3-34〉 인력 및 배치 영역 정책 적합도	109

〈표 3-35〉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영역 정책 적합도	110
〈표 3-36〉 교육과정 운영 영역 정책 적합도	110
〈표 3-37〉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영역 정책 적합도	111
〈표 3-38〉 교육복지 및 재정 영역 정책 적합도	112
〈표 3-39〉 시설 및 환경 영역 정책 적합도	112
〈표 3-40〉 교육청 조직 및 전달체계 영역 정책 적합도	113
〈표 3-41〉 4차 정책토론회 ‘학령인구 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실태와 미래 전망’	114

그 립 목 차

〈그림 1-1〉 정책토론회 유튜브 화면	6
〈그림 1-2〉 정책토론회 포스터	6
〈그림 2-1〉 전국·서울특별시 출산율 변화	10
〈그림 2-2〉 전국 및 서울특별시 여성 고용률 변화 추이 (2013. 9.~2022. 9.)	12
〈그림 4-1〉 정책 비전 및 정책 방향	1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0.8로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통계청, 2020).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5로 2026년 전체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 수는 약 212만 명이고, 2020년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6-11세 아동 수는 약 277만 명, 2026년에는 현재보다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 수가 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가정할 시 초등학생 65만 명 감소 시 학급 수는 3만2500학급 감소(유휴교실 3만2500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유치원의 경우, 2026년에는 2020년 유치원 학급 수 36,634개의 88.7%인 32,500개 학급을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유휴교실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2021). 이러한 인구 변화로 추후 10년 이내에 사립유치원 폐원,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및 소인수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통합하여 기관 이용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5년 이후의 인구절벽의 시대 소수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은 서울특별시의 공사립유치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합계출산율이 0.63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0.75) 보다 낮다. 청년인구 거주비율이 높음에도 여전히 지방소멸위험 분류 기준상 6개의 구를 제외하고 다 '주의'에 해당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또한 여성 고용률이 53%이고,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40%이다. 즉, 서울특별시는 출산율이 낮더라도 맞벌이 부모, 일하는 엄마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도시이다. 공공성 높은 유치원과 종일제 교육과 보육, 육아휴직 등의 통합된 교육보육 서비스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성이 높은 공사립 유치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교육기관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유아 수용계획이 필요한데, 유보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수용계획을 달리 세우고 있어 잠재적으로 기관의 정원충족률의 문제와 폐원 기관 활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정부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정책 확대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국공립유치원 양적 확대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현재 유아 수 감소, 유아수용계획 등의 문제로 정원충족률이 떨어지고 신설 유치원에서는 유아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양

적인 접근보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공립 유치원 재구조화, 급당 유아 수 감축 등의 보다 진취적인 해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립단설과 병설 유치원을 재구조화하고, 급당 인원수를 20명이 아닌 10-12명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선진국 수준의 미래 유아학교로의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운영비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령인구감소의 위기 하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보는 것이다. 서울의 공사립 유치원이 맞이한 경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여러 사례와 방법 등을 논의하여 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상생발전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 학령인구 감소 및 유치원 지속가능성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및 유치원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 유치원 공공성 정책의 한계점과 지속가능성 통계 현황 분석, 서울시 유아교육정책 맥락 및 지속가능성 분석,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교육 여건 및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서울 유치원 공공성 정책의 한계점과 지속가능성 통계 현황 분석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외 및 타시도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문헌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유아교육정책 및 공사립유치원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서울시 유아교육 정책 맥락 및 지속가능성 분석

서울시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 출산율 등 일반 육아현황, 유치원 정책 지원 현황 및 지속가능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 정원충족률, 유아 수, 교직원 수, 설립 및 폐원 현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및 환경 분석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및 환경 분석을 위해 교직원, 급간식, 프로그램, 시설 운영 등을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운영 맥락 분석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견조사, FGI를 통해 교직원(양적, 질적 분석), 유아교육전문가, 학부모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립 단설과 병설, 사립 법인과 사인의 요구를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듣고자 하였다. 서울 공사립유치원의 운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를 통한 유치원 운영 맥락 분석

서울 공사립유치원 관리자 및 교직원을 321명을 대상으로 서울 유치원의 지속가능성 현황 및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공사립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맥락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유치원 운영 맥락 분석

학계 및 행정가, 현장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지속가능성 및 상생발전방안을 조사하여 정책 제언을 위한 방향 설정을 하고자 하였다.

3) FGI 실시를 통한 유치원 운영 맥락 분석

유치원 관리자, 교사, 부모 그룹을 대상으로 기관 지속가능성 현황 및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의견조사와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고, 양적 분석에서 파악되지 않는 맥락적인 요인들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FGI 질문 내용

구분	질문내용
인식, 경험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유치원 현장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무엇을 체감하나? 어떤 현상을 경험했는가? *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교육여건 및 환경은 어떠한가? 만족도, 또는 아쉬운 점(교직원, 급식·간식, 교육 프로그램, 시설 운영 등). *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3-5년(단기), 5년-10년(중장기), 서울 유치원들의 구조와 운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 서울시 유치원 정원충족률, 유아 수, 교직원 수, 설립 및 폐원 등, 현상을 경험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유치원이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개선방안	<p>부모입장에서 보기에 공사립유치원 생존,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또는 유치원이 아이들이 없어 폐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치원은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할까?</p> <p>(다음의 범주를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1.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충족, 2. 인력 및 배치, 3.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4. 교육과정 운영, 5. 방과 후 과정 운영(돌봄/특성화 운영), 6. 교육복지 및 재정, 7. 시설 및 환경 등을 중심으로)</p>

다.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발전방안과 과제 제시

학령인구 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서울 유아교육의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연구 설계 및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저출생, 학령인구감소와 관련된 유치원 정책의 배경, 법 제도 및 통계 현황을 정리하여, 해당 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공공기관 정책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유치원 정책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설문조사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공사립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웹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사립유치원 관리자 및 교직원을 대상 321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표집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서울 공사립유치원 비율을 토대로 비례표집을 하였으며, 공립 112개, 사립 188개 총 300개의 표본을 할당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총 2회 실시하였다. 1차는 개방형 및 타당도 정도를 구하는 양적 질문으로, 2차는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1차는 12월 1일에서 5일 사이, 2차는 12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전문가의 경우, 주로 서울 소재 대학에 근무하는 유아교육과 교수, 관련 연구자, 유치원연합회 및 교사 노조, 서울지회장 또는 대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장학사, 장학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서울 유아교육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라. FGI 및 심층면담

유치원 관리자(공사립유치원 원장 및 원감), 교사(공사립 유치원 교사), 학부모(공사립 유치원) 그룹을 대상으로 FGI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FGI 심층면담 대상자는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천을 받아 유치원 유형별 할당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각 그룹별 5인을 추천받아 포커스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치원 관리자 그룹 심층면담의 경우,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따로 면담하였는데, 공사립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교사그룹과 학부모

그룹은 공사립유치원 모두 함께 FGI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그룹에는 유아특수 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 1-2〉 FGI 대상자 특성 및 면담 일정

그룹	면담일자(장소)	면담 대상자	연령	소속
관리자	2022.9.25. (온라인 회의실)	A유치원 원장	만46세	사립사인(은평구)
		B유치원 원장	만54세	사립법인/ 사회적협동조합법인(노원구)
		C유치원 원감	만53세	사립법인/학교법인(노원구)
	2022.10.11. (온라인 회의실)	D유치원 원장	만55세	공립단설(노원구)
		E유치원 원감	만49세	공립병설(중랑구)
교사	2022.9.25. (온라인 회의실)	F유치원 교사	만43세	사립사인(은평구)
		G유치원 유아특수교사	만34세	공립단설(도봉구)
		H유치원 교사	만27세	사립법인(서대문구)
		I유치원 교사	만33세	공립병설(서대문구)
		J유치원 교사	만44세	공립단설(강남구)
학부모	2022.10.12. (온라인 회의실)	K유치원 학부모(모)	만35세	사립사인(강서구)
		L유치원 학부모(모)	만38세	사립법인(서대문구)
		M유치원 학부모(모)	만45세	공립단설(강서구)
		N유치원 학부모(모)	만40세	공립병설(성동구)
		O유치원 학부모(모)	만37세	사립사인(광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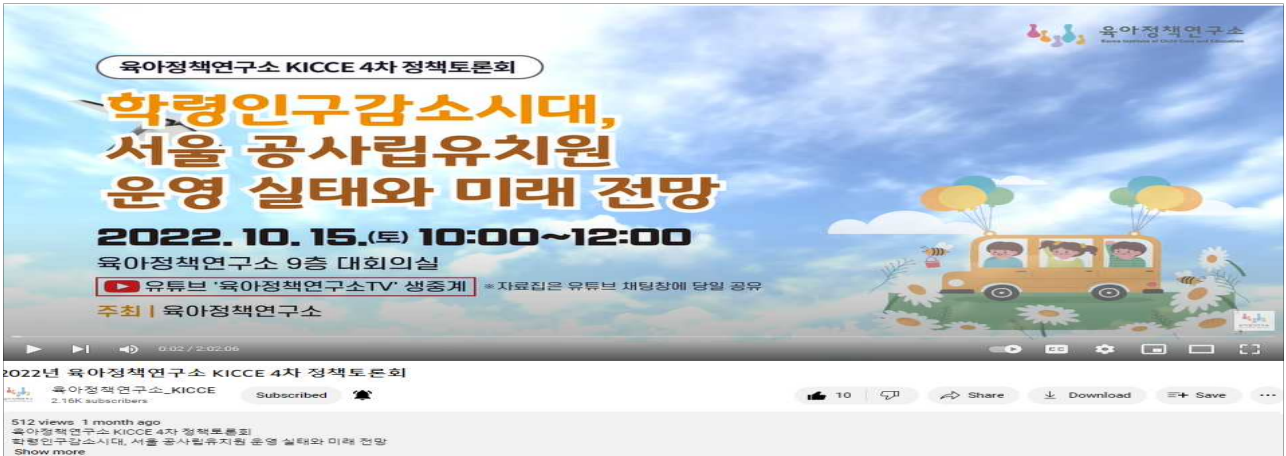
마.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전문가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진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유아교육과 장학관과 정책관계자와 수시로 소통하여 서울시 유아교육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바. 정책 토론회 실시

본 연구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의제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2년 10월 15일(토)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상희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최윤희 교육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하였다. 학자, 행정가 등이 함께 모여 서울시 유아교육 및 유치원 정책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학령인구감소 시기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 공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1-1〉 정책토론회 유튜브 화면



출처: 토론회 유튜브 주소 육아정책연구소_KICCE: <https://www.youtube.com/watch?v=las7WYfIOP0>(검색일: 2022.10.15.)

〈그림 1-2〉 정책토론회 포스터

시간	세부 일정
9:40~10:00	등록 및 준비
10:00~10:15	[개회] • 국민의례 •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승미 교육위원장, 진병주, 최윤희 교육위원
	자유토론 최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0:15~11:55	토론 1 김건형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토론 2 정금숙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교육혁신위원장 토론 3 박다솔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토론 4 장혜연 유아교육개선을 위한 유아교사연합 대표교사 토론 5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패널 •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 •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 • 이윤경 참고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질의응답 온/오프 청중 ※ 사진촬영
11:55~12:00	■회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관 지속가능성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영유아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은 영유아교육기관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여 운영 가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영유아교육기관은 경제, 환경, 사회의 측면에서 미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나. 학령인구

학령인구는 교육인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 수에 중점을 둔다. 예컨대, 2026년 전체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 수는 약 212만 명이고, 2020년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6-11세 아동 수는 약 277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현재보다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 수가 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공사립 유치원’은 서울특별시 내의 공사립유치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뢰를 받은 연구이므로 FGI와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공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이 유치원에 소속된 교사들로 한정하였다. 이에 어린이집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전체의 육아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자료에서는 육아 및 보육 환경에 관한 자료들을 포함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경우, 예산과 시간 등의 연구의 한계로 서울시교육청 관할 700여개의 유치원을 모두 전수조사는 하기 어려웠고, 서울 공사립유치원 비율을 토대로 비례표집을 하여 공립 112개, 사립 188개 총 300개의 표본을 할당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종 321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시 공사립유치원에 관한 연구로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인력 및 배치,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교육복지 및 재정, 시설 및 환경 영역까지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때로는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만이 아닌 유보통합,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같은 국정과제 수준의 유아교육정책들도 제언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정책이 학교급식법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

Ⅱ. 연구의 배경 및 정책 현황

1. 서울 육아 및 유치원, 어린이집 통계 현황

가. 출산율 및 지자체 인구 통계

한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63으로, 2015년의 합계출산율인 1.0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합계출산율과 비교하였을 때도 적은 수치이다. 2021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89이며, 2015년의 합계출산율은 1.24이었다. 전국의 출산율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서울의 출산율은 더 낮게 유지되어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출산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0점대가 시작되었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63이다.

〈표 2-1〉 서울특별시 합계출산율(2012-2021)

단위: %

연도	합계출산율	연도	합계출산율
2012	1.059	2017	0.836
2013	0.968	2018	0.761
2014	0.983	2019	0.717
2015	1.001	2020	0.642
2016	0.940	2021	0.626

출처: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검색일: 2022.09.19.)

〈표 2-2〉 전국 및 서울특별시 출산율 변화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서울	1.059	0.968	0.983	1.001	0.940	0.836	0.761	0.717	0.642	0.626

주: 단위: 가입여성 1명당 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2~2021년), 합계출산율

〈표 2-3〉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출산율 변화(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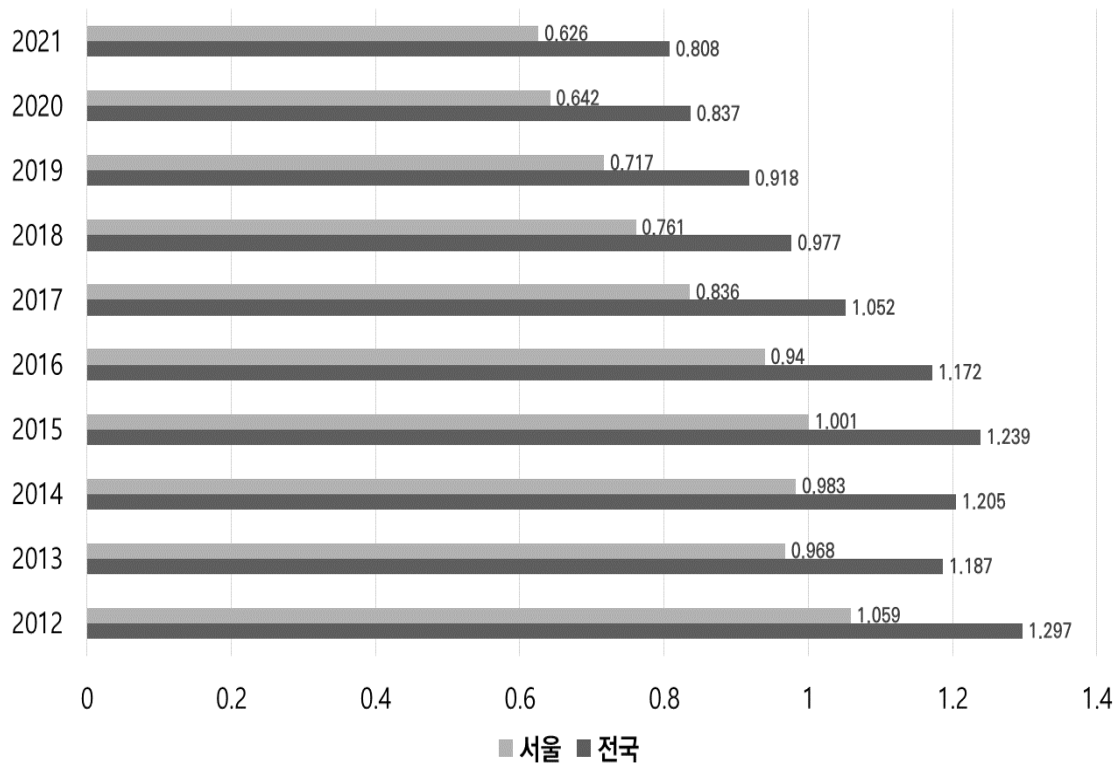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1.059	0.968	0.983	1.001	0.940	0.836	0.761	0.717	0.642	0.626
종로구	0.890	0.729	0.790	0.813	0.784	0.646	0.606	0.648	0.522	0.531
중구	1.121	0.955	1.004	0.946	0.974	0.824	0.737	0.780	0.688	0.634
용산구	1.098	1.008	0.978	1.005	0.907	0.793	0.747	0.713	0.634	0.664
성동구	1.077	1.079	1.027	1.095	1.013	0.972	0.909	0.855	0.783	0.764
광진구	0.957	0.877	0.895	0.903	0.867	0.749	0.713	0.652	0.527	0.525
동대문구	0.998	0.909	0.914	0.960	0.889	0.822	0.753	0.765	0.699	0.660
중랑구	1.082	0.991	1.006	1.051	0.995	0.906	0.825	0.777	0.660	0.650
성북구	1.044	0.983	0.949	0.991	0.909	0.818	0.737	0.707	0.676	0.656
강북구	1.051	0.963	0.955	0.922	0.878	0.825	0.647	0.617	0.550	0.541
도봉구	1.137	0.956	1.000	1.010	0.947	0.833	0.774	0.697	0.601	0.579
노원구	1.162	1.057	1.109	1.096	1.068	0.938	0.809	0.776	0.695	0.701
은평구	1.139	1.024	1.028	1.003	0.943	0.814	0.772	0.697	0.623	0.604
서대문구	0.967	0.938	0.954	0.913	0.934	0.823	0.727	0.685	0.685	0.635
마포구	0.991	0.892	0.915	0.986	0.945	0.806	0.733	0.681	0.594	0.587
양천구	1.055	0.990	1.005	1.034	1.008	0.898	0.771	0.742	0.644	0.645
강서구	1.151	1.032	1.064	1.129	1.059	0.925	0.826	0.760	0.675	0.617
구로구	1.258	1.162	1.142	1.169	1.070	0.943	0.838	0.794	0.737	0.737
금천구	1.104	0.944	1.019	1.086	0.944	0.901	0.796	0.709	0.668	0.612
영등포구	1.142	0.999	1.025	1.085	1.011	0.884	0.851	0.829	0.705	0.713
동작구	1.017	0.974	1.007	1.012	0.912	0.831	0.737	0.697	0.655	0.602
관악구	0.891	0.825	0.834	0.833	0.777	0.662	0.597	0.536	0.474	0.437
서초구	1.095	1.007	1.014	1.012	0.928	0.799	0.800	0.715	0.656	0.666
강남구	0.886	0.842	0.863	0.857	0.802	0.706	0.631	0.612	0.537	0.523
송파구	1.099	0.973	0.996	1.008	0.958	0.871	0.800	0.770	0.665	0.623
강동구	1.101	1.006	1.039	1.036	0.938	0.884	0.820	0.758	0.748	0.797

주: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2~2021년), 합계출산율

〈그림 2-1〉 전국·서울특별시 출산율 변화

단위: 명



주: 단위: 가입여성 1명당 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2~2021년), 합계출산율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과 인구소멸위험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0.80), 가장 낮은 지역은 관악구(0.44)이다. 서울특별시 합계출산율은 0.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강남구 등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이다.

한국고용정보원(2022)의 지방소멸위험분류(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소멸위험 매우 낮음(1.5이상), 소멸위험 보통(1.0~1.5미만), 주의단계(0.5~1.0 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0.2~0.5 미만), 소멸고위험(0.2미만)으로 나누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주의 수준이다. 출산율과 연동하여 지방소멸위험에서 주의를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

〈표 2-4〉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합계출산율(2021)

단위: 명

지역명	합계출산율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분류
서울특별시	0.63		
종로구	0.53	0.77	주의
중구	0.63	0.81	주의
용산구	0.66	0.93	주의
성동구	0.76	0.97	주의
광진구	0.52	1.15	보통
동대문구	0.66	0.84	주의
중랑구	0.65	0.77	주의
성북구	0.66	0.84	주의
강북구	0.54	0.59	주의
도봉구	0.58	0.60	주의
노원구	0.70	0.73	주의
은평구	0.60	0.77	주의
서대문구	0.63	0.88	주의
마포구	0.59	1.23	보통
양천구	0.65	0.80	주의
강서구	0.62	1.01	보통
구로구	0.74	0.79	주의
금천구	0.61	0.86	주의
영등포구	0.71	1.06	보통
동작구	0.60	0.95	주의
관악구	0.44	1.18	보통
서초구	0.67	0.95	주의
강남구	0.52	0.98	주의
송파구	0.62	1.03	보통
강동구	0.80	0.88	주의

주: 1) 지방소멸위험분류(지방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낮음(1.5이상), 소멸위험 보통(1.0~1.5미만), 주의단계(0.5~1.0 미만), 소멸위험진입단계(0.2~0.5 미만), 소멸고위험(0.2미만).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각 연도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토대로 작성

출처: 1) 이상호·김필(2022.3.),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 통계청(<https://kosis.kr/>). 2021년 출생 통계.

전국 및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참가율은 6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중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약 1%씩 더 낮지만 60% 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고용률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여성 고용률은 53.7%이며, 서울의 여성 고용률은 53.3%이다. 2021년까지 서울의 여성 고용률이 전국의 여성 고용률 보다 높았으나, 2022년에는 작은 차이로 전국의 고용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맞벌이가구의 비율도 2013년 이후 37% 이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21년 서울 맞벌이 가구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전국의 맞벌이가구는 2013

년 이후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이고, 서울의 맞벌이가구 비율은 전국 비율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수치들을 고려해 볼 때, 인구소멸과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는 있으나, 추후 맞벌이 부모를 위한 영유아 교육기관과 확충과 종일제 교육, 보육 서비스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전국·서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2022.06	2022.07	2022.08
전국	64.9	64.8	64.1
서울	63.0	62.9	62.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전국 및 서울특별시 여성 고용률 변화 추이(2013. 9.~2022. 9.)

단위: %



출처: 통계청(각 연도 9월). 「지역별 고용조사」.

〈표 2-6〉 전국 및 서울특별시 맞벌이가구 비율 변화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43.3	44.2	44.1	45.5	44.6	46.3	46.0	45.4	46.3
서울	37.5	38.4	38.7	41.0	40.2	40.4	39.4	39.6	41.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중 시도별 맞벌이가구(2013~2021년).

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현황

2022년 기준 서울시 거주 3-5세 유아 수는 164,328명이다. 구체적으로 3세는 50,477명, 4세는 53,749명, 5세는 60,094명이다.

〈표 2-7〉 서울시 거주 연령별 유아 수 (2022. 4. 1. 기준)

단위: 명

만3세	만4세	만5세	계
50,477	53,749	60,094	164,328

출처: 2022 서울교육통계.

2022년 기준 서울시 거주 3-5세 유아 수는 164,328명이다. 구체적으로 3세는 50,477명, 4세는 53,749명, 5세는 60,094명이다. 3세와 5세는 약 10,000명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유치원 재학 원아 수는 66,485명이다. 3세의 경우, 17,097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4세는 23,004명이 재학 중에 있다. 그리고 5세의 경우 26,384명이 재학 중에 있다. 3-5세 모두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원아 수가 공립유치원에 재학하는 원아 수 보다 더 많았다.

〈표 2-8〉 서울시 유치원 재학 연령별 원아수 (2022. 4. 1. 기준)

단위: 명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설립	계	17,097	23,004	26,384	66,485
	공립	3,233	5,440	7,263	15,971
	사립	13,864	17,564	19,121	50,553

출처: 2022 서울교육통계.

2022년의 원아 수 66,485명은 2021년 66,524명 보다 감소하였다. 2021년 서울시 유치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수는 69,958명(남아: 35,405명, 여아: 34,553명)이다. 교직원 수는 교사 6,391명(남자: 85명, 여자: 6,306명)과 사무직원 648명(남자: 239명, 여자: 409명)으로 총 7,039명으로 나타났다.

〈표 2-9〉 서울특별시 유치원 (2021)

단위: 개, 명

	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합계	787	3,704	69,958	35,405	34,553	6,391	85	6,306

주: 교원 수는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s://data.seoul.go.kr/dataList/200/S/2/datasetView.do>에서 2022년 9월 19일 인출.

2022년 기준 서울시 유치원의 수는 788개원으로, 공립 유치원 293개원과 사립 유치원 495개원이 있다. 학급 수는 전체 18,367개로.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 1,269

개와 사립 유치원의 학급 수 2,435개가 있다. 전체 교원 수는 12,892명으로, 공립 유치원 교원 3,272명과 사립 유치원 교원 9,6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0〉 서울시 유치원 현황 (2022. 4. 1. 기준)

단위: 개원, 명

구분	공립	사립	계
유치원수	293	495	788
편성 학급수	1,269	2,435	3,704
유아수	15,971	50,553	66,524
교원수	3,272	9,620	12,892

출처: 2022 서울교육통계.

한편, 유치원 알리미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유치원의 수는 763개원이다. 이중 사립유치원은 472개원이며, 국공립유치원은 296개원으로 서울시 전체 기준 38.8%를 차지한다. 서울교육통계와 수치의 차이가 있으나, 국공립유치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립(병설)이 248개원이며, 공립(단설)은 48개원이다. 공립(병설)은 서울시 국공립 기준 83.8%를 차지하고 공립(단설)은 서울시 국공립 기준 16.2%를 차지한다.

〈표 2-11〉 서울특별시 국공립 유치원(단설, 병설) 비율(2022)

단위: 명(%)

국공립		사립
병설	단설	
248(83.8)	48(16.2)	472
296(38.8)		
763		

출처: 유치원 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검색일: 2022.12.16.)

서울특별시 내 유치원의 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기본운영 형태가 291개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아침돌봄 277개원과 저녁돌봄 및 온종일돌봄 183개원, 특수학급 129개원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립 유치원 또한 기본운영 형태가 468개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아침돌봄 257개원, 저녁돌봄 185개원, 온종일돌봄 179개원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서울특별시 설립유형별 유치원 현황(2022. 4)

단위: 개원

	기본운영	특수학급	아침돌봄	저녁돌봄	온종일돌봄
국공립	291	129	277	183	183
사립	468	0	257	185	179

주: 아침돌봄: 7:00~9:00, 저녁돌봄: 17:00~22:00, 온종일돌봄: 6:30~22:00 (서울시 내에서도 기관마다 시간이 상이함).

출처: 유치원 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검색일: 2022.09.19.)

2022년 기준 전국 및 서울특별시 내 유치원의 현황을 설립주체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유치원 수는 8,562개원으로 공립 유치원이 5,113개원으로 가장 많고, 사립 유치원 3,446개원, 국립 유치원 3개원 순으로 많았다. 전국의 학급 수는 33,173개, 원아 수는 552,812명, 교원 수는 53,696명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유치원 수는 788개원으로 사립 유치원이 495개원, 공립유치원이 293개원이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립유치원은 없었다. 서울특별시 내 유치원의 학급 수는 3,704개, 원아 수는 66,524명, 교원 수는 6,446명으로 나타났다.

〈표 2-13〉 서울 유치원 단병설 비율

단위: 개원, 개, 명

구분	설립주체별	유치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전국	계	8,562	33,173	552,812	53,696
	국립	3	17	255	25
	공립	5,113	13,449	167,230	21,318
	사립	3,446	19,707	385,327	32,353
서울	계	788	3,704	66,524	6,446
	국립	-	-	-	-
	공립	293	1,269	15,971	1,636
	사립	495	2,435	50,553	4,810

출처: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1(검색일: 2022.11.08.)

〈표 2-14〉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유치원 현황(2021)

단위: 개, 명

	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소계	787	3,704	69,958	6,391	648
종로구	16	54	1,077	96	9
중구	14	58	1,002	94	9
용산구	13	62	1,351	119	7
성동구	29	109	1,978	169	17
광진구	31	119	2,237	207	21
동대문구	28	135	2,596	236	24
중랑구	32	158	2,658	259	15

	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성북구	46	217	4,208	395	47
강북구	20	79	1,199	129	14
도봉구	26	114	2,115	215	17
노원구	57	290	5,466	488	47
은평구	39	183	3,196	289	32
서대문구	23	109	2,257	200	23
마포구	26	131	2,711	245	25
양천구	39	206	3,769	351	33
강서구	52	247	4,786	418	47
구로구	31	142	2,693	243	29
금천구	18	85	1,423	135	14
영등포구	37	165	3,356	301	23
동작구	31	132	2,661	239	23
관악구	32	167	2,682	263	31
서초구	26	128	2,321	224	25
강남구	36	166	2,938	299	33
송파구	49	249	5,073	455	52
강동구	36	199	4,205	322	31

주: 1) 교원수: 재직, 휴직, 파견 포함. 기간제는 2021.4.1.현재 재직 중 교원 모두 포함
 2) 사무직원수: 사무직원수에 무기계약직 불포함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통계(2021)

서울시 내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공립유치원의 전년도 대비 유아 수 감소율은 4.5%이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대비 유아 수 감소율은 5.04%로 사립유치원의 감소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15〉 서울특별시 유치원 이용 유아 수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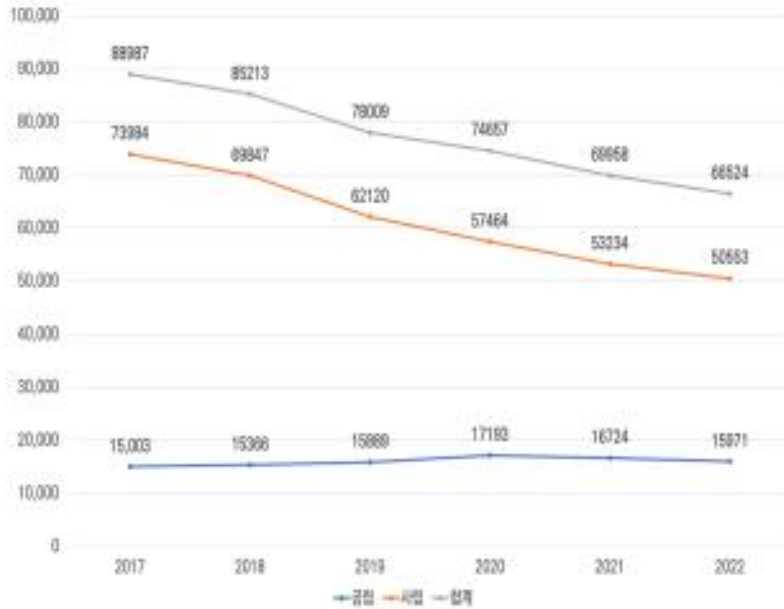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립	15,003	15,366	15,889	17,193	16,724	15,971
사립	73,984	69,847	62,120	57,464	53,234	50,553
합계	88,987	85,213	78,009	74,657	69,958	66,524

주: 매년도 4.1. 교육통계 기준.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기본통계.

〈그림 2-3〉 서울특별시 유치원 이용 유아 수 현황

단위: 명



주: 매년도 4.1. 교육통계 기준.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기본통계.

2021년 기준 서울시 내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수는 만5세반을 제외 하고 전국 유치원의 평균 보다 높은 수를 보였다.

〈표 2-16〉 전국 대비 서울특별시 유치원 학급당 정원 수

단위: 명

시도	학급당 정원						평균 (단일연령)	평균 (전체)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만3~4세	만4~5세	만3~5세		
서울	16	22	24	22	22	22	20.7	21.3
부산	16	24	26	22	26	24	22.0	23.0
대구	18	24	28	20	26	24	23.3	23.3
인천	18	23	25	20	20	20	22.0	21.0
광주	16	22	24	22	22	22	20.7	21.3
대전	15	22	26	22	22	22	21.0	21.5
울산	16	22	25	22	22	22	21.0	21.5
세종	14	18	22	18	18	18	18.0	18.0
시평균	16.1	22.1	25.0	21.0	22.3	21.8	21.1	21.4
경기	14~18	22	26	16	22	20	22.0	20.7
강원	16	22	24	16	20	18	20.7	19.3
충북	15	20	23	17	17	17	19.3	18.2
충남	15	19	23	17	19	15	19.0	18.0
전북	14	18	22	16	18	16	18.0	17.3
전남	15	19	21	16	20	17	18.3	18.0
경북	16~18	22	24~26	20~24			22.0	23.0

경남	16	21	24	18	18	18	20.3	19.2
제주	20	22	26	20	22	18	22.7	21.3
도평균	15.7	20.6	23.7	17.3	19.6	17.7	19.1	19.1
전체평균	15.9	21.3	24.3	19.1	20.8	19.6	20.0	20.2

주: 2021. 4. 1. 교육통계 기준.

시도별 유치원의 취원율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유형에 따라 시도별 취원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의 취원율은 23.9%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의 취원율은 76.1%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17〉 시도별 유치원 취원율

단위: %

시도	국·공립		사립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서울	16,724	23.9%	53,234	76.1%	69,958
부산	8,063	20.9%	30,588	79.1%	38,651
인천	9,308	25.7%	26,862	74.3%	36,170
대구	7,186	21.2%	26,772	78.8%	33,958
광주	4,410	19.9%	17,788	80.1%	22,198
대전	4,068	19.1%	17,208	80.9%	21,276
울산	4,728	29.8%	11,143	70.2%	15,871
세종	6,474	98.1%	126	1.9%	6,600
경기	50,025	30.9%	111,955	69.1%	161,980
강원	6,020	44.0%	7,664	56.0%	13,684
충북	3,596	57.3%	2,681	42.7%	6,277
충남	8,339	53.5%	7,237	46.5%	15,576
전북	8,905	36.3%	15,651	63.7%	24,556
전남	7,595	37.9%	12,427	62.1%	20,022
경북	8,952	51.8%	8,324	48.2%	17,276
경남	9,926	29.7%	23,449	70.3%	33,375
제주	13,042	28.9%	32,102	71.1%	45,144

주: 2021. 4.1. 교육통계 기준.

2021년 기준 전국 및 서울특별시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33,246개원, 아동 수는 1,184,716명, 그리고 교직원 수는 321,116명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이 13,891개원으로 가장 많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순으로 많았다. 한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수는 민간어린이집이 535,428명으로 가장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순으로 많았다. 교

직원 수는 민간어린이집이 123,655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순으로 많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수는 5,049개원, 아동 수는 182,922명, 교직원 수는 52,263명이었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811개원으로 가장 많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순으로 많았다. 한편, 재원 중인 아동의 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85,501명으로 가장 많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순으로 많았다.

〈표 2-18〉 설립주체별 전국·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현황(2021)

단위: 개원, 명

시도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수	아동수	교직원수
전국	계	33,246	1,184,716	321,116
	국·공립	5,437	268,967	67,191
	사회복지법인	1,285	72,085	17,673
	법인·단체 등	640	30,998	7,361
	민간	10,603	535,428	123,655
	가정	13,891	208,842	83,758
	협동	142	3,465	1,009
	직장	1,248	64,931	20,479
서울	계	5,049	182,922	52,263
	국·공립	1,811	85,501	22,513
	사회복지법인	23	1,187	275
	법인·단체 등	92	3,873	935
	민간	1,162	54,604	13,555
	가정	1,637	23,846	9,935
	협동	28	661	239
	직장	296	13,250	4,811

주: 국·공립: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민간 어린이집; 가정: 가정 어린이집; 협동: 협동 어린이집; 직장: 직장 어린이집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2CA0211R(검색일: 2022.11.08.)

전국 어린이집 현황을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2세는 674,077명, 3-5세는 505,776명, 6세 이상은 4,863명이 있다. 3-5세 보다 0-2세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9〉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 현황(2021)

단위: 명

연령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0-2세	674,077	132,783	28,872	11,439	262,745	207,371	1,242	29,625
3-5세	505,776	135,164	41,369	18,865	271,529	1,443	2,198	35,208
6세 이상	4,863	1,020	1,844	694	1,154	28	25	98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2CA0211R(검색일: 2022.11.15.)

2021년 기준의 전국 및 서울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살펴보면 각각 76.1%와 77.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0〉 전국 및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단위: %

구분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전국	1,557,496	1,184,716	76.1
서울	235,682	182,922	77.6

출처: 보건복지부(2022). 2021년 보육통계.

서울시 전체 아동정원은 235,682명, 아동현원은 182,922명,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률은 77.6%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송파구가 16,296명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가 15,122명, 강동구가 13,0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정원이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4,109명이며, 종로구가 4,533명, 용산구가 5,157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아동현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송파구가 13,761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는 11,789명, 강동구는 10,5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현원이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2,992명이며, 종로구가 2,992명, 용산구가 4,108명으로 뒤를 이었다. 끝으로 이용률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송파구가 84.4%로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가 81.2%, 서대문구와 동작구가 각각 81%로 뒤를 이었다. 이용률이 가장 적은 구는 종로구 66%이며, 강남구 70.1%, 금천구 70.2%가 뒤를 이었다.

〈표 2-2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보육시설 이용률 (2021)

단위: 명, %

	아동정원	아동현원	이용률
전체	235,682	182,922	77.6
종로구	4,533	2,992	66.0
중구	4,109	2,976	72.4
용산구	5,157	4,108	79.7
성동구	7,640	5,876	76.9

	아동정원	아동현원	이용률
광진구	7,191	5,499	76.5
동대문구	8,100	6,423	79.3
중랑구	9,949	7,877	79.2
성북구	9,306	7,552	81.2
강북구	7,212	5,504	76.3
도봉구	7,861	5,914	75.2
노원구	11,123	8,593	77.3
은평구	12,350	9,378	75.9
서대문구	6,762	5,476	81.0
마포구	8,709	7,025	80.7
양천구	10,787	8,291	76.9
강서구	15,122	11,789	78.0
구로구	12,170	9,583	78.7
금천구	7,369	5,172	70.2
영등포구	11,739	9,354	79.7
동작구	8,377	6,782	81.0
관악구	9,442	7,007	74.2
서초구	10,474	7,851	75.0
강남구	10,866	7,618	70.1
송파구	16,296	13,761	84.4
강동구	13,038	10,521	80.7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기본통계.

서울시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은 국공립이 85,501명으로 가장 많고, 민간 54,604명, 가정 23,846명, 직장이 13,250, 법인단체 등이 3,873명, 사회복지법인 1,187명, 그리고 부모협동이 661명 순으로 많다. 자치구별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강북구와 은평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용률이 가장 적은 보육시설 유형으로는 부모협동이 16개구, 법인단체 등이 4개구, 가정이 1개구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 그리고 부모협동의 경우 이용률이 없는 구들이 존재했다.

〈표 2-2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비율(2021)

단위: 명,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계	아동수	85,501	1,187	3,873	54,604	23,846	661	13,250
	이용비율	46.7	0.6	2.1	29.9	13.0	0.4	7.2
종로구	아동수	1,494	52	29	216	43	-	1,158
	이용비율	49.9	1.7	1.0	7.2	1.4	-	38.7
중구	아동수	1,396	-	243	203	161	-	973
	이용비율	46.9	-	8.2	6.8	5.4	-	32.7
용산구	아동수	1,737	80	244	841	584	29	593
	이용비율	42.3	1.9	5.9	20.5	14.2	0.7	14.4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성동구	아동수	3,810	-	107	915	830	-	214
	이용비율	64.8	-	1.8	15.6	14.1	-	3.6
광진구	아동수	2,484	-	-	2,257	636	29	93
	이용비율	45.2	-	-	41.0	11.6	0.5	1.7
동대문구	아동수	3,112	-	128	2,008	986	-	189
	이용비율	48.5	-	2.0	31.3	15.4	-	2.9
중랑구	아동수	3,310	-	228	3,298	874	21	146
	이용비율	42.0	-	2.9	41.9	11.1	0.3	1.9
성북구	아동수	3,734	85	666	1,794	1,065	41	167
	이용비율	49.4	1.1	8.8	23.8	14.1	0.5	2.2
강북구	아동수	2,246	48	61	2,793	268	37	51
	이용비율	40.8	0.9	1.1	50.7	4.9	0.7	0.9
도봉구	아동수	2,601	24	36	2,266	788	23	176
	이용비율	44.0	0.4	0.6	38.3	13.3	0.4	3.0
노원구	아동수	3,936	98	-	2,026	2,306	7	220
	이용비율	45.8	1.1	-	23.6	26.8	0.1	2.6
은평구	아동수	3,651	-	229	4,745	600	18	135
	이용비율	38.9	-	2.4	50.6	6.4	0.2	1.4
서대문구	아동수	2,798	-	65	1,654	565	18	376
	이용비율	51.1	-	1.2	30.2	10.3	0.3	6.9
마포구	아동수	3,932	-	132	1,358	828	130	645
	이용비율	56.0	-	1.9	19.3	11.8	1.9	9.2
양천구	아동수	3,938	-	39	2,493	1,535	-	286
	이용비율	47.5	-	0.5	30.1	18.5	-	3.4
강서구	아동수	4,519	160	251	4,072	2,003	56	728
	이용비율	38.3	1.4	2.1	34.5	17.0	0.5	6.2
구로구	아동수	4,479	210	258	2,740	1,531	54	311
	이용비율	46.7	2.2	2.7	28.6	16.0	0.6	3.2
금천구	아동수	2,281	171	411	1,720	384	-	205
	이용비율	44.1	3.3	7.9	33.3	7.4	-	4.0
영등포구	아동수	3,963	77	41	2,025	1,153	-	2,095
	이용비율	42.4	0.8	0.4	21.6	12.3	-	22.4
동작구	아동수	3,656	17	56	1,834	960	42	217
	이용비율	53.9	0.3	0.8	27.0	14.2	0.6	3.2
관악구	아동수	3,791	2	238	1,775	775	6	420
	이용비율	54.1	-	3.4	25.3	11.1	0.1	6.0
서초구	아동수	4,382	-	176	1,255	663	55	1,320
	이용비율	55.8	-	2.2	16.0	8.4	0.7	16.8
강남구	아동수	3,895	-	-	1,869	645	38	1,171
	이용비율	51.1	-	-	24.5	8.5	0.5	15.4
송파구	아동수	5,733	83	101	4,477	2,231	39	1,097
	이용비율	41.7	0.6	0.7	32.5	16.2	0.3	8.0
강동구	아동수	4,623	80	134	3,970	1,432	18	264
	이용비율	43.9	0.8	1.3	37.7	13.6	0.2	2.5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기본통계

전국 어린이집 수와 재원 영·유아 수는 '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출생아수가 급감한 '17년 이후 그 정도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9.12월, 보육통계 기준). 전년 대비 기관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수가 유치원의 수에 비해 감소하는 폭이 크다. '19년 어린이집 수의 감소율은 4.60%인 반면, 유치원의 감소율은 2.04%이고 '20년과 '21년 어린이집 수의 감소율은 각각 5.40%와 5.96%인 반면 유치원의 감소율은 1.49%와 0.52%이다.

〈표 2-23〉 전국 어린이집 수 및 재원 영·유아 수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개소, 명,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어린이집 수(개소)	43,742	42,517	41,084	40,238	39,171	37,371	35,352	33,246
전년 대비 증감률(%)		-2.80	-3.37	-2.06	-2.65	-4.60	-5.40	-5.96
영유아 수(명)	1,496,671	1,452,813	1,451,215	1,450,243	1,415,742	1,365,085	1,244,396	1,184,716
전년 대비 증감률(%)		-2.93	-0.11	-0.07	-2.38	-3.58	-8.84	-4.80

출처: 보건복지부(2022). 2021년 보육통계.

전국 유치원 수는 '14년부터 '17년까지 증가한 후, '1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재원 유아 수는 '14년부터 '16년까지 증가한 후, '1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년의 전년 대비 유아 수의 증감률을 살펴볼 때, 어린이집이 8.84% 감소, 유치원이 3.37% 감소로 어린이집의 감소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1년의 전년 대비 유아 수의 증감률은 어린이집이 4.80% 감소, 유치원이 4.89% 감소로 유사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2-24〉 전국 유치원 수 및 재원 유아 수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개소, 명,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유치원 수(개소)	8,826	8,930	8,987	9,029	9,021	8,837	8,705	8,660
전년 대비 증감률(%)		1.18	0.64	0.47	-0.09	-2.04	-1.49	-0.52
유아 수(명)	652,546	682,553	704,138	694,631	675,998	633,913	612,538	582,572
전년 대비 증감률(%)		4.60	3.16	-1.35	-2.68	-6.23	-3.37	-4.89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표 2-25〉 전국·서울 최근 5년간 유치원 폐원율

단위: 개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유치원수	9,021	8,837	8,705	8,660	8,562
	폐원수	143	302	278	160	188
	폐원율	1.6	3.4	3.2	1.8	2.2
서울	유치원수	876	830	795	787	780
	폐원수	26	57	58	26	19
	폐원율	3.0	6.9	7.3	3.3	2.4

주: 1) 폐원율(%) = $\frac{\text{폐원유치원수}}{\text{전체유치원수}} \times 100$

2) 조사기준일: 매년 4월 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서비스.

다. 서울시 보육 정책의 특성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그리고 관리동 어린이집의 전환 및 설치 지원을 논의해왔다. 사업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로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0개소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6〉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지원 정책

구분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권 등 이용률 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 확충(비강남권 최고 30억원 지원) - 기존시설이 많은 곳은 민간의 국공립 전환 유도,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신축 - 기존 낡은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친화적 시설개선 중점 추진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현황 사전 파악, 사업주체 등과 사전협의 등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에 따라 설치 추진 - (시·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 •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 국공립전환 우선 지원 - 국공립으로 전환 시 어린이집 개선비 지원

주: 연구진이 구성.

서울시 중구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영유아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료 외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기준으로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저녁급식비, 졸업

앨범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2-27〉 서울시 중구 학부모 부담금 지원 관련 정책

구분	내용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서울 중구,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관내 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가정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지원

주: 연구진이 제작.

출처: 보도자료 <http://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4390&mode=view&cid=1013036024>(검색일: 2022.11.21.)

라. 서울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통계 현황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수학급의 경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학급이 1,394개에서 5,29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28〉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자 유아 수의 변화 추이(2013~2022년)

단위: 개, 명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특수학급	5,291	4,444	3,866	3,422	3,058	2,763	2,504	2,039	1,675	1,394
일반학급	1,958	1,826	1,752	1,638	1,628	1,726	1,744	1,822	1,707	1,927
총유아수	7,249	6,270	5,618	5,060	4,686	4,489	4,248	3,861	3,382	3,321

출처: 교육부(202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p45.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3년 이후 3-5세 연령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학급과 비교하였을 때, 3-5세 연령 모두 특수학급에서의 증가 폭이 더 크다. 구체적으로 3세반은 2013년 239개에서 2022년 963개로 증가하였으며, 4세반은 2013년 460개에서 1,916개로 증가하였다. 5세반은 2013년 695개에서 2,412개로 3-5세반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 2-29〉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연령별 변화 추이(2013~2022년)

단위: 개, 명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특수 학급	3세	963	774	745	684	599	419	460	446	385	239
	4세	1,916	1,587	1,465	1,226	1,010	1,003	902	759	564	460
	5세	2,412	2,083	1,656	1,512	1,459	1,341	1,140	834	726	695

일반 학급	3세	206	231	187	206	162	172	180	263	385	202
	4세	710	585	644	516	467	545	543	561	564	595
	5세	1,042	1,010	921	916	999	1,009	1,021	938	726	1,130

출처: 교육부(202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유치원 내 총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을 기준으로 감소했던 수가 2021년과 2022년에서 급속하게 증가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학급수와 유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 수 또한 201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30〉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유아수의 변화 추이(2013~2022년)

단위: 개, 명, %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장애영아	359	369	439	532	582	549	656	742	680	578
특수교육 대상유아	8,248	7,197	6,536	5,989	5,630	5,437	5,186	4,744	4,219	4,190
총 영유아수	8,607 (8.3%)	7,566 (7.7%)	6,975 (7.3%)	6,521 (7%)	6,212 (6.8%)	5,986 (6.7%)	5,842 (6.6%)	5,486 (6.2%)	4,899 (5.6%)	4,768 (5.5%)
총 특수교육 대상자수	103,695	98,154	65,420	92,958	90,780	89,353	87,950	88,067	87,278	86,633

출처: 교육부(202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표 2-31〉 서울시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유아 실태 추이(2013~2022년)

단위: 개, 명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서울	1	128	116	103	80	70	72	57	53	45	40
	2	139	126	109	83	73	63	59	54	45	40
	3	538	421	390	337	313	271	260	238	204	176
총		7,249	6,270	5,618	5,060	4,686	4,489	4,248	3,861	3,382	3,321

주: 1: 학교 수; 2: 학급 수; 3: 학생 수.

출처: 교육부(202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전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수에서 서울시 유치원(특수학급)에 재원중인 유아의 수는

약 10%로 추산된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유아의 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에 있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는 2013년 1,394명에서 2022년 5,29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울시 유치원을 다니는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는 2013년 176명에서 2022년 538명으로 10년 새 3배 증가하였고, 2013년 40학급이었던 서울시 유치원 특수학급 수가 2022년 139학급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유치원을 다니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는 2013년 236명에서 2022년 89명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급수도 2013년 206학급에서 2022년 89학급으로 감소하였다.

〈표 2-32〉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 특수학급 배치의 변화(2013-2022)

연도	(전체) 특수학급 배치		(서울) 특수학급 배치		서울 전체 유아		전년도 대비 증감		(서울)연령별 특수학급 배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유아수	3세	4세	5세 이상
2022	1,437	5,291	139	538	9.7%	10.2%	▲13	▲117	103	183	252
2021	1,235	4,444	126	421	10.2%	9.5%	▲17	▲31	61	144	216
2020	1,086	3,866	109	390	10.0%	10.1%	▲26	▲53	78	138	174
2019	949	3,422	83	337	8.7%	9.8%	▲10	▲24	68	112	157
2018	853	3,058	73	313	8.6%	10.2%	▲10	▲42	53	103	157
2017	731	2,763	63	271	8.6%	9.8%	▲4	▲11	40	95	136
2016	640	2,504	59	260	9.2%	10.4%	▲5	▲22	42	99	119
2015	551	2,039	54	238	9.8%	11.7%	▲9	▲34	46	66	126
2014	464	1,675	45	204	9.7%	12.2%	▲5	▲28	43	72	89
2013	380	1,394	40	176	10.5%	12.6%	▲2	▲35	21	76	79

주: 서울의 연령별 특수학급 배치 유아 수는 공립 기준임.

〈표 2-33〉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 일반학급 배치의 변화(2013-2022)

연도	(전체) 일반학급 ¹⁾ 배치 유아수		(서울) 일반학급 배치 유아수		서울 전체 유아		전년도 대비 증감		(서울)연령별 특수학급 배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유아수	학급수	유아수	3세	4세	5세 이상
2022	1,720	1,958	28	28	5.2%	4.5%	▲7	▲4	4	12	12
2021	1,641	1,826	20	22	5.0%	4.7%	▼5	▼8	3	4	15
2020	1,585	1,752	32	36	5.5%	5.3%	▼14	▼20	2	13	21
2019	1,472	1,638	42	46	6.9%	6.9%	▼43	▼41	6	18	22
2018	1,448	1,628	41	45	9.9%	9.5%	▼30	▼37	9	15	21
2017	1,486	1,726	60	69	119.9%	11.1%	▼39	▼41	11	19	40
2016	1,543	1,744	81	88	13.8%	13.3%	▲37	▼10	16	29	43
2015	1,567	1,822	65	92	11.2%	13.3%	▼31	▲17	17	30	45
2014	1,543	1,707	65	73	13.4%	13.2%	▲1	▼11	20	23	30
2013	1,710	1,927	47	57	12.0%	12.2%	▲25	▲41	11	18	28

주: 서울의 연령별 특수학급 배치 유아 수는 공립 기준임.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의 경우 2013년 1,377개교에서 1,319개교로 감소하였으나, 특수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은 2013년 346개교에서 1,141로 3배 증가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시간제 특수학급의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직원의 심리가 반영되었거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지원확대, 교실환경 개선, 건강 관리 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34〉 특수교육대상유아 및 장애유아가 배치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 비교

연도	교육부 기준			소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2022	138	1,141	1,319	2,598
2021	135	1,001	1,298	2,434
2020	133	898	1,269	2,300
2019	127	814	1,353	2,294
2018	125	740	1,332	2,197
2017	122	714	1,343	2,179
2016	124	557	1,222	1,903
2015	118	480	1,221	1,819
2014	120	406	1,199	1,725
2013	119	346	1,377	1,738

출처: 교육부 (2022; 2021). 2022,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 서울시 유아교육정책 및 공사립유치원 운영 현황 분석

가. 서울 유아교육 정책: 2022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계획 분석

1)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며 크게 4가지의 개정 방향을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계 확립,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 교육 내용의 간략화,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존중과 배려의 '협력적 작은 실천'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가정 및 마을의 참여와 협력으로 인성교육 활성화, 체험 중심의 자연친화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그리고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가 있다.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란 일반학급에 전일제로 통합되어 있으며 특수학급 소속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의미함.

〈표 2-35〉 유아·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개정 방향	주요내용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성격 명시 • 다섯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문서체계 연계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놀이의 의미와 배움 이해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 강조 •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강조 •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
교육 내용의 간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경험해야 할 59개 내용으로 조정 • 연령 구분 없이 유아의 실제 경험 강조 • 누리과정 고시문 실행력 지원
교사의 자율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 • 흥미영역 운영 방식 자율화 • 5개 영역의 통합 방식 다양화 • 평가의 자율화

〈표 2-36〉 실천적 인성교육 운영

구분	주요내용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특색을 살린 체험·실천 중심의 단위 유치원 인성교육 계획 수립
존중과 배려의 '협력적 작은 실천'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유치원의 '협력적 작은 실천' 내용 선정 • '협력적 작은 실천'에 대한 가치 공유 및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가정 및 마을의 참여와 협력으로 인성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유치원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 가정과 마을간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동 전개
체험 중심의 자연친화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속에서 생명 존중과 자연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인성교육 강화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학습공동체, 직무 및 자율연수 등을 통한 인성교육 지도 역량 제고 • 교사 개인별 연간 1시간 이상 인성 관련 연수 이수 및 실적 관리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 바깥놀이터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원, 유아 숲 체험을 통해 자연친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유치원 텃밭, 화단, 화분 가꾸기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11개원이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37〉 생태전환교육 실시

	주요내용
유치원 생태전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유아 생태시민 역량 기초 함양 • 유치원 바깥놀이터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원, 유아 숲 체험을 통한 자연친화적 태도 형성 • 유치원 텃밭, 자투리 공간, 화단, 화분 가꾸기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속 생태 전환교육 실시 • 저탄소 친환경 유치원 문화 조성
2022 생태전환 교육 중점 유치원 운영	<p>목적: 유아의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한 지속적 생태 중심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p> <p>기간: 2022. 3. 1.~2023. 2. 28.</p> <p>대상: 공·사립유치원 11개원</p>

서울시교육청은 2019 개정 누리과정 방향에 부합하는 유치원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등원이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교사-유아·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의견 조사를 통해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피드백을 시행한다. 한편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추진단을 운영하여 우수 원격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표 2-38〉 2019 개정 누리과정 방향에 부합하는 유치원 원격수업 사전 계획 및 운영

	주요내용
원격수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원칙: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 •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 준비 • 운영방안: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학급 등) 등원이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 • 운영절차: 사전준비 ⇒ 실행 ⇒ 사후관리
원격수업 질제고 및 교사-유아·학부모 간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동체 의견 조사를 통한 유치원별 원격수업 운영 및 피드백 시행 • (가정 안내) 온라인 학급방 구축 접속 확인, 연락망 구축 등 가정 소통 체계 점검 및 원격수업 관련 사항(출결 및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부모 사전 안내 • (소통 강화) 원격수업 기간 동안 유·무선 및 실시간 쌍방향 소통 등 다양한 소통강화 방법 모색 추진(소통 횟수 강화 등)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교육추진단 운영을 통한 우수 원격수업 자료 개발 및 공유 • 자료는 교육부 i-누리 포털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탑재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함에 있어 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흥미와 놀이를 고려한 현장 학습 장소를 선정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을 포함하고, 원장 책임 하에 사전답사 실시로 시설 등 제반 사항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도록 한다.

〈표 2-39〉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계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교육계획 수립 시 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흥미와 놀이를 고려한 현장학습 장소 선정 • 현장체험학습(장소, 시기, 비용, 안전성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 •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유아, 교직원, 학부모 평가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내실화 제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 대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이동, 체험활동 등에서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포함 • 현장체험학습 차량 사전 안전점검 철저(체크리스트 및 차량 사전점검 서비스 활용) • 원장 책임 하에 사전답사 실시로 시설 등 제반 사항의 안전 확인
코로나 상황에 따른 현장체험 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단위 단체 활동은 지양하고, 학급·연령별 단위 활동 시에도 기본 방역조치를 이행 후 시행 권장 • 대면활동 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 • 외부강사 출입 시 유치원 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 실시 • (기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독서교육, 과학·정보화교육, 경제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역사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가정교육 및 0~2세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연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2) 방과 후 과정

서울시교육청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유아 발달에 적합한 활동 제공으로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하고 있다. 운영 형태는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종일제(사립)와 1일 13시간 운영하는 에듀케어(공·사립), 1일 15시간 운영하는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공·사립)이 있다.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시 방과 후 과정 및 돌봄 운영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며, 방과 후 과정은 놀이와 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조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양육 불안과 사교육 수요 심리를 이용한 특성화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있다.

〈표 2-40〉 방과 후 과정

	주요내용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발달에 적합한 활동 제공으로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 도모 •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방과 후 과정 운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제(사립):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 • 에듀케어(공·사립): 교육과정 포함 1일 13시간(07:00~20:00) 운영 •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공·사립): 교육과정 포함 1일 15시간(07:00~22:00) 운영 •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시 방과 후 과정 및 돌봄 운영 계획 반영 • 방과 후 과정 운영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이므로 안전으로 상정, 심의(자문) 절차 준수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발달 특성으로 고려한 놀이와 쉽 중심의 방과 후 과정 운영 • 교육과정 유아들에 비해 부족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경험 제공 및 충분한 유아·놀이 중심 바깥놀이 실시 • 장시간 유치원 생활을 하는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 및 개별 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휴식 제공 • 조기교육(학습, 인지 분야 등)에 대한 학부모의 양육 불안과 사교육 수요 심리를 이용한 특성화프로그램 지양 • 혼합연령 학급 운영 시 각 연령별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활동 제공 및 다른 연령대 유아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맞벌이 학부모에게 유치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결손 회복을 위해 유아 발달을 고려한 놀이·쉽 중심 방과 후 과정 모델을 운영한다.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8개원을 방과 후 놀이쉼터로 선정하여 유아 발달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대상 유치원 선정에 있어서 양질의 놀이와 쉽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특성화프로그램 미운영 유치원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유치원은 청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컨설팅 및 지원을 받고 이후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표 2-41〉 방과 후 놀이쉼터

	주요내용
추진 방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손 회복을 위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놀이·쉽 중심 방과 후 과정 모델 운영
방과 후 놀이쉼터	<p>목적: ‘놀이와 쉽’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결손 회복</p> <p>대상: 공·사립유치원 8개원</p>
추진 방침	유아의 건강한 발달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및 회복 도모 양질의 놀이와 쉽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대상 선정

	특성화프로그램 미운영 유치원 우선 선정
선정 및 운영 절차	사업 신청(유치원) ⇒ 현장 확인(교육지원청) ⇒ 서면심사·선정(본청) ⇒ 예산 지원(본청→교육지원청→유치원) ⇒ 운영(유치원) ⇒ 컨설팅 및 지원(본청 및 교육지원청) ⇒ 우수사례 공유(본청·교육지원청·유치원)

3) 교수학습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고경력 교사를 누리지원단으로, 교육경력 0~4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누리새내기로 정하여 놀이 워크숍을 실시하고 소통 중심의 수업 나눔을 실시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교직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표 2-42〉 누리지원단-누리새내기 맞춤형 수업 나눔

	주요내용
추진 방향	교사의 수업 나눔 기회를 통한 누리과정의 이해와 실천 지원 소통과 성장 중심의 맞춤형 수업 나눔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직 문화 확산
누리지원단 및 누리새내기	누리지원단(고경력 교사): 2017~2019 수업교수, 연구·시범유치원 참여 교원, 개정 누리과정 연수 강사풀·강사요원·컨설턴트, 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 연구대회 입상자,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교원, 학교(유치원)교육력 제고 입상자 등 누리새내기(저경력 교사): 교육경력 0~4년 미만의 교사
수업 나눔 방법	누리지원단, 누리새내기 모집 공고 누리지원단, 누리새내기 놀이 워크숍 실시 누리지원단-누리새내기 소통 중심의 수업 나눔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으로 교원들이 자발적·협력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교원학습공동체는 계획 수립-활동 진행-나눔(성찰과 공유) 단계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도모하고, 현장교육 기여도가 높은 연구 사례 발굴을 위하여 ‘유치원 수업방법 개선 연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밀접한 현장 실천 중심 평가를 통해 사례를 선정하고, 우수 연구 결과는 일반화함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발굴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그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고, 가산점 취득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한다.

〈표 2-43〉 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주요내용
교원학습공동체	유치원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하여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으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는 교원들의 자발적·협력적 학습공동체 학교(유치원) 안 교원학습공동체, 학교(유치원) 간 교원학습공동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교원들의 비전 공유 및 자발성, 동료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 교육활동 중심 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활동 진행: 공동연구, 공동실천, 나눔 일상화 및 지속 운영 나눔 (성찰과 공유): 활동결과 정리 및 평가 /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성과 나눔
------------	--

〈표 2-44〉 유치원수업방법개선연구대회

	주요내용
추진 방향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도모 현장교육 기여도가 높은 연구 사례 발굴을 통한 연구의식 고취 및 연구문화 확산
수업방법개선 연구대회 운영	연구대회 참여 희망 교사의 연구 계획서 심사를 통한 선정 교육과정과 밀접한 현장 실천 중심 평가 등급별 연구 점수 부여 우수 연구 결과의 일반화
현장교육중심 연구 사례 일반화	유치원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연구 문화 조성 현장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발굴 및 공유

〈표 2-45〉 학교(유치원) 교육력 제고

	주요내용
추진 방향	학교(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 연구 및 실천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산점 취득 방법의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
학교(유치원) 교육력 제고 운영	사업주관 부서별 공모를 통한 연구 교원(팀) 선정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연구 활동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연수 실시 과제 수행 점검 및 종합 평가 실시 연구 교원(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가산점 부여 우수 연구 결과의 일반화

서울시교육청은 유·보 이음교육을 운영하여 유아의 경험이 0~2세 보육과정 내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사례를 발굴한다. 공모 심사를 통해 유치원 1개원을 선정하여 유·보 이음교육을 시행하고, 중간 점검 및 교원 네트워크, 성과 보고회를 운영하며 결과 사례를 공유하도록 한다.

〈표 2-46〉 유·보 이음교육 운영

	주요내용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례 발굴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도모 통합적인 아동발달 접근에 기반하여 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추진하고 교육공동체의 연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유아의 전인발달 지원
2022 유·보 이음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의 경험이 0~2세 보육과정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사례 발굴

유·보 이음교육 운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심사를 통한 운영 유치원: 1개원 선정(교원 및 학부모 사전 안내) • 유·보 이음교육 운영 중간 점검 및 컨설팅 • 유·보 이음교육 교원 네트워크 운영 및 성과보고회 • 유·보 이음교육 운영 결과 사례 나눔 등
----------------	--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원 연수, 직급 및 경력에 따른 테마가 있는 연수, 교원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수 등이 있다.

〈표 2-47〉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주요내용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미래교육을 견인하고 촉진하는 교원 연수 운영 •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원 맞춤형 연수 운영
2019 개정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원 연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원 연수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연수 • 생태전환교육 및 유·초 연계교육 활성화 지원 연수 • 교원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연수 • 2020년~2021년 개발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 자료 활용 연수 • 연중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원 연수
직급 및 경력에 따른 테마가 있는 연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저경력 교사를 위한 자기 성장 지원 연수 • 고경력 교사를 위한 성찰·치유 지원 연수 • 관리자를 위한 소통·공감의 교육 행정 역량 강화 연수
교원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별(공·사립유치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운영 • 교원이 희망하는 강좌 개설, 소그룹 연수 운영 등

지역 내 유치원 간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 개방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례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도록 한다. 각 교육지원청 별로 공·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한다.

〈표 2-48〉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사업

	주요내용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유치원 간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 개방 및 협조체제 구축 •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나눔으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 교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사업별 중심유치원이 협력적으로 사업 운영 • 교육지원청별 공·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교육과정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 내용 구성

지역 네트워크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 인적·물적 자원 공유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지역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청별 운영
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2022. 1.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별 사업계획: 2022. 2.~3.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사업 운영 및 만족도 조사: 2022. 3.~12. 운영 결과 및 지원금 정산 제출: 2022. 1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과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는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발·보급하는 2021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개발·보급하는 유아예술감성교육 프로그램,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등의 장학자료가 있으며, 유관 기관의 자료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표 2-49〉 장학자료 개발·보급

	주요내용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발·보급 장학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유치원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 지원 내용으로 구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개발·보급 장학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지원을 위한 유아예술감성교육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적 유아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유관 기관 자료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상작

4) 교육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적 작성·관리 표준화를 통해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각 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 관리 및 학적 관리를 시행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고, 부모 행복교실 및 미래형 학부모 온·오프라인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표 2-50〉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적 관리,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교육

	주요내용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생활기록부 및 학적 작성·관리 표준화를 통한 공정성·신뢰성 제고 생활기록부 관리: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2020-315호), 2020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함. 학적관리: 유아교육법 제14조·제17조(법률 18193호, 2021.9.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2조·제14조·제15조(대통령령 31880호, 2021.7.13.), 2020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2020-315호, 2020.8.27.)에 근거함.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 개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 연수 지원: 학부모 대상 홍보물 제작 및 보급 연수 추진, 부모행복교실 운영, 미래형 학부모 온·오프라인 놀이교실 운영 학부모와의 공감·소통 기회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부모 대상 유아교육 관련 웹툰 및 영상 활용 ② TV 공익광고 ‘유치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의 하루’, 유아교육 홍보영상 활용 ③ 교육부 제작 놀이 중심 교육 가치를 집중 조명한 TV 기획 프로그램 활용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교육과정 실천
부모 행복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방향: 놀이워크숍을 통한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유아·놀이 중심 문화 확산 부모 행복교실 운영 지원(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부모 행복교실 프로그램 운영 기획, 부모 행복교실 프로그램 자료 제작 및 보급, 부모 행복교실 강사 인력 풀 구성 및 사전 연수

특수교육 운영 지원에 있어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으로 더공감교실 시범학교 운영,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교원 지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 기관 운영 등이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치료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장애 특성에 맞는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다.

〈표 2-51〉 특수교육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주요내용
특수교육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방향: 교육과정 중심의 통합교육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편성·운영 특수교육대상 유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현장중심의 통합교육 활성화: 더공감교실 시범학교 운영,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학교교육력 제고(통합교육) 연구교원(팀) 지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p>거점 기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을 통한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조성 • 교원 대상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연수 실시 • 특수학급 교육활동 지원 예산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 운영: 공립 유치원 29개원 29학급 설치·운영, 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 운영 예산 지원(학급당 3,500천원)
<p>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방향: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지원 확대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1개 센터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치료지원: 굳센카드 이용(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비 지원) ②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요원) 지원 ③ 장애 특성에 맞는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④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과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경찰청과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더봄학생 지원 강화 • 장애유아 인권교육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여건 고려한 장애유형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② 시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중부·강서양천 ③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동부·남부 ④ 지체중복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북부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두런 두런」 프로그램,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교육복지 유아지원 세부 사업에는 발달지원 프로그램, 집중지원 유아 개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전시성 행사 폐지 및 축소 등을 통해 학교업무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정책 정비 및 정책 총량제의 연계성 강화 및 교육지원팀 지원, 공문서 감축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업무 총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52〉 유치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 및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주요내용
유치원 교육복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 유아지원 운영 • 「두런두런」 프로그램 지원 • 유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공·사립유치원 중 취약계층 유아가 있는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법정저소득가정 유아가 3명 이상인 유치원에 한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지정 • 교육복지 유아지원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달지원 프로그램(사회성발달, 언어인지발달, 예술심리지원 등) ② 집중지원유아 개인성장지원 프로그램(개별 가족상담, 개별 놀이, 미술 상담 치료 등) ③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체험 등) ④ 지역특화프로그램(유·초 연계 프로그램,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 정착으로 유치원교육력 및 교육공동체 만족도 제고 • [유치원] 학교업무정상화 내실화 및 발전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 ② 비치 장부·위원회 및 위임전결규정 정비 ③ 전시성 행사 폐지 및 축소 • [교육(지원)청]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학교업무 총량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정책 정비 및 정책 총량제의 연계성 강화 ②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팀 지원 ③ 공문서 감축 지속 추진 ④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및 목적사업 일괄 안내제를 통한 학교 대상 사업 추진 방식 개선 ⑤ 학교자율 종합감사 운영(공립유치원 대상) ⑥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⑦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시 유아교육 연수·연구 지원의 내용으로는 e-편한 사이버연수 운영,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원 성장을 위한 「소·나·무」스터디카페 운영 등이 있다. 아울러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캠퍼스 운영,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 체험교육 및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언어놀이, 목공놀이, 건강놀이, 사회놀이, 모험놀이 등의 유아·놀이중심 체험교육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문화·예술 체험교육, 가족 간 유대를 높이는 가족 체험 교육이 있다.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 과정 또한 운영 중인데, 교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수요자 중심의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 2-53〉 유아교육 연수·연구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원 연수 안내

	주요내용
유아교육 연수·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방향: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로 수업혁신 지원 • 내실 있는 교육과정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연수 운영 • 시·공간을 초월한 Click! e-편한 사이버 연수 운영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교원의 소통·나눔·무한성장을 지원하는 「소·나·무」 스터디카페 운영
유아교육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캠퍼스 운영 • 소중한 아이! 특별한 만남!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교직의 전문성 제고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유아 체험 교육 및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유아·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용: 생각쑹쑹 언어놀이, 푹푹푹푹 목공놀이, 몸이튼튼 건강놀이, 우리함께 사회놀이, 흥미진진 모험놀이, 쿵쑹쿵쑹 음악놀이, 알콩달콩 숲속놀이(자연놀이), 알쏭달쏭 과학놀이, 상상가득 쌓기놀이, 향기술술 나무놀이 ② 대상: 서울특별시 공·사립유치원 및 유아특수학교 ③ 운영: 학급별 1일 1개 놀이 체험 ④ 기타: 체험교육을 위한 차량 지원(1일 2대) •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문화·예술 체험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용: 특별체험(겨울체험, 과학체험, 여름체험, 민속놀이), 문화예술체험(흥겨운 우리 예술, 샌드아트 놀이), 문화예술공연(일반공연, 특별공연), 찾아가는 체험교육(찾아가는 안전교육, 찾아가는 예술교육) ② 대상: 서울특별시 공·사립유치원, 유아특수학교, 아동양육시설 •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가족 체험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용: 토요일가족체험(매월 2회), 가족특별체험(겨울, 어린이날, 여름, 민속놀이) ② 대상: 서울특별시 거주 만 3~5세 유아와 가족 •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 및 행사용품 대여 운영 •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유아체험교육 대응 방안
교원 연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 과정 운영 • 유치원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과정 운영 • 유치원 교원의 행정 능력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과정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과정 운영

5) 안전

서울시는 유치원 안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유치원별 연간 유치원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치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 역할 분담, 응급처리 절차 과정 계획 수립, 비상연락체계 수립 등 유치원 내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유치원 내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는 아래 표 내용과 같다. 더불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아·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

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표 2-54〉 유치원 안전계획

	주요내용
유치원별 연간 유치원 안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9조, 2021년도 학교안전계획 유치원장은 ‘유치원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
유치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유치원 내 대응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상황 발생 시 교직원 역할 분담과 응급처리 절차 과정 계획 수립 유관기관 및 학부모 비상연락체계 수립 재난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 및 처리 절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유치원 재난·안전사고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대응 연락체계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re> graph TD A[관리자(원장·원감)] --> B[관할교육지원청] B --> C[본청 해당부서] D[최종 목격자 해당 교사] --> E[학부모에서 연락] F[응급처치 및 119 연락] --> G[응급 의료기관 후송] </pr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구호활동(응급처치, 119전화) 후 교사의 병원 동행 사고 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 피해보상의 청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유아·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로 공제급여 청구 절차: 사고발생 ⇒ 사고통지(공제급여관리시스템) ⇒ 치료 ⇒ 청구 ⇒ 심사 및 지급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주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 운영 내용: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아·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운영 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 심사(공제회) ⇒ 지원대상자 확정(교육청) ⇒ 결정 및 통보(공제회) ⇒ 비용청구 ⇒ 지급여부 심사 및 지급(공제회)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교직원 안전역량 강화 연수 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관리

서울시는 유아 안전교육에 대하여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안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으로는 생활안전교육 13시간, 교통안전교육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10시간, 재난안전교육 6시간, 직업안전교육 2시간, 응급처치교육 2시간이 있고, 안전교육 실적 보고는 매년 8월, 12월에 실시한다. 화재대피훈련의 경우 소방서와 합동훈련 1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유치원장은 매년 ‘유치원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으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 교육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교통안전 교육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표 2-55〉 유아 안전교육

	주요내용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따른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13시간), 교통안전교육(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10시간), 재난안전교육(6시간), 직업안전교육(2시간), 응급처치교육(2시간) 안전교육 실적 보고: 매년 8월, 12월 화재대피훈련: 연 2회 이상(소방서와 합동훈련 1회 포함) 민방공 훈련 강화 유치원장은 ‘유치원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
「아동복지법」에 따른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교통안전 교육: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횟수: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실적 보고: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서울시는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경우 실습 2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4시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2-56〉 교직원 안전교육

구분	주요내용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3년마다(2021~2023년) 15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서울시는 아동학대·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기본원칙을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직원 연수와 인권교육 강화, 신고 의무, 범죄 전력 조회 의무를 통해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유치원 유아의 성행동 수준별 관리 대응체계를 두고, 유치원 내 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해당 교사는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각 반 교사에게 전달 교육한다. 유아 대상 성교육은 8시간 이상 내실화 운영이 이루어진다.

〈표 2-57〉 아동학대·성범죄 예방

	주요내용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영유아 건강·안전 확인 및 결석 아동의 결석 사유 확인 • (무단결석)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전화 연락 또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소재 파악 • (퇴학) 명확한 사유 없이 퇴학 신청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교육 및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직원 연수 의무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문화 조성 및 인권교육 강화 • 아동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의무
유아의 성행동 수준별 관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동 수준별 관리 대응 체계 • 유치원의 역할: 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담당 교사는 매년 관련 교육 이수 및 각 반 교사에게 전달 교육 실시, 유아의 발달 단계 및 누리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유아 대상 성교육 내실화 운영(8시간 이상)

서울시는 유아 및 교직원 건강관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경우 유치원장은 기관 내 유아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건강검진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교직원의 경우 유치원은 교직원 채용 시 채용신체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교직원 대상

결핵검진 및 잠복 결핵검진 및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유치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 보건소로 이어지는 유치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체계를 따른다. 가정과의 연계 뿐 아니라 유아 감염병 예방 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을 지도하여 감염병을 예방 관리한다.

〈표 2-58〉 건강관리

	주요내용
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장은 해당 기관 유아 대상으로 1년(1.1.~12.31.)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건강검진 조회 시스템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적극 활용
교직원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교직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징구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실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격리조치 등 원내 확산방지 유치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고체계 유지(유치원 → 교육지원청, 보건소)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유아 감염병 예방 수칙(손 씻기, 기침예절 등) 지도

서울시는 유치원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실내외 시설 및 설비 점검(매월 4일, 6개월), 전기 및 가스 점검(1년), 재해 대비 시설(분기별), 냉·난방용품 안전관리(수시점검), 통학버스(수시·정기점검), 어린이놀이터 시설 점검(월 1회 점검·2년 정기점검), 정기방역(매월), 응급처치(수시점검), 안전 관리 인적 조직 구성(수시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2년 4시간), 유아 입학 시 관련 보험 가입, 유아·학부모·교직원 대상 수시 안전교육 실시, 매월 4일 유치원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표 2-59〉 안전점검

	주요내용
연간 안전점검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외 시설 및 설비 점검: 매월 4일/6개월 전기 및 가스 점검: 1년 재해 대비 시설: 분기별 냉·난방용품 안전관리: 수시점검 통학버스: 수시/정기점검 어린이놀이터 시설 점검: 월 1회 점검/2년 정기점검 정기방역: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수시점검 • 안전 관리 인적 조직 구성: 수시점검 •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2년에 4시간 • 관련 보험 가입: 유아 입학 시 • 안전교육 실시(유아/학부모/교직원): 수시교육 • 유치원별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월 4일
--	--

서울시는 유치원 시설 및 환경 관리 기준을 두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놀이시설 안전관리, 석면 안전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실내·외 환경 관리, 환경위생 및 청결 유지, 교재·교구 점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이 있다. 그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 방안으로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비치해야 하며, 미세먼지 ‘나쁨’ 단계 시 공기정화설비를 가동하여야 한다.

〈표 2-60〉 시설 및 환경 관리

	주요내용
놀이시설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 안전점검 • 안전진단
석면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조사: 건축물 사용승인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 실시 • 석면관리 철저: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이수 철저,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보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활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열람 등의 청구 시 절차 준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철저 등
실내·외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환경위생 및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공기질 점검 •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유해중금속, 상하수도·화장실 설치 및 관리,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식기·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적정 운영·관리
교재·교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가 유아 연령대에 적절하고 KC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확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시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 •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비치 • 미세먼지 ‘나쁨’ 단계 시 공기정화설비 가동 실시

서울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과 유아·학부

모 유치원 모든 구성원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치원이 스스로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강화된 지표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며, 유치원별 예산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표 2-61〉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 지원

	주요내용
목적	건강·안전 분야를 포함한 단위유치원의 전반적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유아교육 안심환경 문화 조성 추진 방침: 협력적 관계(교원과 유아·학부모 유치원 모든 구성원 간 협력), 신뢰도 제고(유치원이 스스로 안전문화 조성하도록 강화된 지표 제공), 맞춤형 지원(유치원별 예산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선정 및 운영 절차	신청 ⇒ 선정 ⇒ 컨설팅 운영 ⇒ 재정 지원 ⇒ 컨설팅 운영 ⇒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 환류

서울시는 유치원 통학버스 관리를 위하여 기준을 두고 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의 이수를 지도한다. 통학버스 운행에 있어서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 대한 매뉴얼을 두고,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어린이 하차 시 확인 의무가 있다.

〈표 2-62〉 통학버스 관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 안전교육 강화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 지도 • 통학버스 안전운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매뉴얼 참고 • 통학버스 신고 의무 •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 보호자 미동승한 채 통학버스 운행 중 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제재 조치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의 내용 및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10만원, 사립유치원 28만원이고, 방과 후 과정비 지원 금액의 경우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이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20일 전후 유치원으로 입금된다.

〈표 2-63〉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지원 내용 및 범위	주요내용			
	구분	연령	지원 금액	
			공립	사립
유아학비	만 5세	100,000	280,000	
	만 4세			
	만 3세			
방과 후 과정비	만 3~5세	50,000	70,000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단,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20일 전후 유치원으로 입금 재정여건 및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 지원(행복 e음 → e-유치원시스템),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기 등은 변경 가능

서울시는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86천원(방과 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334천 원(방과 후 과정비 포함)이다.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유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유아학비를 제외한 월지원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표 2-64〉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유치원: 월 최대 86천원(방과 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월 최대 334천원(방과 후 과정비 포함)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유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방과 후 과정비 제외) 지원 대상이므로, 유아학비를 제외한 월 지원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 교육지원청 ⇒ 본청 ⇒ 교육지원청

서울시는 친환경 유치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시행령 제9조·제10조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원은 공·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학기 중 수업일의 점심 1식을 지원한다.

〈표 2-65〉 친환경 유치원급식 실시

	주요내용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급식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의 내실화 도모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강화
친환경 유치원 급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학교급식법 제8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 전체 지원범위: 학기 중 수업일의 점심 1식(간식 및 방학 중 급식은 지원 제외)
급식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각 지침에 따름
친환경 유치원 급식비 지원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식비 소요액 신청 급식비 정산 및 반납

서울시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법인) 소유의 건물을 이용해야 한다. 운영기간은 3~5년으로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직전 2개 학년도 정원 대비 현원이 100% 미만인 유치원이 신청할 수 있다.

〈표 2-66〉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주요내용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 경감 및 공공성 증대 사립유치원의 건학이념 및 운영체제를 최대한 존중하고, 민주적인 협의 절차에 근거한 사업 추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며, 법인 이사회 임원의 일부를 교육청과 협의한 임원으로 선임하여 유치원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의 혁신 운영 모델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절차: 선정계획 수립·시행 ⇒ 모집공고 및 접수(설명회 개최) ⇒ 신청서류 검토 및 유치원 실사 ⇒ 지원위원회 심사(순위결정) ⇒ 공영형유치원 출범 신청자격: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 소유·이용 형태: 자가(법인) 소유 운영기간: 3~5년(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 유아 수: 직전 2개 학년도 정원 대비 현원이 100% 미만인 유치원 선정방법: 공고 실시 후 신청을 받아 제반 여건 검토 후 공영형유치원지원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교육청-유치원 간 업무협력 약정 체결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 분야별 컨설팅 및 평가 실시 법인 운영 공영형유치원지원위원회 기타: 공영형유치원과 교육청간 업무 협력약정을 통해 지원 범위 및 규모 결정

나. 유치원 시설 현황

전국 유치원 노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30-40년 경과한 유치원의 경우, 노후 기관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노후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한 유치원은 252개이고, 40년 이상 경과한 유치원은 77개²⁾이었다. 이는 광역시 중에서는 다소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 분석

서울시 유치원 교육 발전 방안으로 원아모집 개선 방안과 적정 학급규모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먼저, 서울시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와 기관 모두 낮은 편이며, 사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 지원 서류, 추천 등의 과중한 업무를, 사립유치원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인한 높은 이탈 비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문무경 외, 2013). 교사 당 학생 수 과다 및 업무 과정은 놀이중심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오정란 외, 2016).

학급 규모가 크고,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급 정원의 적절성에 대하여 학부모보다 기관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다. 3-5세 연령별로 모두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1:15를 초과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 밝혀졌다(문무경 외, 2013).

병설유치원에는 별도의 행정실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담당자와의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 회계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곽진규 외, 2020).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에 운영되던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인수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형태로, 기존 사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즉 협소한 교실 면적, 위생 공간이나 조리 및 급식시설 설치 미흡, 관리 및 지원 공간 부족, 놀이터 및 주차 공간 미확보, 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설비의 활용 등이 공립 전환 이후에도 온전히 해소되지 않고 현안으로 남을 수 있다(김현자 외, 2021).

초저출생시대에 균형 있는 유치원 수급조절과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전체유치원 수(정원)를 유지 또는 감소시키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학급당 정원을 줄여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이흥영 외, 2019). 구체적으로 매입형 공립유치원의 확대, 신규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의 억제,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행·재정적 대책 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이흥영 외, 2019). 원아모집이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컨설팅장학 지원단이 구성되어 운영되

2)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검색일: 2022.06.13.)

는 사례도 있다(전라북도교육청, 2014).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속 유치원의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 교원 1인당 원아 수 축소와 유아교사 공급체제 검토, 그리고 유치원 증설이 언급되었다(박종렬 외, 2004).

서울시 유치원 원아 배치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안혜준 외, 2020)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대비 서울시의 공립유치원 설치 비율은 17개의 시·도교육청 중 16위로 낮다. 따라서 공립유치원의 취원을 향상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가정원의 확대를 위한 공립유치원 설치가 필요하다. 공립유치원의 학급 편성 기준에 근거한다면, 만3세, 만4세, 만5세 순으로 학급 수가 많아야 하나, 실제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만5세, 만4세, 만3세 순으로 많다. 특히 단설유치원에 비해 병설유치원의 만3세 학급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만3세 학급은 유아를 공립유치원으로 유입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되므로, 연령별 학급의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유지가 필요하다.

단설유치원의 50%는 최근 10년 이내에 설립, 병설유치원의 30%는 40년 전에 설립되었다. 유치원의 건축년도는 학부모의 기관선정 요인 중 물리적인 측면 및 안전성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공립유치원의 주기적인 리모델링과 건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공립유치원에서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뿐 아니라 다른 학교급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약 75%가 201일 이상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수업일수 요인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기피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표 2-67〉 선행연구 고찰

연구자	분류	내용
문무경 외 (2013)	유치원 공교육 확대에 따른 유치원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입학지원 시 학부모는 지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 대상 유치원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학급 정원의 적절성에 대하여 학부모보다 기관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
곽진규 외 (2020)	소규모학교 행정실의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유치원은 별도의 행정실이 없음. 별도의 회계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음.
김현자 외 (2021)	유치원 설립 및 유형 다양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현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매입형 유치원 운영에 있어,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 단계에서

연구자	분류	내용
		부터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수립되어야 함.
이흥영 외 (2019)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에 공립유치원을 포함해야 함. • 「도시택지개발지구 공립유치원 정원 조정 범위 지침」의 재정비가 필요함. • 사립유치원 조절, 관리를 위해서는 설립·인가 조건 강화, 설립·경영자의 자격요건 강화, 폐원 관련 행·재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 • 매입형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에 따른 매뉴얼 보급이 필요함.
박종렬 외 (2004)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육체제 전망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 교원 1인당 유아수 축소와 유아교사 공급체제 검토가 필요함.
오정란 외 (2016)	2014 유치원 맞춤형 컨설팅 장학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 지원시스템 구축,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원아모집이 어려운 유치원에 대한 종합컨설팅 지원 • 현장의 새로운 변화 유도 및 유치원 교육 위상 제고 • 유치원 운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 해결 방안 모색 장치 제공 및 자발적 해결 역량 강화
전라북도교육청 (2014)	전북 공립유치원 늘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업무과다로 효율적 교육운영이 어려움. • 단일학급 유치원이나 소규모유치원은 동료교사가 없거나 적어 소통과 협력이 어려움. • 획일적 수업활동의 문제, 환경 여건의 문제 등
안혜준 외 (2020)	서울시 유치원 원아배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유치원의 수는 236개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나(17개 시·도 중 9위) 비율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공립 유치원 충원율 향상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증설이 요구됨. • 공립유치원의 학급 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학급 당 유아의 인원은 만 3세 학급이 16명, 만 4세 학급이 22명, 만 5세 학급이 26명이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연령별 학급 수는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순이어야 함. 실제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만 5세 > 만 4세 > 만 3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단설유치원에 비해 병설유치원의 만 3세 학급 수가 부족한 실정임. • 유치원의 건축년도는 학부모의 기관선정 요인 중 물리적인 측면 및 안전성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공립유치원의 주기적인 리모델링과 건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 •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임. 공립유치원에서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뿐 아니라 다른 학교급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부적합함.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약 75%가 201일 이상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공립유치원의 수업일수 요인으

연구자	분류	내용
		<p>로 인해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기피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립 모두 1이 넘는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은 100%에 미치지 못함.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과정반의 모집경쟁률에 비해 방과 후 과정반의 모집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과정반에 입학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방과 후 과정 반에 입학하지 못해 유치원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박창현 외 (2018)	<p>유아 관련 지원사업</p> <p>유아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p> <p>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지원사업) 교원연수, 교육연구, 교단지원 (학부모지원사업) 학부모연구, 유아교육정보 및 양육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 및 영역 관련 프로그램과 교수·학습자료, 사이버 연수 콘텐츠, 교사지원 콘텐츠, 발전방안 학술연구를 10년에 걸쳐 개발·보급하였음. (단체영역 체험교육)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유아특수학교(급), 양육보호시설 등의 기관 단체 유아들에게 누리과정 중심의 10개 영역(언어/조형/음률/쌓기/과학탐구/자연탐구/사회·문화/건강·안전/목공/실외영역)에 대한 체험교육을 제공함. (문화·예술 체험교육) 유아의 예술적 감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오감, 감성, 창의적 사고력을 자극, 촉진하는 체험 활동을 제공함. (가족 체험교육) 가족 체험교육은 서울시 거주 만3~5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주: 박창현, 김근진, 최윤경 (2018). 2018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재구성함.

- 출처: 1) 문무경, 김은설, 이세원, 신상인, 김애순, 김민숙, 손혜진 (2013). 유치원 공교육 확대에 따른 유치원 발전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2) 락진규, 김혜정, 김기선, 김인호, 고시식, 서현주, 김정순, 장두석, 이길환 (2020). 2019 현장연구 최종보고서(소규모 학교 행정실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3) 김현자, 우수경, 이선혜, 이학선 (2021).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유형 다양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 4) 이흥영, 김진환, 김병준 (2019).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5) 박종렬, 이종재, 강성국, 김왕준, 권현정 (2004).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육체제 전망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6) 전라북도교육청 (2014). 2014 유치원 맞춤형 컨설팅 장학 기본계획.
- 7) 오정란, 이가영, 이지은 (2016). 전북 공립유치원 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8) 안혜준, 정우영, 김희영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원아배치 마스터플랜(개선방안).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9) 박창현, 김근진, 최윤경 (2018). 2018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 육아정책연구소.

Ⅲ. 학령인구감소대응 서울 공사립 유치원 현장 의견 분석

1. FGI 분석 결과

가. 공립유치원의 요구 및 의견

1)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한 인식

저출생으로 인하여 학령인구의 감소와 관련하여 공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의 인식을 유치원 운영, 교육과정의 인식, 유아교육과 관련한 정책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가) 유치원 운영

(1) 원아모집의 어려움

공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의 대한 체감과 관련하여 원아모집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원아모집 기간이 되면 입학관련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정작 입학할 하는 원아들이 작년과 비슷한 결과로 인하여 저출생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 반에 10명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학령인구가 줄어 준다는 신호탄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매입형 유치원을 만들게 된 후 2020년도에 저희 유치원이 생긴 거거든요. 처음 받은 인원이 123명 정원에 47명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90명 정도까지 현원이 늘어났어요. (중략) 그 2021년에 70~80명 모집이 되었는데 그 정도로만 원아모집이 안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작년보다 일단 한 반의 10명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022. 10. 11. 매입형 단설유치원 원장 A)

택지개발 지구에 신설된 유치원의 경우와 달리, 근처의 신설 병설과 단설유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현재는 원아모집이 가능하지만 영유아들이 성장한 후에는 출생률과 더불어 인구이동의 감소로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유치원은 택지 개발 지구에 신설된 유치원이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대한 특별 공급으로 124명 정원에 103명으로 개원을 했어요. (중략) 강남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면서 단설 유치원이 강남에 되게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유치원도 원아 모집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고 나니까 동네에 애가 없는 거죠. 유입 인구가 없고 변동이 없고 또 지금은 인구 감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아모집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2) 교직원 급여와 인력의 부족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직원의 급여와 인력지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실 공립은 사립보다 공무원이니까 자기 밥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나 발령 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돈을 줄 때는 애들 머릿수만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아 모집은 안 되는데 교원은 그대로이니까 아이들 머릿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지원한다면 교원 숫자랑 아이들 숫자에 이렇게 비례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교육 활동에 투자되는 돈이 점점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사실 좀 했었어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원의 수는 변하지 않다 보니 유아의 수의 따라 지원되는 교육재정에서 교육활동의 투자되는 비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기본적으로 아이들 수가 줄기 때문에 내년은 더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그 유치원은 원감선생님께서 행정업무를 다 맡아서 하세요. 아이가 들어오고 빠지고 그러면 그 아이의 돈 계산이며 특기 강사 관리며 이런 것을 다 원감선생님께서 하시는데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행정업무 담당을 일반 교사가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2. 9. 25. 단설유치원 교사 B)

(3) 시설 지원의 부족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교육재정의 감소는 유치원의 시설 개설 및 보수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병설 유치원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예쁘게 투자 받아도 잘 하거든요. 그러나 시설 지원이 그 다음부터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원아의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개선을 하고자 했을 때 할 수 있는 시기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너무너무 처음하고 너무 달라져 있는 데가 있어요.

(2022. 10. 11. 매입형 단설유치원 원장 A)

시설의 개설 및 보수를 하고 싶어도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립유치원의 시설 개설 및 보수가 에듀케어의 시작으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시설 관련한 지원은 없는 상태였다. 유치원 운영비를 절약하여 시설의 개설과 보수를 진행하고 싶어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국가 지원금의 축소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비정기적으로라도 시설 지원의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시설의 보수 및 개설을 위한 지원이 현재는 1년에 초등학교와 나눠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중략) 에듀케어가 생길 때 처음으로 지원금이 2천만 원 정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중략) 비정기적이든지 어떤 시기별로 좀 순서를 좀 매기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4) 공립 수요조사의 문제: 병설 유치원의 증설

매입형 단설 유치원의 개원을 하였지만 유치원 근처에 병설 유치원이 개원을 하면서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을 설립을 할 때 학령인구의 수와 주변의 유치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한 계획된 수급과 관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우리 유치원이 생겼을 때 저희 한 정거장 사이에 병설 유치원이 있어요. (중략) 계획적인 수급 관리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입학 연령하고 입학 숫자랑 이거를 좀 보고서 개원을 해야 하는데 과연 계획적인 수급이 되는 것 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의문점이긴 해요.

(2022. 10. 11. 매입형 단설유치원 원장 A)

2) 유치원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가)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돌봄과 특성화)

(1) 특색과 다양성 없는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치원마다 특색 있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었지만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유치원의 특색이 사라졌으며,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 유아중심이 강조와 함께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교사의 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교사의 자율성의 따른 교육과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놀이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은 교사의 자율성 부분에서 교사 개별적인 목적들이 다 다르다 보니 유치원의 공동의 교육목표를 세우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학비 지원이 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중략) 누리과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강제시켜서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조합의 교육과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2022. 10. 11. 매입형 단설유치원 원장 A)

사실 누리과정이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율성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중략) 누리과정이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됐죠. (중략) 처음에 신규 교사가 돼서 놀이 과정을 12년 차 운영했으면 그 교사들이 모두 다 중간급인 부장 교사 내지는 이런 교사들인데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하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초반기에 혼란스러워했고 지금은 그 혼란기가 좀 잦아들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각자 정리하고 있어요.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 특색의 특색이 뭘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2) 유-초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 역시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중심이나 초등학교는 학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다 보니 초등과의 연계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유초연계를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의 재편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누리과정이 생기고부터 약간 유, 초, 중등 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 개정 내용과 유치원이 따로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략) 초등 저학년하고 이제 교육 철학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아기 교육은 놀이를 중심으로 놀이를 통해 배우는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8살 된다고 해서 학습 중심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그런 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잘 논의해가지고 점차 바꿔 나갈 필요가 있어요.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3) 방과 후 특성화

공립유치원의 원장들은 공립유치원의 방과 후 특성화 교육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학부모의 요구이기에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을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유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요구로 특성화를 하지만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교육과정보다는 특성화 수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4, 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모든 아이들도 돈을 안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치원에 하나둘씩 공립 유치원의 특성화가 들어왔어요. (중략) 지금은 유치원에서 뭘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어요. 특성화는 뭘 할 건지 딱 이거예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또한 공립은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사립 유치원과 다르게 제약이 있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특성화 교육과 관련한 허용심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사립유치원에 가면 거기에 다니는 엄마들은 '비싼 만큼 무언가 해' 이런 욕구들이 해소가 되니 공립 유치원 가면 '거기는 좀 싸'하며, (중략) 완벽하게 양분화 되어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있는 사람으로서 혜택은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할 수 있다.'는 허용심도 같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2. 10. 11. 매입형 단설유치원 원장 A)

그러나 공립유치원에 특성화의 자율성을 주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즉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수용은 분명 필요하지만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 준다 하여도 같은 고민은 계속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특성화 하게 되고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뺨 터져가지고 다시 또 특성화 없어졌다가 반복되었어요. (중략) 부모들에게 100개를 모두 줘도 100개를 주고 나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이 고민은 그 100개의 서비스를 줘도 다시 돌아오는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 10. 11. 매입형 단설유치원 원장 A)

또한 특성화 교육의 실시로 인하여 학부모의 요구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안에서 특성화 교육으로 영어교육을 원하였으며, 엄마들의 요구대로 영어교육을 진행하였지만 더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였다. 교사들은 유아기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학부모의 요구이기에 어쩔 수 없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어머님들이 요구가 되게 분명하셨어요. 뭐냐면 '나는 영어 유치원을 안 가는 대신에 이 유치원에서 영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이제 원장님이 그러면 영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중략) 그러나 아이들이 왔느냐?, 아니에요. 엄마들은 '아니 나 여기 만족을 못 하겠어 한 시간도 아니고 지금이 몇 분 가지고 내가 영어를 만족하지 않아'라는 이유로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를 선택했던 애들이 학원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2022. 9. 25. 단설유치원 교사 B)

학부모의 요구로 영어 수업을 하지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는 학부모들로 안타까워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기의 영어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중략) 유치원에서 발달상 적합하지 않고, 아이가 오히려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지만 학부모들은 듣지 않아요.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3) 해결방안

가) 인구감소의 대한 적응 방안

인구감소의 대한 공립유치원의 적응방안으로 단설유치원의 확대, 유치원 시설의 보완 및 확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1) 단설유치원의 확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계획적이지 못한 병설유치원의 증설은 기존의 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신설된 병설유치원 역시 원아모집이 되지 않게 된다. 이는 유치원 운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원아모집의 과열이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병설유치원의 증설보다는 병설의 통폐합을 통한 단설유치원의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치원도 다 병설 체제로 나아가기보다는 단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단설을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조직 문화라든가 그런 좀 수직적인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2) 유치원 시설의 보완 및 확충

유치원 시설 역시 직장어린이집처럼 시설의 보완 및 확충을 통해서 유아들이 유치원
의 대한 기대와 학부모에게는 ‘안전한 공간, 안심이 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
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단설을 너무 잘 너무 잘 지어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처에 또 어린이집이 생겼
다는 거예요. (중략)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투자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시설이 굉장히 좋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유치원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해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교육계는 정말 뭐랄까 그냥 투자하
면 무한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데는 (중략) 안전하겠단. 이런 마음이 나와
야 되잖아요.

(2022. 10. 11. 매입형 공립유치원 원장 A)

시설이나 환경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열악해
요. 초등학교 교실을 떼어서 만든 유치원이기 때문에 (중략) 시설 자체가 심리적으로 완성
되어 있지도 않고 좀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공립 유치원의 매력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종합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공립유치원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시설의 보수
를 통해서 공립유치원의 대한 인식이 안전한 곳, 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매력적인 공간
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과 교육서비스로 나눌 수 있
다. 교육과정은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의 정착과 유치원 특색의 강화, 유초연계이며, 교
육서비스로 돌봄 기능의 확대, 방과 후 특성화의 다양화이다.

(1) 교육과정

(가)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의 정착과 유치원 특색의 강화

유아중심,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가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유치원만의 특색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스스로 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리스트를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가져 가려고 그러고 내 수업은 내가 책임지고 아이들하고 내 발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중략) 여기에 중심은 아이잖아요. 그 전 교육 과정하고 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유아의 자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최소한의 것들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유치원의 특색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2022. 10. 11. 매입형 공립유치원 원장 A)

또한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시행으로 학급 안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이며, 현 교육과정의 장점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교사는 유아와 교육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아와 놀이를 바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유아교육과정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이 교육과정 의미가 되게 큰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육과정이 던져지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들 했었잖아요. (중략) 교사가 학급 안에서의 기본적으로 애들이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이었기 때문에 (중략) 아주 의미가 큰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나) 유초연계의 강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초연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의 개정 시 유아교육과 논의를 통해서 연결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되게 좋기는 한데 아까 앞에서 초등학교랑 연계가 많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중략) 초등학교 가면 그냥 학습하는 교육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연계성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유초 연계를 초등이랑 같이 논의해서 저학년도 약간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지 교육보다는 조금 더 유아교육과 비슷한 체제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2) 교육서비스의 강화

현재의 저출생의 문제를 유아교육에서 해결하기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으며,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출생의 대한 문제점만 이야기하기 보다는 교육서비스의 강화를 통해서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공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교육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돌봄 기능의 확대와 방과 후 특성화의 다양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 돌봄 기능의 확대

중구의 돌봄 서비스의 대한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즉, 돌봄의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의 대한 역할을 유치원만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엄마들이 원하는 건 딱 그거 그거예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환경 (중략)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중략) 그런데 중구는 돌봄을 지자체에서 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 시간이 끝나고 돌봄에 가있다가 중구에서 운영하는 서틀로 학원에 갔다가 다시 돌봄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는 (중략) 유아교육 기관에 있다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보육기관에 와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더라고요.

(2022. 9. 25. 단설유치원 교사 B)

(나) 방과 후 특성화의 다양화

현재 공립유치원의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은 예체능 중심으로 진행되나, 공립유치원의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기에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의 대한 지양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립유치원 역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되, 특성화의 다양화 및 예술,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엄마들은 특성화의 경쟁이에요. (중략) 특성화의 다양화를 통해서 엄마들이 선택하려고 하면 좋을 듯해요. 정부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학교 안에 양질의 교육을 해놓은 다음에 선택해라고 하면 엄마들이 나는 그러면 학교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2022. 9. 25. 단설유치원 교사 B)

특성화 교육에서도 사립 유치원과 다르게 공립만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교육이 필요하다 하였다. 즉 인지 중심의 교육이 아닌 문예체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유아가 흥미롭게 배우며 성장발달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립도 특성화를 열거나 하되 대신 공립만의 특색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인지 교육 중심이 아니라 문예체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예술 교육도 경험하고 신체 활동도 경험하고 하면서 (중략)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간다면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질 거고 특성화도 꼭 인지 중심으로 하지 않아도 '뽀빠이'라는 것도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다) 공립유치원 급간식의 문제

공립유치원 중 부지와 인력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급식을 함께 먹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불만이었다. 하지만 급식시설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 하였다.

단설이지만 초등학교 급식을 먹어요. (중략) 어쩔 수 없이 급식실이 없어서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을 받아다 먹는다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2022. 9. 25. 단설유치원 교사 B)

(라) 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미운행

공립초등학교에도 통학버스의 운행으로 초등학생의 통학을 돕는 정책에 따라 공립유치원에도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 공립유치원의 교사들은 운행 범위와 셔틀의 운행으로 인하여 교사의 업무의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저희 유치원의 교육 철학이 좋다고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인근에서 다니지 않고 저기 멀리서 오세요. 그래서 셔틀을 운행한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는 문제거든요.

(2022. 9. 25. 단설유치원 교사 B)

2019년인가 공립 유치원 셔틀버스 시범 사업을 해서 좀 서비스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던거예요. 그래서 공립 유치원이 아무래도 많지 않다보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접근성에 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여겨져서 셔틀버스 부분을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4) 발전 방안: 정부 정책

현 시점에서 논의 되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정책인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가) 유보통합

유보통합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와 더딘 실현으로 인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유보통합이 된다면 연령별 이원화와 교육의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위해서 유보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분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묶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슈가 있을 때 관련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실현이 안 되니까, 또 하나의 이슈가 생기면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런 방법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멀리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옆에 있고 같이 어떤 마당을 공유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입학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22. 10. 11. 매입형 공립유치원 원장 A)

유보 통합은 하되 연령별로 이원화를 해서 0에서 2세는 복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은 선택 사항인 거고 나라에서 그거를 다 서비스화해서 질을 고품질로 높여준다면 엄마들은 그 안에서 선택을 할 거고 그 이후는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의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22. 9. 25. 단설유치원 교사 B)

저희 국공립 유치원 노조에서는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번 입장을 표명을 했었어요. 0-2세는 복지로 가고 3-5세는 교육부로 와야 된다는 유보 이원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중략) 유보 이원을 하면서 의무 교육이 가능할까 이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중략) 교육부로 들어오되 0-2세와 3-5세의 연령을 이원화를 해야, 이거는 꼭 어떤 이점에서뿐만 아니라 발달 상황에 있어서도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략) 연령을 좀 이원화하고 교사 자격도 이원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유보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꼭 진행이 되어야 하며, 유보통합 안에서 교사의 자격도 이원화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나)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유보통합 이외의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의 대해 공립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의 생각도 들어 보았다. 공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통해서 연령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학령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중략) 학교 안 가고 학원가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정말 제도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좀 의무교육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방법으로는 적어도 4,5세는 의무교육을 꼭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3,4,5세 하면 지금 사실 유치원이 하고 있으니까 보육기관을 졸업하면 바로 옆으로 가서 유치원으로 입학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서 초등학교 이렇게 같은 울타리 안에 그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구조들 들고 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22. 10. 11. 매입형 공립유치원 원장 A)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위한 상시적인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중략)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을 가져가는 단위가 책임 있는 단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유아정책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중략)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22. 10. 11. 공립유치원 원장 B)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유아교육이 교육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 공공성 부분에서 유아교육의 대한 낮은 인식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의무교육이 꼭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교육 공공성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초중등 그러니까 다른 학교 것보다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의무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무 교육 체제로 유아 교육 나아가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략) 사교육들로 유아 기회교육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이 의무 교육 체제로 나아간다면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2022. 9.25 병설유치원 교사 A)

나. 사립유치원의 요구 및 의견

1) 학령인구의 감소와 관련한 인식

가) 원아모집의 어려움

사립유치원의 원장도 공립유치원의 원장과 마찬가지로 원아모집 과정을 통해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해 체감을 하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이 없다는 걸 느끼는 것이 입학문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쯤이면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입학 문의 한 아이들 체크하고 관리하고 문자 보내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입학 문의가 없다 보니까 설명회를 해야 되나하며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었던라고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C)

원아모집 이외에도 주변의 유치원이 폐원이 되거나 국가에 매입했다는 소식을 통해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변 유치원의 폐원 또는 국가 매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치원 운영의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유치원의 주변들의 유치원 수만 해도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을 하거나 아니면 나라에다가 매입을 한 상황이에요. (중략)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의 수도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저희 유치원이 5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번째일까 어느 순서에 내가 문을 닫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매일매일 보내고 있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나) 교사 근무의 불안정성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사 근무도 불안정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교사의 급여 지급의 어려움은 근무가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교직원의 수도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줄었을 때 저희 유치원은 아까 220명이라고 했잖아요. 큰 규모에 있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여기서 20명 40명이 줄 때에 직원의 감소는 크게 불가피하고 타격은 그만큼 더 커요. (중략) 나라에서 인건비 지원을 몇 만 원씩 인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인원이 미달되는 상황에서 이 교사들의 근무의 불안정성은 분명히 유지되는 게 맞고요. (중략) 더 많은 금액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몇 만원씩의 인상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고.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사실 올해부터 저희는 한 반에 15명이 15명의 교사 두 분이 배치가 되니까 넓은 공간에 아이들은 혜택은 많이 돌아가는데 예산을 짤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범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급여나 이런 거는 거의 공립 수준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서 아껴야지 선생님께 급여를 드릴 수가 있는 형편이에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교사 복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지원하지만 사학연금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이기에 유치원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중이었다. 이러다 보니 유아에게 써야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었다.

사립 유치원은 육아휴직 수당이 나라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사학연금에서도 사립유치원은 예외예요. (중략) 대체 기간제 선생님이 급여도 또 그대로 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 예산액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학급수의 맞게 교원이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닌 사립유치원은 유아의 수의 따라 교원 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원 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학급의 보조인력 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인건비가 모두 유치원 운영비로 진행되다 보니 고경력 교사 일수록 급여의 문제로 일자리가 더욱더 불안하게 된다고 하였다.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아이의 수에 맞춰서 임용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담임 교사 부담임 교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만약에 OO유치원(단설) 선생님처럼 만 3세가 11명이라면 사립 유치원은 부담임이 없어져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교육실무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전혀 없어요. (중략) 사립 유치원 호병포가 따로 돌 만큼 그렇게 사립 유치원의 기본적인 어떤 인건비적인 부분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이 많고요. (중략) 교사의 근무가 불안정 해질수록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다) 공립유치원의 증설

원아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변의 공립유치원의 증설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원이 미흡한데 불구하고 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공립 유치원도 현실적으로 다 미달 상태예요. 인원이 저희 금방 유치원만 해도 한 4분의 1도 충족이 안 되는 병설 유치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립 유치원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중략) 사립유치원은 공립에 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는 수순을 밟는 거지 여기서 사립유치원을 배려하는 정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주변에 사립 유치원은 많이 없어졌고, 공영형, 매입형 이런 식으로 공립 유치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략) 국공립으로 많이들 빠져나가서가지고 처음학교로 접수가 딱 그 시기 안 끝나요. 추가 모집 대기 모집이 계속 있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2) 유치원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하락 요인

가)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돌봄과 특성화)

(1) 누리과정의 한계

개정된 누리과정을 실행과정에서 교사의 역량의 따라 놀이실행이 달라지다 보니 누

리과정의 놀이 중심 교육의 대한 한계를 이야기 하였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또한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다르게 부모의 요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학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개정 누리과정에 반영하여 놀이 중심을 하지만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유치원을 옮기게 되고 그런 학부모를 붙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였다. 학부모에게는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학부모의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서 기초 부분을 다 끝내고 온 상태고 (중략) 부모 성에 차지 않아 하면 버리고 가세요. 근데 붙잡을 수 없어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이런 걸 강조하지만 안 들으세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2) 방과 후 특성화 교육

현재 사립유치원의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은 1일 1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가 특성화 교육의 다양성을 요구하지만 현재 1일 1특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전체 원아가 방과 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며, 근처의 유치원들은 편법의 방법으로 특성화 교육을 다양화 하고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유치원 운영을 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다.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성화를 안 하는 유치원이었어요. (중략) 거의 전체가 방과 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중략) 그걸 없애고 원아모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C)

나) 운영비의 제한

유치원의 운영비 중 교육비의 인상률 1%로 인하여 유치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교사의 인건비가 유치원의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지만 교사의 인건비 인상률보다 낮은 교육인 인상률로 인하여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인건비의 인상률에 맞는 교육비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비 또 1% 제한도 저희는 사립 유치원에서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호봉들이 올라가는데 교육비는 1%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어떤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고 어떤 인건비적인 문제에도 좀 제한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도 좀 자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건비를 쳐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좀 더 늘려 주시던지 그리고 학급 운영비라고 하거나 (중략) 액수를 더 늘려서 해주신다면 (중략) 보완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C)

다) 시설지원의 부족

공립유치원처럼 시설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는 유치원 운영비에서 사용하거나 적립금에서 사용해야 하나, 그 또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아서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은 지원금을 받아서 외벽 공사까지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구청에서 받는 65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그 금액에 운영비 조금 보태서 매년 수시로 조금 운영비로 수선을 하고 있어요. 저희 유치원은 식기 세척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도시락 통을 갖고 다니는 현실이거든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어떤 노후된 시설을 조금 개선하고 또는 보수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적립금 문제도 굉장히 이렇게 어떤 제한이 좀 많고 적립금을 막상 편성 하더라도 그걸로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C)

라) 행정시스템의 사용의 문제(에듀파인, 처음학교로, 나이스)

국가의 유아교육 지원이 확대 되면서 공립과 마찬가지로 행정시스템을 사용해야 하지만 시스템 접근의 어려움과 행정실무 지원의 부족으로 일반 담임교사가 하거나 원장 또는 원감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사의 업무 증가로 연결이 되기에 행정시스템의 간소화와 인력 지원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저는 일단 에듀파인 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사립은 에듀파인에 접속할 때 공립학교보다 한 단계를 더 거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듀파인이 간소화가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중략) 저희는 지금 220명의 행정하시는 분이 한 분이서 이걸 다 맡아서 하시거든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원아모집을 처음학교로 하는 현 시점에서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화가 되었지만 사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용자에게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이다. 또한 처음학교로를 통해서 입학 관리를 하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해 2월까지 계속되는 입학진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학관리의 자율성을 유치원에 부여하여 입학관리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로 시스템이 조금 안정됐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많이 어려워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편리하시고 좋아하시지만 대부분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좀 그런 시스템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C)

초등학교라는 그 제도 자체에서는 공정성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치원도 학부모도 좋은 제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없어요. (중략) 사립유치원에서 우선 모집에서 원아모집을 된 상황에서 일반 모집을 한다하면 5명 왔나 3명 왔나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이탈이 생기다 보니 나중에 3차로 추가 모집을 한다. 거기에 또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인력이 되게 부족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3) 해결방안

가) 인구감소의 대한 적응 방안

(1) 공립과 사립의 이분법적 사고의 변화

유아교육에서 공립과 사립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은 더욱더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공립과 사립의 이분법적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사립을 너무 선긋기 금긋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주시면 사립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중략) 차이를 두는 것조차 저희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이거 비전이 없어 하고 후배 선생님들한테도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2) 건물 용도변경의 자율성 부여

학령인구의 감소는 원아모집의 영향을 주면 원아모집이 되지 못한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유치원을 폐원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 하지만 건물용도 변경의 어려움으로 폐원을 하지도 못한 채 건물의 대한 재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건물용도 변경의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매입형의 기준도 6개 반 이상이어야 되고 또 도로변에 위치해야 되고 거리가 어느 정도 공립 유치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약이 있어서 매입형도 안 되는 원장님들은 아마 용도 변경을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용도 변경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재산의 소유권인데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서 몇 년째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중략) 아이들은 1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되는데 계속 유치원으로 가야 돼요. 유치원으로 안 가고 내가 만약에 폐원을 하게 되면 또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퇴원도 또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중략) 이 부분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되는 첫 번째 아닌가 싶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돌봄의 확대, 유보통합의 사립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의 생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 급여 지원 및 행정지원 시스템 활용을 위한 지원, 원아모집의 자율성 보장, 사립유치원만의 특성강화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 운영 관련하여 방과 후 특성화의 다양화, 유초연계의 강화 및 교사의 다양한 연수로 나눌 수 있다.

(1) 유치원 운영

(가) 원아모집의 자율성 보장

초등학교로 시스템을 통해서 원아모집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아모집의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배려 없이 시스템을 진행하다 보니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입학 관리를 근데 이거를 꼭 처음 학교로 안 하면은 굉장히 불법처럼 되고 뭔가 또 재원생이나 졸업생 어머니들도 이어서 유아교육을 이 유치원에서 받고 싶은데 '졸업생은 안 돼' 이렇게 딱 제한으로 해 버리니까 (중략) 초등학교로 시스템 통해서도 물론 이제 입학할 수 있지만 유치원마다의 입학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좀 주셔서 재원생이든 졸업생이든 뭔가 이렇게 좀 특별 전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늘려주시면 유치원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에 아이들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C)

또한 처음 학교로의 사용의 대한 유치원의 융통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모든 전체 사립 초등학교가 다 하루만(입학추첨)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게끔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우선 모집하고 일반 모집해도 2월 달까지 계속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11월부터 2월까지 그 업무를 해야 해요. (중략)물리는 지역에 만 하게끔 한다든지 약간의 제도의 융통성이라는 거 그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가 있고 또 우선순위 중에는 원장 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원장 재량 그럼 원장님이 우리 유치원에 차가 가는 지역의 아이들은 우선 전형이다. 이러면 그냥 우선 전화로 원아 모집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그렇지만 이제 원장 전형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하겠다. 해서 일반 전형으로 우리는 다 모집하겠다는 거 그냥 일반 모집에는 애들이 없어요. (중략) 12월 31일부터 이번에 초등학교를 우선 전형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중략)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일원화 되지도 않은 이 초등학교로써 의미 없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나) 교사 급여지원의 확대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사의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립은 학급에 4명의 유아 모집이 되면 학급 운영과 관련한 교육재정이 지원이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유아 4명으로 학급 운영 및 유치원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의 급여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제가 사립 유치원 교사로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학급당 인원수가 감소되면 (중략) 인건비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사립 유치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의를 교장 선생님하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사립유치원이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중학교도 있어요. 다 사립 초등학교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를 다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립 중학교처럼 사립 유치원도 운영하면 안 되냐는 거죠.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다) 행정지원 시스템 활용을 위한 지원

국가로부터 누리과정의 대한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시스템(초등학교로, 나이스, 에듀파인)의 활용을 위해서는 인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였다.

내년부터 나이스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없는 인원 중에서 선생님들이 나이스까지 한다는 거는 이진 진짜 말이 안 돼요. (중략) 선생님이 교육과정 수업 끝나고 방과 후까지 수업 끝나고 나면 4시경에 수업에 맞추는 선생님들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에듀과인에다 나이스까지 하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진짜 그냥 밀어붙이기식이 아닐까 좀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게 에듀과인을 할 수 있게 나이스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조금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시간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사립유치원의 급간식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원을 통해서 질적으로 높아졌지만 급간식 지원의 위한 조건이 영양사가 주 2회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조건이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영양사 인건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양사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원장 또는 원감, 일반 교사들이 급간식 관련한 서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영양사의 상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사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에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급간식 문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든 유치원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사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2회 이상 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사 급여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사립유치원의 현실로 보았을 때 영양사님이 주 5일 상주하지 않을 때에는 영양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거든요. (중략) 영양사 선생님이 아예 상주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방안을 충족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라) 사립유치원의 특수성 존중

현재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운영의 주체가 다름에도 같은 기준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의 취지에 맞게 특성을 강화 및 사립유치원의 특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사립이 다 맞춰져야 되는 그런 이제 똑같은 기준을 삼지 말고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중략) 사립만의 어떤 고유한 특색을 살려갈 수 있게끔 자율성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C)

(2) 교육과정 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 방과 후 특성화의 다양화, 교사의 다양한 연수를 들 수 있다.

(가) 방과 후 특성화의 다양화

학부모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성화 수업이었다. 유치원에서 어떤 특성화를 하느냐가 원아모집과도 연관이 되지만 현재 1일 1특강으로 인하여 특성화를 다양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성화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재를 하는 것도 특성화고 자체 인력이 아이들과 뭐 하는 것도 특성화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중략) 특성화라고 해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양한 축구라든지 바이올린 이런 악기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경험하기 좀 힘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유치원에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C)

저희 유치원으로 입학 상담을 오신 어머님들께 저희가 지금 현재는 두 개밖에 없다고 이야기 드려요. 그러면 특강을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여기를 보내겠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원아모집이 너무 안 될 때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오후에 2시 이후로 하되 1일 1특강을 조금 풀어주시면 (중략) 사립유치원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지금 1인 1특기라고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특기의 다양성 방과 후 특성화의 다양성을 조금 제한을 두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요일에 선택할 수 있는 특성화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나) 다양한 연수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 연수를 통해서 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와 연결하는 이런 교육들도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늘어나면 교사의 역량이 더욱더 강화 될 것 같아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다) 돌봄의 확대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요구 중의 하나가 돌봄의 확대이다. 이에 사립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들도 돌봄 확대의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영형 유치원이라서 일반 사립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도 꽉 찼고 대기 인원도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중략)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에듀케어예요. 저희가 총 3학년인데 에듀케어반을 원하면 언제든지 에듀케어반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중략) 에듀케어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고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이 가능한 체제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근데 이 부분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그 부분에서 저는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중략) 유치원에서 이런 돌봄의 영역이 조금 더 확대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유치원을 조금 더 믿고 교육과정 시간은 물론 교육을 하지만 교육과정 시간 이외에는 돌봄 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나아가면 네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2. 9. 25. 사립 법인 공영형 유치원 교사 D)

이제 유치원 안에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특성화든지 아이 돌봄이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원 안에서 부모의 공백이 크지 않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4) 발전 방안: 정부 정책

현재 논의 되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정책인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가) 유보통합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시설과의 여러 번의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꼭 유보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유보 통합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 그게 뭔가가 궁금하고요. (중략) 학부모님들이 거의 보육시설에 경험했던 그 운영을 유치원에 요구해요. 또 유치원에서 경험했던 것을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요구하세요. (중략) 이렇게 연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영유아에게 진행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의문과 함께, 유보통합보다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0-2세도 놀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 꼭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졌던 같아요. 0세를 데리고 놀이 중심을 하는 게 0세인의 교육과정이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표준 보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표준 보육 과정에서 놀이중심을 하래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또 다른 교사는 유보통합은 필요하지만, 교사 자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유보통합이 진행되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준 후에 어린이집 시설장님들한테도 유아 교육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22. 9.25 사립유치원 원장 A)

저는 교사 교육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보육교사랑 유치원 정교사는 자격증을 발부하는 기관도 다르고 받는 교육도 다르기 때문에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 교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을 통일시켜야 해요. (중략) 교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교사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 9. 25. 사립 법인 공영형 유치원 교사 D)

가장 중요한 것은 유보통합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자인 유아 입장에서 생각하여 진행하길 희망하였다.

대상자인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거부터 고민이 되어야 해요. 정말 다른 거는 보지 않고 줄다리기 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거에 먼저 포커스 맞춰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나)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 유아학비의 지원을 매년 충분히 늘림으로서 학부모 부담이 없는 그 시점에서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의무교육이 된 후에 방과 후 과정 교사들의 처우가 교육과정 교사와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은 유아학비지원을 충분히 계속 매년 늘려서 그 0인 시점인 유치원을 많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8만 원만 주는 현 시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가자가자' 계속 협상만 한다면 언제 의무교육이 될지 몰라요. (중략) 의무 교육으로 가더라도 방과 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똑같이 교육과정 선생님들하고 급여의 차별성은 줘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A)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을 열심히 하지만 교육의 대상자인 아이들이 없다 보니 원장과 교사 모두 힘이 빠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유아교육의 의무화를 통해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유초연계의 강화를 통해서 의무교육이 진행되길 희망하였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중략)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려면 대상자인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인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열심히 한 것도 의미가 없어지니 어떻게든 나는 내 자리에서 관리자로서 원아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서 아이들 그런 놀이 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보고 거기에서 배우거나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면 그게 나중에 뭔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의무 교육 이런 걸로 이제 조금 나라에서 책임을 저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2022. 9. 25. 사립유치원 원장 B)

의무 교육으로 된다면 초등 저학년과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지금 같이 저는 학원 갈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교육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유치원 간의 수평이동이 많으며, 유아교육이 교육서비스라는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만 5세의 조기 취학의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만 5세의 조기취학을 찬성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통한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님들이 유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략) 학부모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 유아 교육도 초중등 교육처럼 의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다. 유아특수교육의 요구와 의견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안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급의 수의 부족으로 특수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현재의 특수학급의 현황 파악을 통해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1) 학령인구 감소 및 유아특수교육 현장의 문제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유치원이 폐원이 되거나 매입형 유치원으로 바뀌는 상황이지만 특수교육이 진행 될 수 있는 특수학급은 많이 부족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 역시 부족하였다. 또한 비장애 유아와 다르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장애 유아를 도울 있는 인력의 부족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가) 부족한 특수학급

비장애 유아들을 위한 학급은 지속적으로 증설이 되지만 특수아동을 위한 학급의 증설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학부모들도 특수학급의 증설을 요구하지만 잘 진행되지

않으며, 한정된 학급에서 특수아동을 교육하다 보니 과밀 학급이 되는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었다.

특수학급으로 입학할 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갈 수 있는 학급이 많이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급 증설이 잘 안 돼요. (중략) 병설 유치원은 이제 문을 연다고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특수학급은 빠져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급이 과밀이 되는 과원이 되는 거예요.

(2022. 9. 25.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E)

나) 열악한 특수학급 교실 환경

특수학급의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 환경이 필요하지만 수치상으로만 44제곱미터를 조금 넘긴 교실 환경 속에서 특수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입형 단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여 건물도 새 것인데 주변에 매입형 유치원의 교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밀집도가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싸움이 많이 나요. 특수학급의 경우 44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중략) 시설이 너무도 열악해요.

(2022. 9. 25.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E)

다) 특수학급 인력

도움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대한 인력 역시 너무도 부족하였다. 인력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만 예산에 특수교육예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기에 부족한 인력의 대한 업무가 일반 담임교사 또는 현재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특수교사의 몫이 되는 상황이었다.

교육청에서 특수교사의 인력 지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유치원 내 특수교육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특수교육 예산이 안 돼 있으면 일반학급 선생님들이 다 온전히 그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또 병설은 특수 선생님이 안 계신 곳이 너무 많아요.

(2022. 9. 25. 공립 단설유치원 교사 B)

특수학급은 사실 4명도 손이 많이 가요. 5살, 6살, 7살 반으로 애들이 찢어져버리면 저랑 교육실무사님 둘만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의 몫이 돼요. (중략) 저는 특수학급도 같이 증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2022. 9. 25.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E)

신체 발달에 지연이 있는 특수 유아를 보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본 일상생활에 필요한 밥 먹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계단을 못 내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항상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힘이 가중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라) 학부모의 이중적 인식과 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인식으로 인하여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아들도 유치원 입학 시 일반전형으로 지원하여 유치원에 입학 하다 보니 일반학급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발달의 적합한 교육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도 학부모의 거부로 인하여 발달의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이 아이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인데 (중략) '저희 아이는 그런 것 하기 싫어요' 라고 하고 일반 학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2022. 9. 25. 공립 단설유치원 교사 B)

사립 유치원 안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장애가 있음에도 일반 사립 유치원을 보내시는 어머님 계세요. 그렇다면 교실 안에서 일반 아이들과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그 아이를 같이 케어를 하다 보니까 교사는 그 아이만의 선생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중략) 사립은 특수학급의 개설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중략) 사립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2022. 9. 25. 사립유치원 교사 C)

2) 해결방안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의 증가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일반 학급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를 담당했던 교사 모두 특수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또한 특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설 지원 및 인력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가) 특수학급의 증설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장애유형 및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립 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이 다 많이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특수학급 생기는 거에 따라서 인력 지원도 같이 줘 되어서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들이 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 9. 25. 병설유치원 교사 A)

또한 사립 유치원에서도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어디서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공립 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이 이제 처음부터 있었을 때는 어머니들이 약간 거부감은 없고 오히려 좀 더 우리 아이를 봐주는 눈이 더 많아서 그런지 더 좋아하셨고 사립 유치원 컨설팅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선생님 말씀처럼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보통 수준의 교육 정도로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2022. 9. 25.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E)

나) 특수학급의 교실 공간 확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유아와 달리 공간 확보가 더 커야 하지만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공간 확보의 문제로 인하여 특수 교육을 받는 유아들끼리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에 매입형 단설을 계획 한다면 공간 확보의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매입형 유치원의 교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밀집도가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싸움이 많이 나요. 이제 매입형 단설을 앞으로든 뭔가 계획을 하신다면 교실 사이즈를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22. 9. 25.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E)

다) 특수학급의 보조인력

특수학급의 증설 및 교실 공간의 확보의 대한 요구와 함께 인력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일반학급에 교육실무사의 배치가 되어 서로 도움을 받아가며 학급 운영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일반학급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배치 시 교육실무사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 하였다.

인력적인 지원이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실무사님이라도 반배치를 받으면 어쨌거나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2022. 9. 25.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E)

공영형이라, 정부에서 지원이 조금 충분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 인력에 저희는 조금 여유가 있는 듯합니다. 현재 만 3세, 16명의 담임을 하고 있는데 담임은 한 명인데 한 학기 내내 교육실무사님이 같이 도와주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2022. 9. 25. 사립 법인 공영형 유치원 교사 D)

라. 학부모의 요구 및 의견

학령인구가 감소로 인하여 유치원의 통폐합이 되는 상황에서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 봄으로서 현재의 유치원의 폐원을 막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에 학부모들의 요구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의 확대,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의 다양화, 돌봄의 확대, 가정과의 연계 강화, 학부모의 요

구 수용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더불어 만5세의 조기 취학과 유초연계에 대한 생각도 들어 보았다.

1)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의 확대

학부모들은 현재의 개정된 누리과정의 놀이 중심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성에도 도움이 되며, 아이들이 생각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었다.

여기도 거의 기본 베이스가 놀이 과정이라서 (중략) 저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느끼고 배우고 그냥 친구들이랑 사회성도 굉장히 많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공동 작업도 하거든요. (중략)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고 자기들 스스로 한다고 해야 되나 책도 막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2022. 10. 12. 공립단설유치원 학부모 A)

자유 놀이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소그룹으로 있을 때 항상 선생님 한 분이 주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확장시켜주시더라고요. (중략) 너무 만족하고 아이도 정말 행복하게 원에 가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하게 느끼고 있어서.

(2022. 10. 12. 사립법인 유치원 학부모 D)

놀이 과정마다 확장을 해서 나중에 유치원 행사처럼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아이들이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중략) 교육을 놀이로 확장해서 해주신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어요.

(2022. 10. 12. 사립유치원 학부모 C)

2)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의 다양화

학부모들은 1일 1특기로 인하여 특성화 교육이 이전보다 줄어 든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였다. 이에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을 다양화를 통해서 유치원 안에서 대부분의 교육이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방과 후 특성화 교사로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그 안에 공간적인 부분도 되게 좋고 케어도 정말 잘해주시고 하는데, 그 안에서 배운다면 정말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바깥에 학원들을 찾아서 (중략) 또 다른 데도 가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분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유치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얼마나 다 그 생각을 항상 엄마들이 하고 있어요.

(2022. 10. 12. 사립법인 유치원 학부모 D)

특히 방과 후 같은 경우도 (중략) 1일 1특기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저뿐만 아니라 일하는 엄마들도 다 유치원에서 하는 거 외에 다른 사교육도 또 찾아야 되고, 그러면 유치원 끝나고 다른 학원도 보내면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비교가 되다보니까 그 전에처럼 방과 후가 좀 다양하고 많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생각해도 특성화를 다양하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중략) 일을 하는 엄마들은 유치원에 맡겨놓고 그 안에서 학원처럼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2022. 10.12 사립유치원 학부모 C)

첫째를 사립 유치원 보낼 때는 지금 1일 1방과가 없었을 때라 그러니까 유치원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중략) 현재 둘째는 병설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데, (중략) 새로운 것도 또 계속 투입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이의 성향이 잘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방과 후에는 1일 1 방과라도 해줬으면 조금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제일 큼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좀 학부모님들 요구도 좀 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조금 발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 10.12 병설유치원 학부모 B)

특성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특성화의 다양화로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워 하였지만 사교육을 하지 않고 유치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서 만족하고 있었다.

저희 아이 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중략)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중략) 다만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돌봄을 하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략)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중략). 저희는 방과 후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이들끼리도 소외감도 늘고 (중략)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도 아이들끼리도 원하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과목별로 추가가 될 때마다 조금 부담이 되지만 대신 다른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또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2022. 10. 12. 사립유치원 학부모 E)

방과 후의 특성화 교육의 다양화도 필요하지만 특성화를 담당하는 교사의 질의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사교육도 사교육이지만 방과 후에서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40분이더라도 어떤 선생님이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실력도 굉장히 차이 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엄마들이 더 사교육 시장을 헤매느냐, 아니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교육하면서 교육을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요즘에 제일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22. 10. 12. 사립유치원 학부모 C)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의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들이 그렇게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나중에 선배 엄마들이 왜 그렇게 영어에 집착을 했는지 보면 영어를 먼저 진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수학이랑 이런 거 할 시간도 있다는 말에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2022. 10. 12. 사립법인 유치원 학부모 D)

이전에도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첫애를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난 후에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그래서 둘째에게는 첫째와 다르게 일찍 영어에 노출시켜 주어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었다.

첫째를 사립 유치원 보낼 때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월화목금 해줬어요. (중략) 첫째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어느 날 첫째가 '왜 자기는 영어를 못하냐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립초등학교에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유치원 출신이다 보니 일반 유치원을 나온 저희 첫째는 영어 수업에서도 중간 반 또는 그보다 낮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지금은 첫째와 둘째는 방문 영어회화 수업을 하고 있어요.

(2022. 10. 12. 병설유치원 학부모 B)

또한 영어 수업에 대해서 좀 더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현재의 유아교육의 상황 상 늘려 줄 수 없다는 유치원의 이야기에 영어를 위해서 사교육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영어에 대한 방과 후도 좀 줄고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어 조금 늦더라고요 첫째보다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좀 아쉽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첫째 때는 다 해결이 됐는데 둘째 때는 좀 사교육을 더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022. 10. 12. 사립유치원 학부모 C)

3) 돌봄의 확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대의 가족의 구성의 따라 학부모들은 안전한 유치원 안에서 유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돌봄의 확대 및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사립은 방과 후로 돌봄이 있어서 사립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립 유치원에도 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시간대의 돌봄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2022. 10. 12. 사립유치원 학부모 C)

둘째는 유치원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하는데 돌봄 시간에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보면 그냥 놀고만 왔대요. (중략) 매번 그냥 블록 가지고 놀고 오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온대요. (중략)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여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돌봄 시간 동안에 그냥 놀기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2022. 10. 12. 병설유치원 학부모 B)

또한 유치원 돌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전업엄마의 가정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되었다. 이에 돌봄을 신청 할 때 전업 엄마를 위한 돌봄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전업 맘인데 단설이나 사립 유치원을 보낼 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벌이 같이 방과 후 돌봄 같이 이런 제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맞벌이와 전업 엄마의 이런 차별이 그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또 사교육으로 자꾸 이렇게 치열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2022. 10. 12. 사립 유치원 학부모 E)

4) 가정연계 강화

공립유치원의 학부모는 가정과의 연계를 원하고 있었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경험한 학부모로서 공립유치원의 가정연계의 대한 아쉬움과 가정연계를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예전에 사립이라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랬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의(첫째)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날 잘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해 주시거나 이제 연락장을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중략)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병설을 보냈을 때는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담할 때 아니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략) 소통을 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중략)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꼭 상담 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주시면 저도 또 그걸 집에 가서 아이랑 같이 놀이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대화할 때도 좋은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이 없어서 아쉬워요.

(2022. 10.12 병설유치원 학부모 B)

5) 학부모 요구의 수용

유치원의 존폐는 결국에 학부모의 요구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학부모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치원이어야 엄마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원에 가려고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 10.12 사립법인 유치원 학부모 D)

유치원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좋은 유치원 그 다음에 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라면 (중략) 그런데는 물리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놀이과정 자체는 놀이중심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걸쳐져서 나온 과정이고 또 지금 저는 자리를 잡고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취학 전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연계성을 좀 고려해 주시는 등 프로그램의 유연성은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 10.12 병설유치원 학부모 B)

6) 만5세 조기 취학과 유-초등연계의 대한 생각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이야기 중 학부모들은 유초연계의 대해 유치원 내에서 좀 더 고려하여 진행되길 희망하였다. 이에 유초연계를 위해서 만 5세반에 대한 생각과 만 5세 조기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저 예전에 사립 보냈을 때는 첫째를 선생님께서 만 5세 반 후반기에 유치원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초등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같은 것들도 미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게 (중략) 교재도 직접 만드셔가지고 (중략) 감동이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중략) 그냥 5.5반에서 2학기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사 과정 중에 녹여져 있으면 저는 굳이 그렇게 또 특별한 뭔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 5세 같은 경우 초등 1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5.5반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듭니다.

(2022. 10.12 병설유치원 학부모 B)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서 누리과정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중략)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다 한글을 거의 습득하고 입학하는 수준인데 7세 아이들 주변에 보면 거의 학습지나 패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따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교육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조금 이제 누리 과정에도 이제 교육적으로 포함이 되었으면 이제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2. 10.12 사립 유치원 학부모 E)

학부모들은 유초연계를 위한 5.5반보다는 현 교육시스템에서 유초연계가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유초연계를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배운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도 연계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고집을 하느냐 (중략) 지금 이제 5세 만 3세밖에 안 되는 애들의 영어에 한 달에 몇 백만 원을 투자하면서 할 일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셔서 이런 교육하시는 분들이 (중략) 정말 인성이나 여러 가지 정말 놀이적인 부분이나 아이들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도 연계가 되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2. 10.12 사립법인 유치원 학부모 D)

학부모들은 만5세 조기 취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만5세의 발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어린 나이에 사교육의 더욱더 노출되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학원들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중략)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엄마들이 약간 심리적 부담감이 약간 있어요. 그 전에 한글도 떼놓고 만약에 이제 학교 가서 화장실 뒷처리 문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어린이로서 뭔가는 갖춰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 마음 정말 급해질 것 같아요. (중략)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대를 역공한다는 생각, 사실 엄마들을 너무 모른다. 워킹맘은 정말 울어야 하나.

(2022. 10.12 사립유치원 학부모 C)

정부에서는 아마 엄마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는 제가 잘 의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좋게 생각하면 정부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학교를 보내고 (중략) 반대로 현실에서는 (중략) 빨리 한글에 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2022. 10.12 병설유치원 학부모 B)

또한 만5세의 조기 취학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에 맞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립 유치원이 많지 않아요. 유치원 시작하는 그 연령대부터 지금 병설 같은 시스템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죠. (중략) 무상은 당연히 무상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다 초등 그리고 중등 고등까지 꼭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중략) 그런 것의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살이라도 그냥 어리게 가면 엄마들이 부담이 줄지 않겠냐 학교를 더 일찍 가니까...그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생각해요. (중략)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2. 10.12 사립법인 유치원 학부모 D)

마. 소결

본 절에서는 학령인구감소시대의 지속가능한 공사립 유치원의 운영을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학부모의 면담을 통해서 운영방향의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3-1〉 면담 내용 정리표

구분	유형	문제점	해결방안
학령인구의 감소 인식	공립	원아모집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감소의 대한 적응방안 병설유치원의 통합을 통한 단설유치원의 확대 유치원의 시설 보완 및 확충
		교직원 근무의 불안정	
		시설 지원의 부족	
		병설유치원의 증설	
	사립	원아모집의 어려움	
		교직원 근무의 불안정	
		운영비 제한	
		공립유치원의 증설	
		시설지원의 부족	
		행정시스템 사용의 문제	
교육과정	공립	누리과정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의 정착과 유치원 특색의 강화 유초연계의 강화 돌봄 확대 방과 후 특성화의 다양화
		방과 후 특성화 교육	
	사립	누리과정의 한계	
		방과 후 특성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원아모집의 자율성 보장	
특수교육	부족한 특수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의 증설 특수학급 교실 공간 확보 특수학급의 보조인력 지원 	
	열악한 특수학급 교실 환경 시설		
	부족한 특수학급 인력		
학부모	놀이중심 교육과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확대 가정연계 강화 학부모 요구의 적극 수용 	
	방과 후 특성화 교육의 다양화		
	돌봄 확대		
	가정연계 강화		
	학부모 요구의 적극 수용		

학령인구의 감소의 대한 공사립 유치원의 인식에 대해서는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립과 사립의 유치원의 근무하는 원장 및 교사 모두 원아모집 과정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었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교사 근무의 대한 불안정성과 유치원 운영비 및 시설의 대한 개, 보수의 대한 어려움을 이

야기 하였다. 또한 계획적이지 못한 공립유치원의 증설은 사립유치원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미 운영 중인 공립유치원에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사립 유치원은 국가 행정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국가 행정 시스템을 꼭 활용해야 한다면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개정된 누리과정의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 꼭 필요하며, 당연한 것이지만 교사의 역량의 따라 놀이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국가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서 누리과정의 시행 이전처럼 유치원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1일 1특기로 인하여 유치원에서 다양한 특기 수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대해서 학부모의 불만이 증가 되지만 국가의 1일 1 특기의 이상의 특성화 수업의 대한 불허 방침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학부모 역시 1일 1특기로 인하여 유치원 안에서 다양하게 경험 할 수 있는 기회의 줄어 든 것에 대해서 아쉬워 하였다. 이에 1일 1특기의 방침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서 유아 발달에 적합한 특성화 수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 방식의 다양성은 유치원 교사들에게 교수법의 대한 다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정의 대한 연수도 필요하지만 에듀테크와 같은 교수법의 연수를 통해서 유아교육현장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령인구의 감소의 따른 지속 가능한 공, 사립 유치원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의 확대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학부모는 안전한 곳에서 아이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기를 원한다. 이에 유치원의 돌봄 확대를 통해서 유치원의 안전한 공간에서 유아들이 돌봄을 받기를 원하였다. 이는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특수학급의 증설과 특수학급 교실환경의 개선,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생으로 인하여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족한 특수학급의 증설과 특수학급의 교실공간의 확보, 특수교육을 위한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의 따른 지속 가능한 공, 사립 유치원이 되기 위해서 발전 방향으로 유보통합 및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의 대한 공, 사립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 학부모는 모두가 유보 통합이 필요하지만 교사자격증 관련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유초연계의 대한 교육과정의 연계가 필요하다.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1) 응답자 특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15명의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 13명(86.7%), 남성 2명(13.3%)이었다. 연령은 평균 49.7세로 60대 3명(20%), 50대 5명(33.3%), 40대 5명(33.3%), 30대 2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박사가 8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가 5명(33.3%), 학사가 2명(13.3%)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위 전공은 유아교육이 12명(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 심리학, 행정학이 각각 1명(6.7%)이었다. 직책의 경우, 현장 전문가 8명(53.3%), 학계 6명(40%), 행정가 3명(20%) 순이었다. 근무경력 16년 이상이 10명(66.7%), 6년 이상 10년 이하가 3명(20%),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2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및 백분율	
	빈도	비율
성별	여자	13 86.7
	남자	2 13.3
연령 (평균: 49.7세)	60대	3 20.0
	50대	5 33.3
	40대	5 33.3
	30대	3 13.3
최종 학력	학사	2 13.3
	석사	5 33.3
	박사	8 53.3
최종학위 전공	유아교육	12 80.0
	유아특수교육	1 6.7
	심리학	1 6.7
	행정학	1 6.7
직책	학계	6 40.0
	행정가	3 20.0
	현장전문가	8 53.3
근무경력	6년~10년 이하	3 20.0
	11년~15년 이하	2 13.3
	16년 이상	10 66.7
총 합	-	100.0

2) 조사절차 및 조사지 내용 구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구성은 선행연구, FGI면담 결과, 관계 전문가 의견, 정책 포럼 등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1차 조사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메일과 메시지를 활용하여 1차 델파이조사지와 조사지침을 응답자에게 전하였다. 2차는 서술식으로 진행하였고, 1차 의견조사결과를 전문가들에게 공유하고, 이에 대한 추가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조사는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항목에 대한 추가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의 내용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구성내용
1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유지, 달성 정책 계속 추진 • 공립유치원 단계적 재구조화 중장기방안 설계 필요 • 폐원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제도로 개선하여 공립 확충방안 모색 • 추가의견
2	인력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교사, 비담임교사 배치 기준 마련 •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력 1명 증원(유아담당으로 지정) • 영양교사 배치가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가능한 기준 마련 • 학급정원 감소 정책 적극 추진(유아수 배치 만 14명, 만4세 18명, 만5세 20명으로 빠르게 실행, 학급당 유아수 정원 미충족 공립 유치원 학급 유아수 하한 5명으로 유지) • 사립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정책 현실화(정보공시, 에듀파인, 나이스 등 운영)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비원 • 사립유치원 교사 법적지위보장, 처우개선 강화, 내부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마련 • 추가의견
3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매식/위탁 운영의 교육지원청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 방학 중, 기간제 교사(또는 대체교사) 지원 제도 확립 • 공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 • 전염병 시기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통합학교 모델 또는 혼합연령반 운영에 관한 중장기 방안 모색 • 추가의견
4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다양화 •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한글 및 수학교육에 대한 요구) •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추가 의견
5	방과 후 과정 (돌봄 및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특성화 운영 및 활동 다양화 • 방과 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 • 방과 후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온종일돌봄, 오전/오후반 운영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의견
6	교육복지 및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통합 유치원 및 특수학급 증설 등 •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배치계획 수립 필요 • 유아특수학급에 연령별로 교사를 배치하여 교사가 학급당 나누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 • 특수학급을 공립, 사립유치원에 모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배려 유아와 가족에 대한 공립 유치원의 섬세한 배려, 연계 프로그램 강화 •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충분한 확보 • 추가의견
7	시설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 •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 •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 유치원 ICT,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 • 추가 의견
8	행정 및 전달체계,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단계를 학교급으로 인정하는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필요 • 유아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유아학교 명칭 변경 •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을 승격하여 국립중앙유아교육원으로 승격하여 연구기능과 17개 시도교육청 진흥원 조직을 통합 관리 조직 구성 • 추가 의견
9	개인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경력, 직책, 최종학위 및 전공

가)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유지 달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과 ‘보통’이 각각 13.3%,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단설 중심, 병설 통폐합, 동마다 공립유치원 하나씩 설립의 공립유치원 단계적 재구조화에 대한 중장기 방안 설계 필요의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6.7%, ‘보통’이 20%, 그리고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폐원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 제도로 개선하여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0%, ‘타당하지 않음’이 13.3%, ‘보통’과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각각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의 타당성

단위: 명(%)

문항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M(SD)
1. 공립유치원의 이용률 개선 타당성	9(60.0%)	2(13.3%)	2(13.3%)	1(6.7%)	1(6.7%)	4.1(1.3)
2. 공립유치원의 단계적 재구조화	7(46.7%)	4(26.7%)	3(20.0%)	-	1(6.7%)	4.1(1.2)
3. 매입형 유치원을 통한 공립 확충 방안	8(53.3%)	3(20.0%)	1(6.7%)	2(13.3%)	1(6.7%)	4.0(1.4)

〈표 3-5〉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문항	내용
1. 공립유치원의 이용률 개선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립유치원 이용률은 40%를 넘었음. - 유지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학급 또는 교원 감축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임. - 공립유치원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공립의 서비스 부족만이 이유가 아니라 저출생, 유보이원화, 기준 미달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난립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음. 따라서 복합적인 이유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평등한 출발선 보장과 의무교육의 터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공립 확대가 필요함. -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활용차원이 아닌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의무 확대가 필요함. - 일괄적인 이용률을 적용하기보다, 사회적,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공립유치원의 단계적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할 경우, 동마다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공립유치원 단계적 재구조화 중장기방안 설계는 필요하나 현재 병설형 단설유치원이 단설형 유치원으로, 신설유치원 설립 시 병설이 아닌 단설의 형태로 계획 수립 필요 - 공립유치원의 정의를 사회적 변화에 맞게 다시 내리고, 그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인위적 공립 확대 정책은 불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낭비만 가져올 뿐 정책의 실익이 없음.
3. 매입형 유치원을 통한 공립 확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원되는 유치원의 시설 수준이 다시 지어하여야 하는 수준이거나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곳이 많음. - 저출생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폐원 유치원의 영유아 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한 매입이 고려되어야 함. -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의 균형적인 확충과 조정이 필요함. - 폐원 유치원은 다른 업종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6〉 1번의 추가 의견

- 교육의 형평성으로 볼 때 초중등과 유아의 교육은 매우 차별적임. 공교육의 수혜율, 공교육 기관 수, 교사 처우, 기관명(유아학교로 개정 필요!)
- 급감하는 영유아 수를 고려하여 무분별한 공립의 증설 보다는 서울시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기관 운영을 위한 통폐합, 거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봄.
- 의무교육의 터전을 위한 실험적 만5세 의무교육 적용방안 서울에서 실험적 실행필요
-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모래놀이, 흙 놀이, 물놀이가 가능한 실내 활동실로 용도 변경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충분히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 있음.

나) 인력 및 배치

인력 및 배치와 관련하여 담임교사 외 지원 인력의 유연성, 학급당 유아 수 등의 조사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담임교사 외의 전문성을 갖춘 지원교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교사, 비담임 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과 ‘보통’이 각각 20% 순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 지원(통학버스, 급식업무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 유아 담당 장학사 인력 1명 증원 방안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13.3%, ‘보통’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현실에 알맞은 정책 개선 방안 및 영양교사 배치가 어려운 사립유치원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을 바탕으로 영양교사 배치가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가능한 기준 마련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별 유아 수 배치와 관련하여 만3세 14명, 만4세 18명, 만5세 20명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급당 유아 수 정원을 미충족하는 공립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하한 5명으로 유지하는 바에 대한 방안의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6.7%, ‘타당하지 않음’과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각각 6.7%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시, 에듀과인, 나이스, 행정교사 및 행정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정책 현실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6.7%, ‘타당하지 않음’이 각각 6.7%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무상교육 시 우선적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부터 실시하여 교사고용과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6.7%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개선, 연차사용 보장, 육아휴직제도 보장, 임금보장과 같은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과, 사립유치원 교사 법적지위 보장 및 사립유치원 내 내부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및 교사 인권보호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9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인력 및 배치의 타당성

단위: 명(%)

문항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 교과교사 제도	9(60.0%)	3(20.0%)	3(20.0%)	-	-
2.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력 1명 증원	12(80.0%)	2(13.3%)	1(6.7%)	-	-
3. 사립유치원 영양사 배치 기준 마련	12(80.0%)	3(20.0%)	-	-	-
4. 학급정원 감소 정책 적극 추진	9(60.0%)	4(26.7%)	-	1(6.7%)	1(6.7%)
5. 사립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정책 현실화	10(66.7%)	4(26.7%)	-	1(6.7%)	-
6.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11(73.3%)	4(26.7%)	-	-	-
7.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14(93.3%)	1(6.7%)	-	-	-
총합	15(100.0%)				

〈표 3-8〉 인력 및 배치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문항	내용
1. 교과교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 - 비담임교사 배치 시 활용 방법에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초를 쌓아야함. - 영유아 수가 줄었을 때 교사는 오히려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높아지는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했을 때 전문 인력의 추가배치는 필수적임. - 교과교사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비담임 교사 보다는 1학급 2인이 팀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공립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함.
2.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력 1명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현재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초등 전공 장학사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음. - 유아 담당 장학사의 수가 부족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생존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부가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전문 인력인 장학사가 필요함. - 공사립 구분 없는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관심이 필요함.
3. 사립유치원 영양사 배치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 질 높은 급간식 및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영양사의 배치가 필요함. - 영양사 배치 등의 법령개정 필요 -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가 예산상 어렵기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함. - 교육과 돌봄이 중요한 유치원의 특성에 맞추어 초중등과 같은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배치보다는 간호사, 영양사의 배치가 더 필요함. - 방학 중 급식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유치원에 맞는 업무기준이 필요함(간식 지원에 대한 기준추가).

4. 학급정원 감소정책 적극 추진	- 학급정원 감소 방식 뿐 아니라, 1교실 2교사를 통한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화도 고려 필요 -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고려하여 학급정원의 간극을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음. 예) 만 3세 12명, 만4세 16명, 만5세 20명
5. 사립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정책 현실화	- 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되려면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투자되어야 함. - 유치원 특수학교의 경우 나이스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프린트하여 우편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초등은 중등에 나이스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이관함). - 인건비 지원은 필요하나 그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 필요
6.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 무상교육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질 높은 교원의 확보가 필요함. 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큼. - 교사고용 및 기관 운영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교사인건비지원은 타당하나 교사의질 관리를 위한 임용방법 개선이 필요함.
7.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유아교육 역시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진행된다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법적지위, 처우개선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 사립교사 인건에 대한 기관장연수 및 교사연수가 필요함. - 휴게 시간 사용, 연차 사용, 육아휴직 및 가족 휴가 제도를 필히 보장해야 함. - 사립 유치원이 사인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한계로 신분 보장이 어려우므로 향후 사립 유치원 교사 임용을 교육청에서 담당하여 교사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표 3-9〉 2번의 추가 의견

-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확대 시에는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등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규제 항목의 추가적 배치가 필요
- 급식, 보건 관련 유치원 여건에 맞는 급식실과 보건실 지원 및 유치원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필요
- 현재 사립의 경우 1학급 2담임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교육 시행할 경우 담임을 1인으로 하겠다는 경우가 있음. 이는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오히려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1학급당 2인이 담임을 맡는 방식을 적용하여, 학급당 정원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 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력풀(버스기사, 조리사, 서무, 안전도우미 등) 구성(혹은 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인력풀 활용을 위한 업체공을 통하여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지원

다)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 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지원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33.3%, ‘보통’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과 ‘보통’이 각각 26.7%, ‘타당하지 않음’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공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26.7%, ‘타당’이 13.3%, ‘타당하지 않음’과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각각 6.7% 순으로 나타났다. 전염병 시기 긴급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높

았으며, '타당'이 26.7%, '보통'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교 모델 또는 혼합연령반 운영에 대한 모색 필요에 대한 타당성은 '매우 타당'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26.7%, '타당하지 않음'과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13.3%, '타당'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의 타당성

단위: 명(%)

문항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M(SD)
1.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지원	9(60.0%)	5(33.3%)	1(6.7%)	-	-	4.5(0.6)
2.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	5(33.3%)	4(26.7%)	4(26.7%)	2(13.3%)	-	3.8(1.1)
3. 공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	7(46.7%)	2(13.3%)	4(26.7%)	1(6.7%)	1(6.7%)	3.9(1.3)
4. 전염병 시기 긴급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10(66.7%)	4(26.7%)	1(6.7%)	-	-	4.6(0.6)
5. 통합학교 모델 또는 혼합연령반 운영에 대한 모색 필요	6(40.0%)	1(6.7%)	4(26.7%)	2(13.3%)	2(13.3%)	3.5(1.5)

〈표 3-11〉 3번의 추가 의견

- 긴급 상황 등 학교체제에서 모든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학교는 평시 정규과정과 방과 후 돌봄,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정도로 정착하면서 그 틈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 돌봄 공간이나 관계를 구축할 필요(아파트마다 노인정이 있듯이 돌봄 공간을 구축)
- 학부모의 일차적 요구는 자녀에게 영양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있음.

라)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 다양화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6.7%, '타당하지 않음'과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와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13.3%, '보통'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과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0%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문항	내용
1.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영양교사가 유치원 급식 관련 업무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치원에 비담임 교사 TO를 배치하여 교사가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긴 방학이 공립유치원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며, 방학 중 교육의 여건 강화를 위해 기간제 교사 (또는 대체교사)제도를 안착시키는 방안 - 법, 제도 개선 없이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모든 지역의 유치원에 적용할 수 없을 것임(예를 들어 주변에 위탁할 업체가 없는 지역 등).
2.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게 방과 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 방학에 관계없이 등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 - 유아학교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이후 공사립 모두 초중고와 유사 수준의 방학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유아들의 등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공백(교사들의 연가사용)과 맞물려 대체교사 지원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어려움. 특히 방학 기간(약 1달)만 필요한 사람을 구인하는 것은 더 어려움. - 질 높은 방학 중 교육을 위해 질 높은 기간제 교사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교육과정을 방과 후 과정으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 접근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 유아의 입장에서 2담임제도에 의한 오전교사와 오후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3. 공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학버스시스템을 공적으로 정착하는 안에는 동의하지 않음. - 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안을 통해 학부모를 통한 통학시스템을 정착하는 노력 필요 - 최소한의 통학버스 이용비를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학버스 운영의 핵심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학생)가 통학버스 탑승(이용) 시간임. - 2~3학급의 병설유치원을 묶어 단설화하여 버스운행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생각됨. - 공립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공통적인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함. - 공립은 공립 특성에 맞게 초등학교 주변 유아들이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4. 전염병 시기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원의 결석으로 학급운영의 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할 바이러스들로 인한 전염병을 대비하여 검증된 교사로 대체교사인력풀이라도 조직되기를 기대함. - 유아교육이란 돌봄을 포함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므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가 담임교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교육과정에 언급된 대로 4-5간의 교육과정반과 이후 방과 후 반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때에 투입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좋겠음. -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해 초등 돌봄과 함께 지자체이관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함. 단, 이동이 어려운 유아의 특성상 기관 자체를 옮겨 다니지 않고, 학교 내 시설 대여 등을 통해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립유치원의 오후 에듀케어 확대 정책으로 돌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지속적인 오후 에듀케어 확대를 통하여 돌봄 기능 확대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유아 수 조정 및 간호사배치 등이 시급하고 긴급 시 공립유치원을 단설유치원 중심으로 긴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위하여 긴급돌봄 체계가 필요함. - 학급당 유아 수 조정 및 간호사배치 등이 시급하고 긴급 시 공립유치원을 단설유치원 중심으로 긴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5. 통합학교 모델 또는 혼합연령반 운영에 대한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연령반 구성은 이미 가능한 상황이고 현장에서 혼합연령반 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초통합학교의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장기계획이 필요함. - 연령에 대한 학급구성 부분은 구성원(교직원, 학부모회 등)들의 자문 및 심의에 의해서 방법을 모색하면 됨. - 저출생 시대에 유초등 통합학교 모델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1-2학급 병설유치원을 아예 혼합연령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유초등 통합학교 모델이라기보다 유초 이음학교 형태로 유아와 초등이 독립적이나 연계된 형태 필요 - 통합학교 모델은 유아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 - 유초등은 발달단계차이가 매우 큼,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생과 주변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유아는 배움의 과정, 목적은 매우 다름. 이에 유,초의 통합은 아주 진지한 고려가 필요함(교육과정 전체가 바뀌어야 함). - 혼합 연령 학급은 학령인구 감소 이외에도 외동이 많은 현재 가족의 특성상 매우 긴요하며, 유아들이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도 장점이 많음. 다만 교사의 업무가 과다할 수 있으므로 적정 원아 수, 보조 교사 등 인력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

〈표 3-13〉 교육과정 운영의 타당성

단위: 명(%)

문항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M(SD)
1.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 다양화	9(60.0%)	4(26.7%)	-	1(6.7%)	1(6.7%)	4.3(1.2)
2.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	12(80.0%)	2(13.3%)	1(6.7%)	-	-	4.7(0.6)
3.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6(40.0%)	6(40.0%)	3(20.0%)	-	-	4.2(0.8)

〈표 3-14〉 교육과정 운영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문항	내용
1.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이 속한 도시나 사회적 상황에 따른 특색 교육과정은 필요. 그러나 조기교육을 조장하는 방식의 인지 중심 교육은 지양될 필요 •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각 기관별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리는 것은 좋으나, 학습 중심이나 인지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코로나19로 2019 개정 유아놀이 중심교육과정의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아, 놀이

	<p>중심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칫 특색활동이 특성화활동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오해로 집단교육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음. • 유치원 알리미에 유치원마다의 특색 교육의 내용, 교육 목표 등이 드러나도록 항목 추가
<p>2.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는 단순히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경쟁 및 사교육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놀이이야기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아들의 유치원에서의 일상이 학부모와 공유되고 있다. 학부모의 유아기 교육경험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인식하기 않고,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음. • 현재 학부모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설득)여부는 각 유치원에 전가되어 있다 해도 무방함. 학부모의 요구(민원)가 많은 경우 결국 타협점을 찾으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반쪽 운영되고 있음. •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자료, 학부모 연수 등으로 인식 개선 필요 •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홍보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임. 유치원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영유아의 역량에 대한 홍보가 현실적일 수도 있음.
<p>3. 다양한 체험 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나 잘못 강조하는 경우 바람직한 교육과 유아가 없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요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의견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인지 중심 교육과정이 되지 않도록 장치는 필요 • 유치원 연간 교육과정을 계획 및 평가를 통하여 건강, 영양, 안전, 인성, 기본생활습관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학부모의 요구를 우선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의 토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음(예: 학부모의 학습지 사용 요구 등). •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과 활동이 되도록 운영,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교육과정 운영 시 학부모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표 3-15〉 4번의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어 지역과 문화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경계. 유치원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교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교육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 초중고 수준의 교원양성과정 도입은 필수적 전제가 되어야 함. • 유아기 발달에 통학,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 급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함 • 초중등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점에 유치원 교육과정도 개정이 되어 유초 중 교육과정이 함께 연계되어 시기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서울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시에도 연계성 있게 수립이 될 수 있음. • 개정된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각 기관의 특색이 사라졌다는 불만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봄. •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되 유아의 발달권을 동시에 생각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부모 교육·심리적 지원이 필요하겠음 • 통합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의 변화가 있는 만큼 유아교육현장의 자율적인 운영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마)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과 후 특성화 운영 및 활동 다양화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26.7%, ‘타당’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지원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0.0%, ‘보통’과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각각 13.3%, ‘타당하지 않음’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과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46.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의 타당성

단위: 명(%)

문항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M(SD)
1. 방과 후 특성화 운영 및 활동 다양화	8(53.3%)	3(20.0%)	4(26.7%)	-	-	4.3(0.9)
2. 방과 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	7(46.7%)	3(20.0%)	2(13.3%)	1(6.7%)	2(13.3%)	3.8(1.5)
3. 방과 후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	7(46.7%)	7(46.7%)	1(6.7%)	-	-	4.4(0.6)

〈표 3-17〉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문항	내용
1. 방과 후 특성화 운영 및 활동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학부모 요구,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인 특성화 활동 선정이 필요함 • 방과후과정반의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성화활동 과목 선정, 간식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원금이 추가지원 된다면 학부모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수 있음. • 특성화 활동 과목 선정 시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학습 위주의 과목이 우선시 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필요할 것임. 또한 방과 후 특성화 활동과 관련하여 교실 및 공간의 확보, 강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혹은 검증된 국가공인 자격증 과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방과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특성화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유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숙고하여 검토되어야함 • 방과 후 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과 교사의 질에서 그 합당함(교육청 프로그램, 정규교사 교육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임
3. 방과 후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이 필수적이며 확대되어야하는 것은 마땅하나 유아들의 생활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유아나 기관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보다는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강사 관리, 유치원 돌봄 지자체 통합 검토, 지역 다양성 반영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표 3-18〉 5번의 추가의견

- 기존의 방과 후 과정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므로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함. 명칭 통일 필요(예: 에듀케어, 오후에듀케어, 온종일돌봄, 종일제 등)
- 집과 유치원 근처에 자연적인 놀이터 조성 및 유치원 공간의 시설개선 정책 필요
- 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제공 필요
-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바) 교육복지 및 재정

교육복지 및 재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수 통합 유치원 및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33.3%, ‘보통’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 교육대상 유아배치계획수립의 필요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특수학급에 유아의 연령별로 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26.7%, ‘타당’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을 공·사립 유치원에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이 각각 13.3%로 나타났다. 다문화 및 사회적 배려 유아에 대한 배려와 연계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0.0%, ‘보통’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확보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0.0%로 나타났다.

〈표 3-19〉 교육복지 및 재정의 타당성

단위: 명(%)

문항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M(SD)
1. 특수 통합 유치원 및 특수학급 증설 등	9(60.0%)	5(33.3%)	1(6.7%)	-	-	4.5(0.6)
2.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계획 수립 필요	13(86.7%)	2(13.3%)	-	-	-	4.9(0.4)
3. 유아특수학급에 연령별로 교사 배치	9(60.0%)	2(13.3%)	4(26.7%)	-	-	4.3(0.9)
4. 특수학급을 공·사립 유치원에 확대하는 방안 마련	9(60.0%)	2(13.3%)	2(13.3%)	2(13.3%)	-	4.2(1.1)
5. 다문화 및 사회적 배려 유아에 대한 배려·연계 프로그램 강화	11(73.3%)	3(20.0%)	1(6.7%)	-	-	4.7(0.6)
6.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확보	12(80.0%)	3(20.0%)	-	-	-	4.8(0.4)

〈표 3-20〉 교육복지 및 재정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문항	내용
1. 특수 통합 유치원 및 특수학급 증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특수학급의 증설과 유아특수 교사 확보가 필요함 • 경계선 발달의 유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함 • 각 기관의 상황과 행정 등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함
2.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계획 수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특수유아에 비해 배치될 학급이 매우 적고, 교사1인이 특수유아를 포함한 학급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특수학급 증설 보다는 융통성 있는 배치계획이 현실적임
3. 유아특수학급에 연령별로 교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유아가 총 연령별로 3명인 경우에도 특수교사가 3명이 배치되어야하는데 매우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유아특수전공교사나 유아특수교사 확충 등으로 고려되어야함
4. 특수학급을 공·사립유치원에 확대하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선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기관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나 기관별 상황 등에 따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 • 타당한 방안이나 사립 유치원의 특성과 사립 학부모 등의 특성 상 실현 가능성이 낮음, 학령 아동 감소 추세이므로 향후 병설 유치원에 특수 학급을 증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수학급은 각 기관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편성 운영되어야 함.
5. 다문화 및 사회적 배려 유아에 대한 배려·연계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유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부모, 자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함. • 다문화 가정의 부정적인 양육으로 인해 유아들의 사회정서 발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실정임으로 이를 반영한 정서적 측면의 지원도 필요함.
6.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충분한 총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나, 기관 수준향상, 관리 감독, 관련 법안 제정 등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3-21〉 6번의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 학부모들까지도 수용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교육환경이 필요함 • 현재 시행되고있는 서울시의 다양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기관에 홍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적문명으로 전환으로의 고려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필요할 때임 • 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한 전방위적인 다양하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교사의 인건비, 학부모 부담 등의 현장 개선이 따라야 할 것임
--

사) 시설 및 환경

유치원 시설 및 환경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의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6.7% 순으로 나타났다.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0.0%, ‘타당하지 않음’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하지

않음'이 13.3%, '타당'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ICT와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이 46.7%, '타당'과 '보통'이 2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시설 및 환경의 타당성

단위: 명(%)

문항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M(SD)
1.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	11(73.3%)	4(26.7%)	-	-	-	4.7(0.5)
2.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	11(73.3%)	3(20.0%)	-	1(6.7%)	-	4.6(0.8)
3.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12(80.0%)	1(6.7%)	-	2(13.3%)	-	4.5(1.1)
4. 유치원 ICT,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	7(46.7%)	4(26.7%)	4(26.7%)	-	-	4.2(0.9)

〈표 3-23〉 시설 및 환경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문항	내용
1.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학교 설계계획에 의한 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지진,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이 강조되는 실정에 노후시설 개선이 재고되어야 함 시설 개선 사업과 같은 예산을 설계하여 유치원에 지원되어야 함
2.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발달을 고려하여 1인당 면적률이 확장되어야 하며 감염병, 다양한 유치원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오래된 유치원 등 공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 실외 활동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
3.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근무여건 환경 개선 및 협의회, 휴게실 공간의 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오래된 유치원, 작은 공간의 유치원 등 공간의 한계가 존재함으로 신축유치원 설계에 있어 계획되어야함
4. 유치원 ICT,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 디지털 기기 확산 등 필요성은 충분한 상태이나 에듀테크 기술 활용 능력, 디지털 활용 여건, 교사 연수, 개선비 등은 부족한 실정임 유아의 디지털 사용은 과의존 문제, 실물중심, 경험중심 교육의 필요성, 발달 단계 등의 고려를 바탕으로 순차적이고 적절하게 반영되어야함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실내와 환경 실태 점검이 필요함. 플라스틱 기반의 실내 환경은 필히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함. 서울의 사립유치원 경우 20~40년 된 시설의 대부분임. 공립의 시설문제 검토 시 사립도 같은 유치원으로써 다른 유아들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함.

〈표 3-24〉 7번의 추가의견

- 유치원 실내와 환경 실태 점검이 필요함. 플라스틱 기반의 실내 환경은 필히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함.
- 서울의 사립유치원 경우 20~40년 된 시설의 대부분임. 공립의 시설문제 검토 시 사립도 같은 유치원으로 써 다른 유아들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함.

아) 행정 및 전달체계, 관련 정책

행정 및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단계를 학교급으로 인정하는 조직개편 필요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9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20.0%, ‘매우 타당하지 않음’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100%로 응답자 전원이 ‘매우 타당’으로 응답했다. 유치원 ICT와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33.3%, ‘보통’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을 승격하여 전 진흥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는 ‘매우 타당’으로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타당’이 13.3%, ‘보통’과 ‘타당하지 않음’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행정 및 전달체계, 관련 정책의 타당성

단위: 명(%)

문항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M(SD)
1. 유아교육단계를 학교급으로 인정하는 조직개편 필요	14(93.3%)	1(6.7%)	-	-	-	4.9(0.3)
2. 유아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11(73.3%)	3(20.0%)	-	-	1(6.7%)	4.5(1.1)
3. 유아학교 명칭 변경	15(100.0%)	-	-	-	-	5.0(0.0)
4. 서울유아교육진흥원 승격하여 전 진흥원 통합 관리	11(73.3%)	2(13.3%)	1(6.7%)	1(6.7%)	-	4.5(0.9)

〈표 3-26〉 행정 및 전달체계, 관련 정책의 타당성 관련 기타 의견

문항	내용
<p>1. 유아교육단계를 학교급으로 인정하는 조직개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초중고와 유사 수준으로 행정조직 확대개편의 필요 • 유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초등도 없음, 유아교육이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직화되고, 지원되어야 함. •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시 교원 및 사학정책과에 유아인사팀이 포함되고, 유치원 사립 인사업무도 사학팀에서 유치원 업무도 하도록 개편되어야 함. 유아교육과도 교육과정, 인사팀, 생활교육팀, 유아교육지원팀이 인사업무는 교원 및 사학정책과로 가고, 교육과정 팀으로 분리되어야 함. 유아장학사 증원을 통하여 기능중심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각 조직(예: 정책안전기획관, 행정관리 담당관, 감사관실, 교육혁신과, 민주생활시민교육과, 연구정보원 등)에 유아 장학사 배치 필요
<p>2. 유아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무상교육은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함. • 특색 있는 사립유치원의 존립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의무교육에 걸맞은 학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기관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필요함. 즉 국공립유치원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은 법인화, 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등을 활용하여 의무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법령 개정으로 교육부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실시한 근거 마련
<p>3. 유아학교 명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과정의 일환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명칭 변경과정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 • 명칭공모를 통해 진행할 것 •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반드시 필요함. • 단순한 명칭 변경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p>4. 서울유아교육진흥원 승격하여 전 진흥원 통합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이나 보육 등 한쪽에 치우친 인선이나, 인맥 등의 관계망을 통한 정치적 작용으로서의 유아교육정책 설정이 아닌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보통합 기구로서도 국립중앙유아교육원의 창설은 시급한 과제임. • 교육부에서 국립중앙유아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도별 유아교육진흥원 준치 • 연구기능과 미래 유아교육을 위한 통합 관리 조직 구성은 바람직한 방안임. • 진흥원의 승격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진흥원의 추가 개원이 필요함. 현재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음.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이 진흥원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거리상의 문제점들이 있음. 교직원, 유아, 학부모의 접근성이 좋도록 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의 수가 늘어야 함. •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 기능 중심의 업무에서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억지 주장이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됨. • 논의의 초점은 현 시점에서 사립의 지원 요구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 있는 정책과 지원 대책 마련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두어야 하며, 대책 마련과 정책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인력 증원을 논해야 함.

〈표 3-27〉 8번의 추가의견

- 학령인구감소시대,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할 수 없음.
- 효율성과 교육의 질 제고라는 점에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은 시급한 과제. 본 연구는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개선을 목적에 두나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염두에 두고 국립중앙유아교육원 등 조직 구성 및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
- 학사, 건강 안전, 급식, 인사 등의 업무가 유아교육정책과가 아닌 기능중심의 부서에서 일괄 안내된다면 시도교육청의 업무 시 어려움이 감소될 듯함.
-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다양한 부모교육, 조부모교육, 또한 양육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점이 필요
- 유아교육에 대한 새로운 홍보 전략이 요구됨.
- 최소한 교사들의 고용보장만큼은 국가와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 중 가장 우선적인 대책은 무상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 이에 따른 정책 반영도 속히 이루어져야 함.

3. 교직원 의견 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1) 응답자 특성

총 321명의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여성이었으며(97.5%), 남성은 소수였다(2.5%).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각각 2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로 23.7%였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학원이상 졸업 40.8%, 4년제 대학 졸업 38.6%, 전문대학 졸업 20.6% 순이었다.

근무하는 기관의 유형은 국공립 단설이 10.0%, 공립병설이 30.5%, 사립 법인이 22.1%, 사립 사인이 37.4%였다. 직위는 교육과정반 담당교사가 4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원장으로 23.7%였다. 교육경력은 21년 이상이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년 이하 26.2%였다. 담당 영유아 연령은 비담임 36.1%, 만5세 23.1%, 만4세 19.0%, 만3세 16.5%, 혼합연령 5.30% 순이었다. 기관이 소속된 구는 노원구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성북구 9.7%였다.

〈표 3-28〉 교직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특성		빈도(비율)
전체		321(100.0)
응답자 성별	남자	8(2.5)
	여자	313(97.5)
응답자 연령	20대	69(21.5)
	30대	94(29.3)
	40대	76(23.7)
	50대	62(19.3)
	60대	16(5.0)

	70대 미응답	2(0.6) 2(0.6)
응답자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이상 졸업	0(0.0) 66(20.6) 124(38.6) 131(40.8)
기관 유형	국공립 단설 공립병설 사립 법인 사립 사인	32(10.0) 98(30.5) 71(22.1) 120(37.4)
직위	교육과정반 담당교사 방과 후과정 담당교사 원장 원감	160(49.8) 47(14.6) 76(23.7) 38(11.8)
교육경력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84(26.2) 68(21.2) 36(11.2) 34(10.6) 99(30.8)
담당 영유아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연령 비답임	53(16.5) 61(19.0) 74(23.1) 17(5.3) 116(36.1)

2) 조사절차 및 조사지 내용 구성

교직원 설문 조사지 내용구성은 선행연구, FGI면담 결과, 관계 전문가 의견, 정책포럼 등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1차 조사 기간은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교직원 설문 조사지의 내용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9〉 교직원 설문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문항	구성내용
1	서울 유치원 기관 지속가능성 현황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원아 모집의 어려움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향후 5년~ 10년 사이 지속가능성 수준 - 출생아수 감소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2	정책개선방안	-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정책의 적합도 - 인력 및 배치 정책의 적합도 -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영역 정책의 적합도 - 교육과정 운영 영역 정책의 적합도 - 방과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영역 정책의 적합도 - 교육복지 및 재정 영역 정책의 적합도 - 시설 및 환경 영역 정책의 적합도 - 교육청 조직 및 전달체계 영역 정책의 적합도

나. 서울 유치원 기관 지속가능성 현황

근무하는 유치원이 현재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10.3%는 ‘전혀 그렇지 않다’, 20.2%는 ‘별로 그렇지 않다’, 19.3%는 ‘보통이다’, 23.1%는 ‘대체로 그렇다’, 27.1%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평균은 3.36이었다.

〈표 3-30〉 근무하는 유치원의 원아모집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근무하는 유치원의 원아모집 어려움	33(10.3)	65(20.2)	62(19.3)	74(23.1)	87(27.1)	3.36(1.3)

근무하는 유치원의 지속가능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물음에 14.6%는 ‘매우 낮다’, 18.7%는 ‘낮다’, 33.3%는 ‘보통이다’, 25.9%는 ‘높다’, 7.5%는 ‘매우 높다’라고 답하였다. 평균은 2.93이었다.

〈표 3-31〉 근무하는 유치원의 지속가능성 수준

단위: 명(%)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M(SD)
근무하는 유치원의 지속가능성 수준	47(14.6)	60(18.7)	107(33.3)	83(25.9)	24(7.5)	2.93(1.2)

출생아 수 감소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학급편성 시 최소인원 미달로 교사 정원 감축 우려(36.4%)였다. 그 다음은 원아모집 미달의 책임을 교사들이 져야한다는 부담감(28.0%), 유치원 폐원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21.8%), 학급당 유아수가 너무 적어 교육활동이 운영이 어려움(8.1%), 기타(5.6%) 순이었다.

〈표 3-32〉 출생아 수 감소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항목	빈도
학급편성 시 최소인원 미달로 교사 정원 감축 우려	117(36.4)
학급당 유아수가 너무 적어 교육활동이 운영이 어려움	26(8.1)
원아모집 미달의 책임을 교사들이 져야한다는 부담감	90(28.0)
유치원 폐원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	70(21.8)
기타	18(5.6)

다. 정책개선방안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영역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6개 문항의 전체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1로 중간 이상의 인식 수준을 보였다. 문항별로는 폐원 유치원 재구조화 방안 추진(3.58), 원아 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제고 필요(3.70), 사립유치원 퇴로마련(3.45)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입형 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퇴로마련의 경우에는 2.72의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3-33〉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영역 정책 적합도

단위: 명(%)

문항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M(SD)
1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정책은 계속 추진	96(29.9)	37(11.5)	65(20.2)	38(11.8)	85(26.5)	2.93(1.6)
2 공립유치원 단계적 재구조화 중장기방안 설계 필요	71(22.1)	57(17.8)	80(24.9)	71(22.1)	42(13.1)	2.86(1.3)
3 폐원 유치원 재구조화 방안 추진	33(10.3)	20(6.2)	72(22.4)	120(37.4)	76(23.7)	3.58(1.2)
4 원아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제고 필요	32(10.0)	24(7.5)	51(15.9)	114(35.5)	100(31.2)	3.70(1.3)
5 매입형 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퇴로마련	89(27.7)	63(19.6)	68(21.2)	50(15.6)	51(15.9)	2.72(1.4)
6 사립유치원 퇴로마련	51(15.9)	20(6.2)	77(24.0)	80(24.9)	93(29.0)	3.45(1.4)
전체						3.21(1.4)

인력 및 배치 영역의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90이었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교사, 비담임교사 배치 기준 마련(4.24), 사립유치원 교사 법적지위보장, 처우개선 강화, 내부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마련(3.98)이었다. 사립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정책 현실화는 3.73의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3-34〉 인력 및 배치 영역 정책 적합도

단위: 명(%)

문항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M(SD)
1	학급정원 감소 정책 적극 추진	34(10.6)	26(8.1)	40(12.5)	60(18.7)	161(50.2)	3.90(1.4)
2	사립유치원 행정 인력 지원 정책 현실화	36(11.2)	19(5.9)	65(20.2)	76(23.7)	125(38.9)	3.73(1.3)
3	영양교사 배치가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가능한 기준 마련	29(9.0)	14(4.4)	60(18.7)	104(32.4)	114(35.5)	3.81(1.2)
4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 교사, 비담임교사 배치 기준 마련	6(1.9)	12(3.7)	46(14.3)	91(28.3)	166(51.7)	4.24(1.0)
5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42(13.1)	22(6.9)	48(15.0)	59(18.4)	150(46.7)	3.79(1.4)
6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력 1명 증원	32(10.0)	14(4.4)	65(20.2)	63(19.6)	147(45.8)	3.87(1.3)
7	사립유치원 교사 법적지위보장, 처우개선 강화, 내부 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마련	22(6.9)	10(3.1)	56(17.4)	96(29.9)	137(42.7)	3.98(1.2)
전체							3.90(1.3)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영역의 전체 평균은 3.40이었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매식/위탁 운영의 교육지원청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3.73),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기간제 교사(또는 대체교사) 지원 제도 확립(3.49), 전염병 시기 긴급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3.91)이었다. 공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은 2.59의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3-35〉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영역 정책 적합도

단위: 명(%)

문항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M(SD)
1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매식/위탁 운영의 교육지원청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28(8.7)	15(4.7)	82(25.5)	88(27.4)	108(33.6)	3.73(1.2)
2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기간제 교사(또는 대체 교사) 지원 제도 확립	52(16.2)	24(7.5)	68(21.2)	68(21.2)	109(34.0)	3.49(1.4)
3	공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	117(36.4)	30(9.3)	82(25.5)	52(16.2)	40(12.5)	2.59(1.4)
4	전염병 시기 긴급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18(5.6)	14(4.4)	66(20.6)	105(32.7)	118(36.8)	3.91(1.1)
5	혼합연령반 운영에 관한 중장기 방안 모색	47(14.6)	25(7.8)	101(31.5)	85(26.5)	63(19.6)	3.29(1.3)
전체							3.40(1.3)

교육과정 운영 영역의 전체 평균은 4.0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4.29),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강화로 학교준비 및 적응 교육 강화(4.15)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보다 낮은 문항은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다양화(4.01),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3.98), 2019 개정누리과정 개정 및 누리과정 명칭 변경(3.75)순이었다.

〈표 3-36〉 교육과정 운영 영역 정책 적합도

단위: 명(%)

문항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M(SD)
1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다양화	17(5.3)	13(4.0)	49(15.3)	114(35.5)	128(39.9)	4.01(1.1)

2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	7(2.2)	8(2.5)	36(11.2)	105(32.7)	165(41.4)	4.29(0.9)
3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6(1.9)	20(6.2)	63(19.6)	117(36.4)	115(35.8)	3.98(1.0)
4	유-초연계 교육과정 운영 강화로 학교준비 및 적응 교육 강화	5(1.6)	7(2.2)	54(16.8)	125(38.9)	130(40.5)	4.15(0.9)
5	2019 개정누리과정 개정 및 누리과정 명칭 변경	14(4.4)	18(5.6)	98(30.5)	95(29.6)	96(29.9)	3.75(1.1)
전체							4.04(1.0)

방과 후 과정 운영 영역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의 평균은 3.90이었다. 방과 후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3.69)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전체 평균 이상이였다. 평균 이상의 문항은 방과 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4.00), 방과 후 특성화 운영 및 활동 다양화(3.99), 원아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제고 필요(3.93) 순이었다.

〈표 3-37〉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영역 정책 적합도

단위: 명(%)

문항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M(SD)
1	방과 후 특성화 운영 및 활동 다양화	17(5.3)	12(3.7)	65(20.2)	89(27.7)	138(43.0)	3.99(1.1)
2	방과 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	22(6.9)	12(3.7)	56(17.4)	85(26.5)	146(45.5)	4.00(1.2)
3	방과 후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	31(9.7)	28(8.7)	61(9.0)	90(28.0)	111(34.6)	3.69(1.3)
4	원아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제고 필요	17(5.3)	13(4.0)	70(21.8)	95(29.6)	126(39.3)	3.93(1.1)
전체							3.90(1.2)

교육복지 및 재정 영역의 분석 결과, 6개 문항의 전체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06이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배치계획 수립 필요(4.10), 유아특수학급에 연령별로 교사를 배치하여 교사가 학급당 나누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4.23),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충분한 확보(4.35)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급을 공립, 사립유치원에 모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경우에는 3.80의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3-38〉 교육복지 및 재정 영역 정책 적합도

단위: 명(%)

문항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M(SD)
1	특수 통합 유치원 및 특수학 급 증설 등	10(3.1)	23(7.2)	80(24.9)	105(32.7)	103(32.1)	3.83(1.1)
2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요를 정 확하게 파악하는 특수교육대 상 유아배치계획 수립 필요	5(1.6)	8(2.5)	59(18.4)	126(39.3)	123(38.3)	4.10(0.9)
3	유아특수학급에 연령별로 교 사를 배치하여 교사가 학급당 나누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	6(1.9)	9(2.8)	52(16.2)	91(28.3)	163(50.8)	4.23(0.9)
4	특수학급을 공립, 사립유치원 에 모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7(8.4)	21(6.5)	60(18.7)	94(29.3)	119(37.1)	3.80(1.2)
5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배려 유아와 가족에 대한 공립 유 치원의 섬세한 배려, 연계 프 로그램 강화	12(3.7)	11(3.4)	59(18.4)	114(35.5)	125(38.9)	4.02(1.0)
6	원아 1인당 충교육비 등의 충분한 확보	4(1.2)	4(1.2)	48(15.0)	86(26.8)	179(55.8)	4.35(0.9)
전체							4.06(1.0)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전체 평균은 3.99이었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제고(4.04), 유치원 ICT,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4.15)이었다.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는 3.78의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3-39〉 시설 및 환경 영역 정책 적합도

단위: 명(%)

문항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M(SD)
1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	35(10.9)	20(6.2)	53(16.5)	85(26.5)	128(39.9)	3.78(1.3)
2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 확대	16(5.0)	18(5.6)	62(19.3)	85(26.5)	140(43.6)	3.98(1.1)
3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제고	16(5.0)	16(5.0)	56(17.4)	85(26.5)	148(46.1)	4.04(1.1)
4	유치원 ICT, 디지털 활 용 여건 개선	8(2.5)	14(4.4)	55(17.1)	90(28.0)	154(48.0)	4.15(1.0)
전체							3.99(1.2)

교육청 조직 및 전달체계 영역의 전체 평균은 4.14로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보다 높은 문항은 유아교육 단계를 학교급으로 인정하는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필요

(4.25), 유아무상교육 우선적 실현(4.21), 유아학교 명칭 변경(4.37)이었다. 만5세 의무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은 3.74의 가장 낮은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3-40〉 교육청 조직 및 전달체계 영역 정책 적합도

단위: 명(%)

문항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M(SD)
1	유아교육 단계를 학교급으로 인정하는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 필요	14(4.4)	6(1.9)	55(17.1)	58(18.1)	188(58.6)	4.25(1.1)
2	만 5세 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49(15.3)	25(7.8)	45(14.0)	44(13.7)	158(49.2)	3.74(1.5)
3	유아무상교육 우선적 실현	12(3.7)	11(3.4)	56(17.4)	59(18.4)	183(57.0)	4.21(1.1)
4	유아학교 명칭 변경	6(1.9)	3(0.9)	57(17.8)	54(16.8)	201(62.6)	4.37(0.9)
전체							4.14(1.2)

4. 정책 토론회 의견 수렴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서울 유아교육에 관여하는 주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2022년 10월 15일(토)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시행한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였다(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은 학령인구감소 자체에 적응하는 방법과 유치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극복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학급 정원을 감소하는 방안과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비담임 교사 배치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유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행, 단설유치원의 확대,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을 언급하였다.

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은 공립병설 유치원의 경우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서울 학급당 유아 수 유아배치지표의 문제점과 교육 외 서비스에 대해 지원인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9월 21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이 조직개편에서 홀대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이해관계자보다 공동양육자의 관점에서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학교 명칭에 대한 이견, 1교실 2교사제 제안, 공립유치원 환경 개선, 사립유치원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 유아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의 의무성을 강조하였다.

유아교육개선을 위한 유아교사연합 대표 교사는 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초중고 교원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미비한 법적 제도로 행정력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사 관련 근로계약서, 육아휴직제도 등의 문제점들도 꼬집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서울 유아특수교육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의무교육기관 확충,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계획 개선, 국/공/사립 유치원으로 특수학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교육혁신위원장은 유아교육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하며 행정인력 지원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사립 상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은 정원충족률 미달의 문제, 소인수 기관의 문제 등에 대해 논하였으며, 행정교사 배치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의 필요성, 초등 유희교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특수학급 운영방안, 경계선 유아 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위의 토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병설유치원 통폐합 및 재구조화의 필요성, 사립유치원 규제의 유연화 등을 강조하였다. 저출생 현상 완화를 위해 휴직수당제나 부모 육아의무제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표 3-41〉 4차 정책토론회 ‘학령인구 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실태와 미래 전망’

토론자	내용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폐원,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소인수 학교 문제 등의 위기 속에서 진취적인 해법을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열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서울 국공립유치원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 충원률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에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 ② 학급정원 감소 정책안은 공사립 막론하고 이뤄져야 할 대비책 ③ 비담임교사 배치 시 처우, 교육경력인정 문제 등 제도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④ 방과 후 과정에서 교육활동과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거 특별활동 인정제와 같이 유아에게 적합한 소수의 특별활동을 실시하도록 개방해주는 방안이 필요함. - 서울 사립유치원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교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 ② 유아 감소로 수익자 부담금이 감소하게 되어 양질의 교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토론자	내용
	<p>입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을 인상하여 교사의 질 보전이 반드시 필요함.</p> <p>③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재원 지원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정책 방식이라 고려됨.</p> <p>④ 사립유치원 교원의 행정적·법제적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고, 고정력 사립유치원 교원의 지속적 근무를 위한 교사인건비 지원이 필요함.</p> <p>- 서울 유아특수교육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 방향</p> <p>① 초등 유휴교실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특수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다만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유아가 부족해질 수 있음.</p> <p>②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계획 필요에 동의하며, 이 계획안에는 진단되지 않은 경계선 유아에 대한 지원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p>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회	<p>- 학령인구감소 추세의 지속과 유치원 폐원 및 학급수 감소로 인하여 교사 정원 감소 추세</p> <p>- 충원을 제고를 위해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행 중인 상황</p> <p>- 학급 유아 수가 너무 적어 유아의 또래 관계 경험미 부족할 우려 및 통학버스 배정 시 관련 업무 인력과 여유 부족으로 안전사고 우려</p> <p>- 서울공립유치원 교원 대상 문제 해결방안 의견 설문 결과 【① 학급정원 감소, ② ‘유아학교’ 명칭 변경, ③ 비담임교사 배치, ④ 단설유치원 확대, ⑤ 유치원 시설 및 환경 개선, ⑥ 유치원 운영 개선(방과 후과정, 특색교육, 특별활동), ⑦ 공립유치원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같은 의견 도출</p> <p>-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학령인구감소 자체에 적응하는 방법’과 ‘유치원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령인구감소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p> <p>가. 체질 개선으로 학령인구감소 적응</p> <p>① 학급정원 감소: 원아 몰림 현상을 완화, 유치원 폐원 상황을 개선하여 폐원으로 인한 특정 위치 유아들의 유치원 취원 곤란 문제와 교사의 실직 및 취업률에 대한 문제 대응 가능</p> <p>② ‘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육기관으로서 입지와 공공성 강화 효과</p> <p>③ 비담임교사 배치: 교사 대 유아 비율의 불균형 해소 및 특색활동, 업무분담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유아교육과정 운영 가능</p> <p>나. 경쟁력 강화로 학령인구감소 극복</p> <p>① 공립 통학버스 운행: 등원 가능 지역 확대</p> <p>② 단설유치원 확대: 폐교 부지 활용 혹은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확대가 바람직</p> <p>③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교육과정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만족도 증진</p>
서울교사노조	<p>- 유치원 내 특수교육대상영유아수는 2013년 4,768명에서 2018년 6,212명으로 6천명대를 넘어서 2021년 7,566명, 2022년에는 8,60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p> <p>-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이나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8.3%에 불과함. 이에 의무교육 기관 확충이 필요함.</p> <p>-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수가 늘고 있기는 하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유아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됨.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계획이 필요함.</p> <p>- 서울시 유치원 내 특수학급은 모두 공립유치원에 인가되어 있고, 그 수도 현저히 적음. 집 가까이 유치원이 있어도 특수학급이 있는 곳으로 배치되며 통학시간이 길어지는 상황. 이에 따라 국·공·사립 유치원으로 확대가 필요함.</p>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p>-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을 갖춘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이 부족하며, 특히 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인 병설유치원의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직접적 노력이 필요함.</p> <p>- 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의 완전한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p>

토론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통학버스, 방과 후과정 특성화 활동, 장시간 돌봄과 같은 ‘교육 외 서비스’에 대해 공립유치원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교사들에게 업무부담과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교육 외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한 교사 외 지원 인력이 필요함.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업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특성화 활동의 경우 필요성에 따라 시행하되, 유아 발달 고려하여 인지 중심의 특성화 활동을 지양하고 문·예·체 중심의 활동을 구성하는 방향 - 특성화 활동의 지침이 공립유치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부에서부터 유아교육 관련 부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저출생의 사회·경제·문화적인 근본적 원인에 대해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교육계에서도 교육계 내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p>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p>	<p><학령인구감소시대, 공사립유치원의 미래는 적극적인 국가 정책지원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우리나라 미래 인재를 양성할 학교 체제로서의 명확한 정체성 인식을 구축하고 학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서울시교육청이 9월 발표한 ‘유아배치지표 개선사항 및 공립유치원 적정학급 관리 방안 알림’은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원아모집이 안 되어 학급 정원을 감소시켰다는 측면보다는 본질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동안 염원해왔던 교사 대 유아 수의 비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하며 발전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및 재구조화가 필요함.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단설유치원과 비교하여 시설, 규모 등에서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음. 유휴교실도 늘어날 것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단설유치원만큼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소규모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겸임하는 구조가 아닌 유아교육 전공의 원장이나 원감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명의 원장·원감이 소수 몇 개의 병설유치원을 맡아 순회하며 관리·지원하는 통합순회 원장·원감 제도의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음. - 공립 통학버스 운행은 현재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분석 및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운행의 방법으로 유치원별 운영, 초등학교와의 통합운영, 교육청 관할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사립유치원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함. 2022년 서울시 공립유치원 수는 293개, 사립유치원 수는 495개인데 통계청 추정치에 의하면 5~6년 정도면 그 수치가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폐원해도 용도변경이 안되어 흉물이 되기보다는 사립유치원 감소의 추정치로 적정 용도변경 등의 유연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보장은 법적 근거에 맞게 행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교원 신분인 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아닌 개인감정 등의 사유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 보장과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함.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은 교원지위법에 의해 국공립유치원 수준과 편차를 크지 않게 쳐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교사들도 있는 것이 현실임. 사립유치원의 현실적인 원아 수 감소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의 임금은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토론자	내용
	<p>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확실한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과정반 및 특성화 활동에 대한 다양화·자율적 활성화를 인정해야 함.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조기인지교육이 아닌 문예체 중심 등 자율적 활성화를 인정하여 질적 돌봄 및 돌봄 시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과정 밖의 프로그램으로 더 자율적인 측면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해당 담당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양질의 교육적 활동과 돌봄 시간을 안정화해야 하며, 교육과정반과 방과 후 과정반·특성화 활동은 연계성보다는 독자적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교육과정반 담임교사가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특수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요구 지원을 해야 하기에 지원범위가 넓고 획일화된 기관형태로는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우선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진단하고 선정하여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정책적으로 필요함. -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생이 원인, 우리나라도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코와 같은 휴직수당의 출산 친화적 정책을 시행해야 함. 부모는 국가의 적극적인 휴직수당제 지원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 어려움 없이 1~2년을 직접 키우는 의무를 가지며 개인의 행복한 가정과 국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제도를 '부모 육아 의무제'라 가칭하며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정금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정원을 줄여 여러 유치원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이 필요함. 통학 버스 운영 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아들까지 포함시켜 동선을 줄이는 방법과 강제 배정이 아닌 양육자의 선택권 보장에 대한 대안 등이 필요해 보임. -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있어서 '학교=공부하는 곳'이라는 양육자의 거부감을 해소해야 되는 과제가 있음. - 비담임교사 배치는 가능한 빨리 시행되어야 함. 1교사 2교사제는 유아의 발달 단계상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없애는 데에 동의.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뿐만 아니라 원아의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청 시스템 적용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공립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 의견에 동의. 병설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교육'과 '교육 외 서비스'라는 구별에 있어 학부모와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
유아교육개선을 위한 유아교사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인건비·재료비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지급, 공립유치원과 다른 연차사용제도, 급여삭감,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학연금제도로 인한 불이익, 경력증명서로 인한 이직(취업)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 있음. - 사립유치원 교사의 법적지위 불분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및 고경력 교사에 대한 기피 현상은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짐. - 유아교육계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법·행정력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한국사립유치	〈지속가능한 공·사립 유치원 균형 발전 방안〉

토론자	내용
원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규제 철폐의 필요성: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법과 정책을 과감히 철폐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 지원이 필요 - 창의성을 높이는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유치원의 자율적인 운영 적극 지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없애야 함: 무상교육의 전면적 확대 시행 - 교사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국가의 공공적 책임 강화 - 유아교육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의 필요성: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교사 인건비 지원과 학부모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함.

주: 연구진이 정리.

IV. 학령인구감소 대응 서울 공사립유치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감소시대의 지속가능한 서울 공사립 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저출생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2022년 서울 특별시는 합계출산율이 0.63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0.75) 보다 낮은 수치이다. 청년인구 거주비율이 높음에도 여전히 지방소멸위험 분류 기준상 6개의 구를 제외하고 다 '주의'에 해당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또한 여성고용률이 53%이고,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21년 기준 약 40%이다. 즉, 서울특별시는 출산율이 낮더라도 맞벌이 부모, 일하는 엄마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도시이다. 공공성 높은 유치원과 종일제 교육과 보육, 육아휴직 등의 통합된 교육보육 서비스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와 FGI 분석 결과, 일반 통계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서울 공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유아 수 및 학급 수 감소로 교직원과 학부모, 관리자 모두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소멸지수도 주의 단계이므로, 교육청과 지자체는 협력하여 영유아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에 보다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원아모집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교직원 근무와 처우, 전망이 불안정함과 이로 인한 운영비나 시설지원의 제한으로 연결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중장기 유치원 운영방안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의 흐름 앞에 공사립 유치원의 구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과 대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할 때이다.

정책제언은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인력 및 배치,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교육복지 및 재정, 시설 및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가.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충족

1) 현황 및 문제인식

2022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293개, 사립이 495개이며, 전체 788개원이다. 서울시 전체 유치원의 62.8%가 사립유치원이며, 이용 유아수를 살펴보면, 공립 15,971명, 사립 50,553명으로 전체 유치원 이용 유아 중, 75.9%가 사립에 재원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정책이 서울시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공립 유치원의 전년도 대비 유아 수 감소율은 4.5%이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대비 유아 수 감소율은 5.04%로 사립 유치원의 감소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서울시 내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수는 만 5세반을 제외하고 전국 유치원 평균보다 높았다. 취원율의 경우, 서울의 취원율은 23.9%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 정책방향

- 유치원 단계적 재구조화 중장기방안 설계 필요
- 폐원 유치원 재구조화 방안 추진
- 원아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제고 필요
- 매입형 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 확대
- 사립유치원 퇴로마련

우선 유치원 단계적 재구조화와 중장기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공립사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추후 유아 완전무상교육이 제도화 될 것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립유치원의 통폐합도 예상되므로, 병설유치원 통합을 통한 단설유치원의 확대 정책, 동마다 공립유치원 설립 정책 등 공립 유치원을 내실화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높으므로, 사립 유치원 정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상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사립교사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유치원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과감한 퇴로 마련, 폐원 매입형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었으나, 보통 이상의 동의를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아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원아수용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율이 높은 편이므로, 기관 수를 더 늘리는 정책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기존의 기관의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인력 및 인력 배치

1) 현황 및 문제인식

서울 유치원 교사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학급편성 시 최소 인원 미달로 교사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으며, 원아모집이 안되면 교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감, 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면 장차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염려

하고 있었다.

서울 유치원은 정원이 만5세를 제외하고 다소 높은 편이며, 줄어나갈 필요가 있고, 정원의 조정은 유아들에게 매우 필요하나,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와 연동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펴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투담임제와 비교할 때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1명이 만 5세 24명의 유아를 전담하는 것은 교육의 구조적 질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행정인력 지원, 영양사 배치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 법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는 점, 내부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마련 등은 실제로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유아담당 장학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공립유치원 정원충족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학버스 이용, 방학 중 급간식 매식, 위탁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이 부재하므로,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 학급정원 감소 정책 적극 추진
- 사립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정책 현실화
- 영양교사 배치가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가능한 기준 마련
-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교사, 비담임교사 배치 기준 마련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력 1명 증원
- 사립유치원 교사 법적지위보장, 처우개선 강화, 내부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마련

본 연구에서 인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는데,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만 3-4세반의 경우 유연한 보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공립 환경을 고려할 때, 초중등과 마찬가지로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교사 배치가 필요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행정인력지원이 우선 시급하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지원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과밀 학급, 장애위험 유아/특수유아, 다문화 유아, 공영형 유치원 등에 수업지원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교육지원청 별 유아담당 장학사를 1인 증원, 통학버스 및 급간식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직 배치 등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급당 유아 수 정원 미충족 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한 5명, 상한을 12~16명 정도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1) 현황 및 문제인식

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 운영이 되지 않고, 병설의 경우 방학 중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맞벌이 부모들이 비선호하는 주요 원인이며 인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또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방학 중 급간식실은 미운영하고 있으며, 3-4시 하원, 긴 방학은 맞벌이 부모들의 비선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염병 시기 유치원은 학교 맥락에서 문을 닫았으나, 긴급 돌봄 체계 운영하고 부모의 돌봄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매식/위탁 운영의 교육지원청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기간제 교사(또는 대체교사) 지원 제도 확립 - 공사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 - 전염병 시기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혼합연령반 운영에 관한 중장기 방안 모색 |
|--|

현재 서울 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를 활성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학버스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사립 유치원 통학버스 제도를 지원하고, 안전성 조향도 강화하여 공사립 유치원 통학버스 정책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통학버스 운영은 체험학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청 단위에서 계약 사무, 안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방학 중 급식 문제는 학교급식법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나, 학교급식법 상 유치원 별도의 법을 때로 마련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현실 가능한 방안은 매식, 위탁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돌봄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긴 방학의 경우, 돌봄전담사에 맡기는 방안이 적합한지, 기간제 교사를 일부 배치하고 돌봄 전담사와 협력하는 방안이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라. 교육과정 운영 및 돌봄/방과후 과정/특성화교육

1) 현황 및 문제인식

2019개정 누리과정을 하면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고, 놀게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의 확산, 놀이와 학습의 관계와 개념의 비정립 등의 문제로 부모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방과 후 과정 운영시간이 4-5시경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4,5시~6시 사이 유아들이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방과

후 과정에 대한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특성화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정책방향

- 누리과정 특색화, 놀이에 대한 오해 해소
- 방과 후 특성화 운영 및 활동 다양화
- 방과 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
- 방과 후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 유치원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과 유치원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며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한 질 높은 방과 후 급간식, 특성화 프로그램 질 개선을 위해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 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1인 1과목 제도를 수정할 필요도 제기되며, 방과 후 특성화 교육활동의 질 개선이 필요함.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여 발달에 적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이 특성화 운영을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하되, 기준과 점검, 제재 조치방안을 마련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과 후 과정과 하원 시간 사이의 틈새에 유아들이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사교육 확대와 학원 이용 유아의 쉼 권리의 문제,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마. 교육복지 및 재정

1) 현황 및 문제인식

서울 유아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수학급도 증가추세이다.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3년 176명에서 2022년 538명으로 10년 사이 3배 증가하였고, 2013년 40학급이었던 서울 유아 특수학급은 2022년 139학급으로 증가하였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간제 특수학급의 규모는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간제와 특수학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방향

- 특수 통합 유치원 및 특수학급 증설 등
-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배치계획 수립 필요
- 유아특수학급에 연령별로 교사를 배치하여 교사가 학급당 배치되도록 조정
- 특수학급을 공립, 사립유치원에 모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배려 유아와 가족에 대한 유치원의 섬세한 배려, 연계 프로그램 강화
-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충분한 확보

특수학급이 늘고는 있으나, 교실 공간의 확보나 보조인력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수학급 외, 전일제 통합학급이나 시간제 통합학급 수, 특수유아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유아특수학급에 교사를 배치할 때 학급당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가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원아 1인당 총교육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 시설 및 환경

1) 현황 및 문제인식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한 유치원은 252개이고, 40년 이상 경과한 유치원은 77개였는데, 공사립을 구별하지 않고 비교해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유치원 788개의 약 40%가 30년을 경과한 노후 유치원이라는 의미이다. 노후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정과제에도 유아 단계에서 디지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역량의 바탕을 형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 ICT 및 디지털 활용 여건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원아 1인당, 교사 1인당 공간에 대한 실질 면적 현황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
-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 확대
-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제고
- 유치원 ICT,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

공사립 차별을 두지 않고, 30년 이상 경과한 유치원에 과감하게 공간 지원 사업(재구조화,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공간혁신사업 등과 연계할 수도 있으나, 유치원에 집중된 환경 개선 사업을 만들어 공간을 미래교육에 알맞게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실환경 구성, 관리자 및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 및 테크놀로지 이용 가능 환경 구축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사 1인당 공간 활용, 추가 공간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 교육청 조직 개편, 유보통합 및 의무교육

1) 현황 및 문제인식

현재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데(2022. 12), 이 안에는 유아교육과는 개혁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다³⁾.

- 유아교육 단계를 학교급으로 인정하는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필요
- 만 5세 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유아무상교육 우선적 실현
- 유아학교 명칭 변경

2) 정책방향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에서 유아교육단계를 학교급으로 보고 유아교원인사의 독립화, 유아교육과 내 3팀의 명칭과 기능의 측면에서 초중등의 팀과 연계 가능한 수준으로 정렬화(교육과정팀, 방과후과정팀 등), 디지털과 에듀테크 재편과에 유아단계포함, 특수교육과가 학교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에 배속되어 학교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편의 개선 등에 대해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 파트가 학교급에서 확대될 때, 전국적인 파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과를 영유아교육과 오히려 영유아교육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만5세 의무교육에 대해 이견은 있으나, 무상교육의 토대마련에는 모두 동의하였고, 유보통합과 의무교육실현을 위해서라도 유아학교 명칭변경 법안이 우선적일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

3)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67>

2. 정책 과제 및 로드맵

〈그림 4-1〉 정책 비전 및 정책 방향

[정책 비전]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서울형 영/유아학교 구축

-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서울형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경쟁력 제고 가능: 공간 혁신, 기후정의(그린정책), ICT 및 에듀테크 기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형 유아학교 모델 정립
- 공사립유치원의 특장점 강화 및 단점 보완

정책방향 1	정책방향 2	정책방향 3	정책방향 4	정책방향 5	정책방향 6	정책방향 7
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를 통한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충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 지원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방과 후 과정 운영(돌봄 및 특성화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차별 없고, 문화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복지 및 재정 운영	미래 유아학교 구축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 인구정책 및 교육 공공성 기반, 공립유치원 활성화 및 단계적 통폐합을 위한 중장기 방안 설계 필요(향후 5년, 10년 계획 마련 필요)	○ 학급당 유아 수 정원 미충족 공립유치원 학급 유아 수 하한 3-5명, 상한 14-16명 방안 마련 ○ 교과교사 제도 등을 활용한 수업지원 교사 지원 제도 마련	○ 방학 중급간식 매식/위탁 운영의 교육지원청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 방학 중, 기간제 교사(또는 대체교사) 지원 제도 확립 ○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버스 운영 방안 마련	○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다양화 ○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놀이중심교육 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한글 및 수학 교육에 대한 요구)	○ 방과 후 특성화 활동 다양화 ○ 방과 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	○ 특수 통합유치원, 특수학급 강화 방안	○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
○ 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방안 제안: 단설형 병설, 유-초 등 통합학교 모델 등 서울 특색을 반영한 서울형 공사립 상생 모형 개발	○ 교육지원청 장학사 유아담당 인력 1명 증원, 행정직 1명 증원	○ 전염병 시기 긴급 돌봄 체계 구체방안 마련 ○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에서 유아교육과 학교급 인정 방향으로 개편	○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돌봄의 교육기능 강화	○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배려 유아와 가족에 대한 섬세한 배려, 연계 프로그램 강화	○ 원아 1인당/교사 1인당 공간 면적 개선
○ 유아학교 명칭병정으로 의무교육 및 단계적 유보 통합 준비					○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충분한 확보	○ 유치원 ICT,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

〈 참고 문헌 〉

■ 연구논문

- 김은영, 조혜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 수행빈도, 중요도, 난이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215-244, 2013
- 김은주, 「유아교사의 혁신유치원에 대한 고민과 기대-공립유치원교사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241-254, 2015
- 박현철,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KIPAD 논문집), 13-24, 2022
- 변정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다차원 정책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이윤진, 김지현, 이민경, 「누리과정 정책 평가와 유보통합의 필요성」, 입법과 정책, 385-408, 2017
- 한진원, 「유치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유치원내 (內)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 태도」, 유아교육학논집, 237-261, 2017
- 홍평도, 고성룡, 「초등학교 유희교실을 사용하는 병설유치원 교육공간 현황분석 - 진주시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31-138, 2019

■ 연구보고서

- 강지원, 최혜진, 김성아, 이지혜, 노현주, 조동훈, 유해미, 이길재, 이희현, 「돌봄 추진체계 중장기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1
- 곽진규, 김혜정, 김기선, 김인호, 고시식, 서현주, 김정순, 장두석, 이길환, 「2019 현장연구 최종보고서(소규모 학교 행정실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2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1
- 김권호, 최해룡, 강에스더, 서동기, 서현실, 오재홍, 박성근, 김봉규, 조선영, 백귀덕, 「학령인구 감소 시대 전남 미래교육의 방향」, 전라남도교육청, 2020
- 김근진, 박창현, 「국공립 유치원 행정 지원체계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 김정숙, 박진아, 「2022~ 2027 유치원 교사 수요 추계」, 육아정책연구소, 2022
- 김정숙, 이윤진, 조예운, 「유치원 방과후 과정 효율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6

- 김현자, 우수경, 이선희, 이학선,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유형 다양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2021
- 김현자, 우수경, 이선희, 이학선, 「유치원 설립 및 운영 유형 다양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2021
- 문무경, 김동훈, 정도영,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21
- 문무경, 김은설, 이세원, 신상인, 김애순, 김민숙, 손혜진, 「유치원 공교육 확대에 따른 유치원 발전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13
- 문무경, 김은설, 이세원, 신상인, 김애순, 김민숙, 손혜진, 「유치원 공교육 확대에 따른 유치원 발전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13
- 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정,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21
- 박종렬, 이종재, 강성국, 김왕준, 권현정,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 박종렬, 이종재, 강성국, 김왕준, 권현정,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육체제 전망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4
-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21
- 박창현, 김근진, 최윤경, 「2018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역할 재구조화」, 육아정책연구소, 2018
- 안혜준, 정우영, 김희영,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원아배치 마스터플랜(개선방안)」, 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20
- 양미선, 김동훈, 최윤경,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8
- 오정란, 이가영, 이지은, 「전북 공립유치원 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16
- 오정란, 이가영, 이지은, 「전북 공립유치원의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16
- 이상호, 김필,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2
- 이윤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7
- 이재희, 김은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7
- 이지은,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유아교육의 변화」, 육아정책연구소, 2020
- 이흥영, 김진환, 김병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 경기도교육연

구원, 2019

이흥영, 김진환, 김병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전라북도교육청, 「2014 유치원 맞춤형 컨설팅 장학 기본계획」, 2014

전라북도교육청, 「2014 유치원 맞춤형 컨설팅 장학 기본계획」, 2014

최은영, 박창현, 송신영,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6

■ 기타 참고

국립특수교육원(<https://www.nise.go.kr/boardCnts/list.do?boardID=354&m=010503&s=nise>),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검색일. 2022. 09. 19)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보육통계, (검색일. 2022. 11. 15)

서울시중구청(<http://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4390&mode=view&cid=1013036024>), 중구, 영유아 무상보육 100% 실현, (검색일. 2022. 11. 21)

서울특별시(<https://data.seoul.go.kr/dataService/boardList.do>),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검색일. 2022. 09. 19)

서울특별시교육청(<http://school.kedi.re.kr/seoul/index.jsp>), 교육통계기본자료, (검색일. 2022. 09. 19)

서울특별시교육청(<https://data.seoul.go.kr/dataList/200/S/2/datasetView.do>), 서울시 유치원 통계, (검색일. 2022. 09. 19)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1575), 2020년 출생 통계, (검색일. 2022. 09. 19)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19974), 2021년 출생 통계, (검색일. 2022. 09. 19)

통계청(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 서울특별시 합계출산율, (검색일. 2022. 09. 19)

통계청(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_S4F09S&conn_path), 시도별 맞벌이가구, (검색일. 2022. 09. 19)

통계청(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1), 유치원 개황, (검색일. 2022. 11. 08)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 인

구동향조사(2012~2021년), 합계출산율, (검색일. 2022. 09. 19)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 경
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22. 09. 19)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3/index.board), 경
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22. 09.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s://e-childschoolinfo.moe.go.kr/>), 유치원 알리미,
(검색일. 2022. 12. 16)

〈 부 록 〉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지(1차)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시어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수탁과제인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목적: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개선
- 조사유형: 전문가 의견 조사로 2회 조사 실시(본 조사는 1차 조사임)
- 조사일정: 12월 1일(목)~ 12월 5일(월)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시 유치원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보완점을 기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 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응답된 조사지는 바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정책 개선 방안은 크게 6개 정책영역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책영역 1은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정책영역 2는 인력 및 배치

정책영역 3은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정책영역 4는 교육과정 운영

정책영역 5는 방과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정책영역 6은 교육복지 및 재정

정책영역 7은 시설 및 환경 영역입니다.

각 정책영역의 항목들에 대해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영역 1.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정책영역 1은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영역으로 공립유치원 수(이용률) 및 학급 수, 공립유치원 취원율(정원충족률)과 관련됨.
개선방안
1-1.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유지, 달성 정책 계속 추진 ☞ 공립유치원은 공공성 차원에서 최소기준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용률 40% 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정책임.
1) 개선 방안의 타당성(타당성 여부에 표시하여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1-2. 1, 2학급 소규모 학급 지원, 병설 3학급 만들기 활성화, 또는 단설유치원 확대방안 ☞
1) 개선 방안의 타당성(타당성 여부에 표시하여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1-3. 공립유치원 단계적 통폐합 증장기방안 설계 필요 ☞ 병설 1-2학급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향후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유치원 단계적 통폐합 방안 설계고려
1) 개선 방안의 타당성(타당성 여부에 표시하여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1-4 추가의견 ☞ 정책영역 1에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할 정책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정책영역 2 인력 및 배치
정책영역 2는 인력 및 배치와 관련된 영역으로 담임교사 외 지원 인력의 유연성, 학급당 유아 수와 관련이 있음.
개선방안
2-1.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교사 지원제도 마련 ☞ 사립과 같은 투담임교사제 구축을 위해 수업지원교사 지원제도 마련함. 담임교사 외의 전문성을 갖춘 지원교사 제도를 구축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2-2.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력 1명 증원(유아담당으로 지정) ☞ 공립유치원 지원(통학버스, 급식업무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 유아 담당 장학사 인력 1명 증원 방안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2-3. 학급당 유아수 정원 미충족 공립 유치원 학급 유아수 하한 5명으로 유지 ☞ 학급당 유아수 정원 미충족 병설 유치원 학급 수 하한을 5명으로 유지하고 상한은 최소 12명 정도로 학급을 구성하여 1-2학급을 최대한 유지, 지원하도록 함.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2-4. 추가의견 ☞ 정책영역 2에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할 정책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정책영역 3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정책영역 3은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영역으로 급간식 운영, 통학버스 운영, 운영시간, 전반적인 운영관리와 관련됨.
개선방안
3-1.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매식/위탁 운영의 교육지원청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 병설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학교 급간식실 운영이 안 됨.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유아단계만 별도로 관리하거나, 교육지원청이 관할 지원청 소속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방학중 매식/위탁 운영 계약 등을 지원하고, 교사가 관리운영하는 방법을 원원하는 방안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3-2. 방학 중, 기간제 교사(또는 대체교사) 지원 제도 확립 ☞ 긴 방학이 공립유치원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며, 방학 중 교육의 여건 강화를 위해 기간제 교사 (또는 대체교사)제도를 안착 시키는 방안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3-3. 공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 ☞ 서울의 경우, 공립 통학버스 운영 유치원 8개원, 미운영 학교가 105개입. 30분 이내, 2킬로미터 이내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지원, 3-4개 유치원 공영 운영 차량 지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및 행정 절차 교육지원청 지원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3-4. 전염병 시기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코로나 19가 창궐할 때 학교 폐쇄로 긴급돌봄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많았음. 전염병 시기의 공립유치원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이 필요함.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3-5. 통합학교 모델 또는 혼합연령반 운영에 관한 중장기 방안 모색 ☞ 5년후 초등 학습수 급감의 시기를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유치동 통합학교 모델 또는 1-2학년 병설 유치원의 혼합연령반 구성에 관한 필요성 제기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3-6. 추가의견 ☞ 정책영역 3에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영해야할 정책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정책영역 4. 교육과정 운영
정책영역 4는 교육과정 운영 영역으로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다양화,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한글 및 수학 교육에 대한 요구),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있음.
개선방안
4-1.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다양화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4-2.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한글 및 수학교육에 대한 요구) ☞ 유치원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로 학부모들이 학습부재, 방임 등으로 이해,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요구,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과정 필요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4-3.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체험학습 강조, 부모요구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조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4-4 추가 의견 ☞ 정책영역 4에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할 정책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정책영역 5. 방과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정책영역 5는 방과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영역으로 방과후 특성화 활동 다양화, 특성화 활동 다양화 및 지원금 추가 지원, 방과후 돌봄의 교육기능 강화 등과 관련이 있음
개선방안
5-1. 방과후 특성화 활동 다양화

☞ 방과후 특성화 활동의 다양화, 활동의 질 제고, 유치원 자율 고려(1일 1과목 정책도 개선 등)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매우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5-2. 방과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매우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5-3. 방과후 돌봄의 교육기능 강화 ☞ 부모들이 유치원 4시 하원 이후 차량, 교육적 요구, 부모 퇴근시간 맞추기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방과후 돌봄 운영시간의 유연한 조정(이에 대한 홍보), 차량 운영, 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사교육이용 유아의 수요조사 필요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매우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5-4. 사립유치원 편법운영 제재 강화(교육과정 운영 중 특성화활동 시행 등) ☞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특성화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사립유치원 편법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제재 강화 필요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매우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5-5 추가 의견 ☞ 정책영역 5에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할 정책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정책영역 6. 교육복지 및 재정
정책영역 5는 교육복지 및 재정 영역으로 특수유아,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배려 유아 지원, 원아 1인당 총교육비, 초·중등교육예산 대비 유치원 예산 비율, 교육활동 관련 경비 비율 및 비율과 관련이 있음.
개선방안
6-1. 특수 통합 유치원 및 특수학급 증설 등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매우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6-2.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배려 유아와 가족에 대한 공립 유치원의 섬세한 배려, 연계 프로그램 강화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6-3.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충분한 확보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6-4. 추가의견 ☞ 정책영역 56에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할 정책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정책영역 7. 시설 및 환경
정책영역 7은 시설 및 환경 영역으로,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유치원별 건물 경과연수(노후도)와 관련이 있음.
개선방안
7-1.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 ☞ 그린, 디지털, 공간 등에 대한 리모델링, 증축 사업을 통해 미래 유아학교 구상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7-2.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 ☞ 실제 활용 면적 고려, 공간 대비 유아수용율 조정 필요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7-3.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산출, 공간 재구조화 필요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7-4. 유치원 ICT,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 ☞ 미래 유아학교 맥락에서 학교의 디지털, 에듀테크 기술 및 시설 여건 확충
1) 개선 방안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매우타당 <input type="checkbox"/> 타당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타당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타당하지 않음
2) 제시된 개선 방안 중 구체적으로 포함 또는 추가/제고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7-5. 추가 의견 ☞ 정책영역 7에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할 정책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부록 2. 교직원 설문 조사지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 유치원 발전 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를 위한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지속가능성 현황 및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서울시 유치원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는 약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 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 (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기간은 12월 5일(월) ~ 12월 8일(목)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 본 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께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조사진행 동의하지 않음 조사중단

본 조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된 모든 데이터는 통계 비율을 산출하는데에만 사용되며, 보고서가 완료된 후 6개월 내에 응답된 설문지와 전산 데이터는 전량 폐기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다음은 본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분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QL. 기관 유형	① 국공립 단설 ② 공립병설 ③ 사립 법인 ④ 사립 사인		
SQ2. 직위	① 교육과정반 담당교사 ②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③ 원장 ④ 원감		
SQ3. 응답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4. 응답자 연령	만 세
SQ5. 응답자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이상 졸업 ⑤ 기타()		
SQ6. 교육경력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SQ7. 담당 영유아 연령	① 만3세, ② 만4세 ③ 만5세 ④ 혼합연령 () ⑤ 비답임		
SQ8. 기관이 속속된 구	()구 (예시:광진구)		

I. 서울 유치원 기관 지속가능성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는 유치원은 현재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2. 현재 귀하가 근무하는 유치원은 향후 5년~ 10년 사이 지속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관지속가능성: 제반 환경이 가능하여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①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	② 지속가능성이 낮다	③ 보통이다	④ 지속가능성이 높다	⑤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	-------------------	-----------	-------------------	----------------------

3. 출생아수 감소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인식하십니까?

- ① 학급편성시 최소인원 미달로 교사 정원 감축 우려
- ② 학급당 유아수가 너무 적어 교육활동이 운영이 어려움
- ③ 원아모집 미달의 책임을 교사들이 져야한다는 부담감
- ④ 유치원 폐원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
- ⑤ 기타()

II. 정책개선방안

다음은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치원 운영 개선과 발전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 다음은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강화 영역입니다. 해당영역의 정책의 적합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적합도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1	공립유치원 이용율 40% 정책은 계속 추진					
2	공립유치원 단계적 재구조화 중장기방안 설계 필요 (단설 중심 병설 통합 등)					
3	폐원 유치원 재구조화 방안 추진 (폐원 유치원을 진흥원, 실내놀이센터 등으로 전환)					
4	원아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제고 필요					
5	매입형 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퇴로마련					
6	사립유치원 퇴로마련(용도변경 등)					

2. 다음은 인력 및 배치 영역입니다.

번호	문항	적합도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1	학급정원 감소 정책 적극 추진 (유아수배치 만3세 14명, 만4세 18명, 만5세 20명, 하한 5명으로 유지, 사립 정원감소정책시 재정지원)					
2	사립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정책 현실화(정보공시, 에듀파인, 나이스 등 운영)					
3	영양교사 배치가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가능한 기준 마련					
4	교과교사 제도를 활용한 수업지원교사, 비담임교사 배치 기준 마련					
5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6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력 1명 증원(유아담당으로 지정)					
7	사립유치원 교사 법적지위보장, 처우개선 강화, 내부비리고발 교사 보호조치 마련					

3. 다음은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영역입니다.

번호	문항	적합도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1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학교 급식실 운영 법개정 제안 또는 급간식 매식/위탁 운영의 교육지원청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2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기간제 교사(또는 대체교사) 지원 제도 확립					
3	공립 통학버스 지원 방안					
4	전염병 시기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긴급돌봄 등)					
5	혼합연령반 운영에 관한 증장기 방안 모색					

4.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 영역입니다.

번호	문항	적합도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1	유치원 특색 교육과정 활성화/다양화					
2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 (한글 및 수학교육에 대한 요구)					
3	다양한 체험학습 및 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4	유-초연계 교육과정 운영 강화로 학교준비 및 적응 교육 강화					
5	2019 개정누리과정 개정 및 누리과정 명칭 변경					

5. 다음은 방과후 과정(돌봄 및 특성화) 운영 영역입니다.

번호	문항	적합도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1	방과후 특성화 운영 및 활동 다양화 (방과후 특성화 활동의 다양화, 활동의 질 제고, 유치원 자율 고려(1일 1과목 정책도 개선 등), 문예제 중심의 특성화 활동 등 유아발달에 적합하면서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필요)					
2	방과후 및 특성화 지원금 추가 지원 (방과후과정 지원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의 욕구 충족, 질높은 급간식 이용 가능)					
3	방과후 돌봄 운영 제도의 다양화(온종일돌봄, 오전/오후반 운영 등) (지역별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방과후 돌봄 운영 제도를 다양화)					
4	원아수용계획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제고 필요					

6. 다음은 교육복지 및 재정 영역입니다.

번호	문항	적합도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1	특수 통합 유치원 및 특수학급 증설 등					
2	특수교육대상 유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치계획 수립 필요					
3	유아특수학급에 연령별로 교사를 배치하여 교사가 학급당 나누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정					
4	특수학급을 공립, 사립유치원에 모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배려 유아와 가족에 대한 공립 유치원의 섬세한 배려, 연계 프로그램 강화					
6	원아 1인당 총교육비 등의 충분한 확보					

7. 다음은 시설 및 환경 영역 영역입니다.

번호	문항	적합도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1	노후 단병설 유치원 시설 단계적 개선 사업 실시 ☞ 그린, 디지털, 공간 등에 대한 리모델링, 증축 사업을 통해 미래 유아학교 구상					
2	원아 1인당 학급당 교실 면적 확대 ☞ 실제 활용 면적 고려, 공간 대비 유아수용율 조정 필요					
3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제고 ☞ 교사 1인당 교사실 면적 산출, 공간 재구조화 필요					
4	유치원 ICT, 디지털 활용 여건 개선 ☞ 미래 유아학교 맥락에서 학교의 디지털, 에듀테크 기술 및 시설 여건 확충					

8. 다음은 교육청 조직 및 전달체계 영역입니다.

번호	문항	적합도				
		전혀 적합 하지 않다	적합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합 하다	매우 적합 하다
1	유아교육 단계를 학교급으로 인정하는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필요 ☞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2023년 3월 조직개편 시행을 위한 행정 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과 관련하여, 교원 및 사학정책과를 신설하면서도 유아인사가 배제되거나, 유아교육과는 여전히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인력보강 및 조직 혁신에서 배제되고 있음.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만5세 의무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 ☞ 완전무상교육 및 유아학교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동네 1개 공립 유치원 개설 작업등 공립유치원 기틀 마련작업 필요					
3	유아무상교육 우선적 실현					
4	유아학교 명칭 변경 ☞ 유치원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우선 필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록 3. FGI 조사지

I. 인식, 경험 나누기

1.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나? 어떤 현상을 경험했는가?
2. 서울시 유치원 정원충족률, 유아 수, 교직원 수, 설립 및 폐원 등, 현상을 경험한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가?
☞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및 환경(교직원, 급식·간식, 교육 프로그램, 시설 운영 등) 고려)
3. 학령인구 감소는 향후 3-5년(단기), 5년-10년(중장기), 서울 유치원 구조, 운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II. 정책개선방안

1. 서울 공사립유치원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또는 현재 정책의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1. 교육 공공성 및 교육 기본권 증족, 2. 인력 및 배치, 3. 거버넌스 및 관리 운영, 4. 교육과정 운영, 5. 방과후과정운영(돌봄/특성화 운영), 6.교육복지 및 재정, 7. 시설 및 환경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영유아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은 영유아교육기관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여 운영 가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영유아교육기관은 경제, 환경, 사회의 측면에서 미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

1. 성함
2. 유치원 명
3. 기관유형 1)사립사인 2)사립법인 3)공립 단설 4) 공립 병설
4. 기관위치: 서울시 () 구)
5. 부모연령: 만 ()세
6. 자녀연령(성별): 만 () 세(여아/ 남아)
7. 면담 부모 최종학력:
8. 부모 맞벌이여부: 1) 유 2) 무
9. 현재 기관재원기간: ()년 ()개월
10. 전화번호:

학령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공사립유치원 운영 방향과 과제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김상인

주관부서 : 교육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입법조사관 김지수)
입법담당관(입법조사관 김영재, 주무관 김창민)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2180-8264 (교육위원회)
전화) 02-2180-7905 (입법담당관)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책임연구 : 박창현

연락처 : 02-398-7789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284-01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